

11-1352000-001405-14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연구
· 남원의료원 ·

2018 · 11

국립중앙의료원
NATIONAL MEDICAL CENTER

제 출 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1. 30.

- 연 구 기 관 명 : 국립중앙의료원
- 연 구 책 임 자 : 서 지 우 (국립중앙의료원)
- 참 여 연 구 원 : 김 소 영 (충북대학교병원)
배 성 권 (고신대학교)
정 백 근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최 만 규 (고려대학교)
윤 아 리 (국립중앙의료원)
김빛나라 (국립중앙의료원)
이 태 호 (국립중앙의료원)
김 민 지 (국립중앙의료원)
신 한 수 (국립중앙의료원)

차 례

제1장 연구 개요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대책	1
1. 연구 개요	1
2. 공공보건의료 관련 대책	6
제2장 지역 보건의료 환경	16
1. 일반적 특성	16
2. 의료수요 및 의료서비스 현황	20
3. 의료이용 현황	31
제3장 병원 운영 현황	42
1. 진료인프라	42
2. 진료서비스	52
3. 공공보건의료사업	75
4. 병원 관리	84
5. 경영성과	106
6. 시설 및 장비	123
제4장 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원	133
1. 전라북도의 산하 의료원 관리지원	133

제5장 설문조사 결과	144
1. 개요	144
2. 조사결과 요약	147
3. 조사결과 분석	149
제6장 남원의료원 기능 및 역할 개편 방안	201
1. 진료서비스	201
2.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210
3. 병원 운영	216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	222
제7장 모니터링체계 구축	228
1. 개요	228
2. 영역별 모니터링 지표	229

표 차례

표 2-1	중진료권 현황	16
표 2-2	전북남원 진료권 도로 포장율 현황	17
표 2-3	인구현황 I	18
표 2-4	인구현황 II	19
표 2-5	전북남원 진료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9
표 2-6	남원시 입원(전체)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60위 질환)	21
표 2-7	전주시 입원(전체)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60위 질환)	23
표 2-8	남원시 노인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10위 질환)	25
표 2-9	남원시 소아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10위 질환)	26
표 2-10	남원시 장애인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10위 질환)	27
표 2-11	남원시 연령별·사망원인별 사망 현황	28
표 2-12	남원시 응급 및 심뇌혈관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연도별 추이	29
표 2-13	남원시 모성 및 영아사망률	30
표 2-14	의료기관 현황	31
표 2-15	종합병원 서비스 가능 구역 및 취약인구수	33
표 2-16	접근성 취약인구비율 - I	35
표 2-17	접근성 취약인구비율 - II	35
표 2-18	분야별 TRI - I	36
표 2-19	분야별 TRI - II	36
표 2-20	분야별 TRI - III	36
표 2-21	분야별 RI - I	37
표 2-22	분야별 RI - II	37

표 2-23	주진료권 의료이용 유출입	38
표 2-24	(순창군) 의료이용 유출입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응급, 분만, 종합	40
표 3-1	남원의료원 진료과별 전문의 현황	42
표 3-2	직종별 인력현황(2017년 12월 기준)	44
표 3-3	남원의료원 개설 병상	45
표 3-4	의사 인력 현황 (2018년 10월)	46
표 3-5	연도별 전문의 중 봉직의, 공중보건 의사 구성 변화	46
표 3-6	분기별 진료과별 의사 구성 변화와 봉직의 재직 기간	47
표 3-7	봉직의 연간 이직률	48
표 3-8	의사 수련 및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현황	48
표 3-9	연도별 간호 인력	49
표 3-10	간호 인력 급수 별 현황	50
표 3-11	간호사의 경력 현황(2018년 현재 기준)	50
표 3-12	간호사 연간 이직률	51
표 3-13	연도별 남원의료원 입원·외래 실인원	52
표 3-14	연도별 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입원 진료실적	53
표 3-15	연도별 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외래 진료실적	54
표 3-16	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56
표 3-17	입원(전체)·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57
표 3-18	응급 관련 기관 현황	60
표 3-19	응급·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60
표 3-20	재활·노인의료서비스 인력 및 시설 현황	63
표 3-21	재활·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63
표 3-22	남원시 계층별 환자 수 및 남원의료원의 치료 점유율	65
표 3-23	계층별·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66
표 3-24	계층별·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69
표 3-25	계층별·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72
표 3-26	공공보건 의료사업 담당 인력	75

표 3-27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실적	76
표 3-28 미충족 의료서비스 사업 실적(2017년)	77
표 3-29 건강안전망 사업 실적(2017년)	78
표 3-30 의료안전망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사업 예산	79
표 3-31 지역사회 연계기관 및 내용	80
표 3-32 정부·정책사업참여	80
표 3-33 남원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81
표 3-34 남원의료원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82
표 3-35 남원의료원의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	84
표 3-36 위원회 현황	87
표 3-37 병원운영회의 현황	88
표 3-38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89
표 3-39 관리지표 현황	90
표 3-40 연도별 직종별 교육실적	91
표 3-41 직원교육 만족도	92
표 3-42 노사협의회 현황	93
표 3-43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	93
표 3-44 이사회 구성 현황	95
표 3-45 이사회 운영 실적	96
표 3-46 역대 원장 현황	97
표 3-47 리더십 만족도	99
표 3-48 제규정(승진원칙, 승진방법, 최소 경과 년수)	101
표 3-49 평균 임금	101
표 3-50 평가와 보상 만족도	102
표 3-51 직종별 근속기간 (2018년 6월)	103
표 3-52 보직 현황	104
표 3-53 모자병원 및 협약 체결 기관 현황	105
표 3-54 연도별 재원연인원, 외래환자수 추이	106
표 3-55 연도별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107

표 3-56 연도별 병상이용률 추이	108
표 3-57 연도별 의료수익, 의료비용 추이	109
표 3-58 연도별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추이	110
표 3-59 연도별 경상수익, 경상비용 추이	111
표 3-60 연도별 당기순손익 추이	112
표 3-61 연도별 의료수지 비율 추이	113
표 3-62 연도별 경상수지 비율	114
표 3-63 연도별 인건비 투자효율	115
표 3-64 연도별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116
표 3-65 직종별 평균 임금(2017년 결산서 기준)	117
표 3-66 진료과별 의료수익	118
표 3-67 진료과별 입원수익	119
표 3-68 진료과별 외래수익	121
표 3-69 의료외수익, 비용, 손익 내역	122
표 3-70 건축 개요	124
표 3-71 동별 개요(‘17.12 기준)	124
표 3-72 필수 의료시설 설치 여부	125
표 3-73 허가병상수 및 병상이용률	125
표 3-74 의료시설 연면적 비교	126
표 3-75 주요 진료시설 규모	127
표 3-76 기숙사 규모 비교	128
표 3-77 장례식장 면적 비교	129
표 3-78 의료장비 경과연수 비율(%)	130
표 3-79 활용 저조 장비 목록 (2017년)	131
표 3-80 의료장비 구매관리 준수 여부 (2017년)	132
표 4-1 전라북도도 산하 의료원 현황	133
표 4-2 ‘14~’18년 운영평가 결과	134
표 4-3 전라북도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구축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135

표 4-4	전라북도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및 미래 수요에 선제적 대응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137
표 4-5	전라북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138
표 4-6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140
표 4-7	전라북도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140
표 4-8	전라북도 의료원 담당 업무분장	141
표 4-9	전라북도 원장 경영성과 항목	141
표 4-10	'15~'17년 지방의료원 당 지자체 평균 지원 금액	142
표 4-11	'15~'17년 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	143
표 4-12	'15~'17년 전라북도 2개 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	143
표 5-1	주요 조사내용	145
표 5-2	응답자 분포	146
표 5-3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158
표 5-4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 확보 정도	160
표 5-5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 확보 정도	162
표 5-6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보완사항	163
표 5-7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 역할 수행 적합정도	164
표 5-8	향후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	168
표 5-9	향후 적절한 병원 운영 방향	170
표 5-10	전반적 근무 만족도	196
표 6-1	전국 및 남원시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연도별 추이	202
표 6-2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설치법안 [의안번호 제15872호]	209
표 6-3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변화	222
표 6-4	지방의료원 경영실적 평가와 운영평가	225
표 6-5	남원의료원 원장성과계약 내용	226
표 7-1	남원의료원 운영진단 모니터링 지표	22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 수행 방법	3
그림 1-2 진단 수행 체계	4
그림 3-1 연도별 남원의료원 입원·외래 실인원	52
그림 3-2 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56
그림 3-3 공공의료팀 조직 내 위치	75
그림 3-4 운영평가 결과	81
그림 3-5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82
그림 3-6 남원의료원 조직도	86
그림 3-7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89
그림 3-8 교육 만족도	92
그림 3-9 리더십 만족도	100
그림 3-10 평가와 보상 만족도	102
그림 3-11 연도별 재원연인원, 외래환자수 추이	106
그림 3-12 평균진료비	107
그림 3-13 병상이용률	108
그림 3-14 의료수익	109
그림 3-15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110
그림 3-16 정상수익, 정상비용	111
그림 3-17 당기순손익	112
그림 3-18 의료수지비율	113
그림 3-19 정상수지 비율	114
그림 3-20 인건비 투자효율	115
그림 3-21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116
그림 3-22 남원의료원 전경	123
그림 5-1 대표진료과	149
그림 5-2 운영이 필요한 진료과	150
그림 5-3 보완이나 강화가 필요한 진료과	150

그림 5-4 환자수 증감 상황	151
그림 5-5 지역 노인환자 의료서비스 대응 수준	152
그림 5-6 남원의료원의 강점	153
그림 5-7 남원의료원의 단점	154
그림 5-8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외부적 환경요소	155
그림 5-9 운영과 발전을 어렵게 하는 외부적 환경요소	156
그림 5-10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157
그림 5-11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 확보 정도	159
그림 5-12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타당여부	161
그림 5-13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보완사항	163
그림 5-14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 역할 수행 적합정도	165
그림 5-15 향후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	167
그림 5-16 향후 적절한 병원 운영 방향	169
그림 5-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방향	171
그림 5-18 운영 요소별 수준	172
그림 5-19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173
그림 5-20 성과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상	174
그림 5-21 조직관리	175
그림 5-22 원장님의 리더십	176
그림 5-23 각 직무별 업무협조	177
그림 5-24 직종별 인력확보 용이성	178
그림 5-25 의사 확보 용이성	179
그림 5-26 간호사 확보 용이성	180
그림 5-27 행정직 확보 용이성	181
그림 5-28 의료기사 확보 용이성	182
그림 5-29 간호조무사 확보 용이성	183
그림 5-30 일반기능직 확보 용이성	184
그림 5-31 채용조건별 수준	185
그림 5-32 급여수준	186

그림 5-33 복지	187
그림 5-34 도심과의 거리	188
그림 5-35 자기발전기회	189
그림 5-36 업무시간 외 여가활동	190
그림 5-37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191
그림 5-38 직무간 업무협조 및 인간관계	192
그림 5-39 관내 병원 및 보건소와 업무협조	193
그림 5-40 남원의료원 근무 지속 의향	194
그림 5-41 전반적 근무 만족도	195
그림 5-42 중앙정부 관리체계 적합도	197
그림 5-43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198
그림 5-44 지방정부 관리체계 적합도	199
그림 5-45 지방정부의 지원 만족도	200
그림 6-1 기능변화에 따른 주요 고객 변화 및 의료수익 증대	223

제1장 연구 개요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대책

1. 연구 개요

1.1 연구 필요성

-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별 기능·인력·구조 등에 관한 종합적 진단과 이에 근거한 처방을 제공하여 운영 혁신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근거하여 운영진단이 필요한 의료원을 대상으로 진단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

1.2 연구 목적

- 지역환경, 운영 현황, 환자 이용 실태, 관련 정부 대책 등을 고려하여 진단대상 병원이 지역내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1.3 연구 내용

1) 지역 보건 의료 환경

- 소재 지역의 인구 및 진료권 규모, 지역 내 병상 현황,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2) 진료서비스

- 개설 진료과목 및 전문 인력 현황, 급성기 진료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도출

3) 공익적 역할

-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의료안전망 기능 및 공공의료사업 수행 현황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방안 도출

4) 병원 운영 관리

- 인력구조, 노사관계 등 조직관리, 경영성과, 내·외부 기관과의 협력 관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문제점, 개선 방안 도출

5) 전라북도의 관리 지원

- 남원의료원의 설립 주체이며 관리 감독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업무 개선 방안을 도출

1.4 연구 방법 및 수행 체계



그림 1-1 연구 수행 방법

1) 연구 방법

가. 문헌 고찰

- 지방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기존 보고서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공공적 역할 수행 정도, 병원 운영 규정의 적절성 검토

나. 현장 방문 조사

- 진료,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조직 및 인력 관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시설과 의료장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실무자와 인터뷰를 실시
- 지방의료원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지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에 필요한 자료 작성을 요청하여 분석

다. 서류 및 전산 자료 조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 현황자료 분석
- 지역 인구, 노령화지수 등 사회경제적 측면의 자료는 통계청 자료를 수집·활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진료비 청구 자료 분석
- 해당병원 및 비교병원의 결산서 등 분석하여 활용

라. 설문조사

- 병원내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들을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병원별 설문지를 완성하여, 전수 설문조사를 통하여 병원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5) 진단 수행 체계

- 연구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지방의료원 관계자가 각기 진단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
 - 보건복지부 : 진단 대상 선정, 진단결과 후속조치 결정, 관리지원 정책 개선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진단 범위 및 수행 방안 수립, 진단 수행
 - 지방자치단체 : 진단결과 후속조치 시행 및 관리 지원 체계 개선
 - 진단 대상 지방의료원 : 자료 제공 등 운영진단 지원, 진단결과 후속조치 시행



그림 1-2 진단 수행 체계

1.5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활용 방안

1) 기대 효과

- 고객 만족도 증대 및 경영효율성 강화
 -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및 프로세스 개선을 통하여 고객 중심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영의 효율성 강화
- 의료 환경 분석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 지역주민들의 의료이용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의료서비스 및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의료 질을 높이는 서비스 제공 체계 확립
- 경영방향 수립 지원
 - 내부적인 역량의 개선과 보건의료 환경, 지자체의 지원 체계 등 외부적인 환경을 반영한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원 정책 개선

2) 활용 방안

- 평가대상기관을 위한 결과 활용
 - 병원 자체 혁신활동을 위한 지원
-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결과 활용
 - 의료원 관리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정보 제공
- 중앙정부를 위한 결과 활용
 - 의료원 경영개선 정책 수립 지원

2. 공공보건의료 관련 대책

2.1 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 중 지역거점병원 육성 정책(2005)

- 첫째, 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지역거점공공병원 모델 사업을 추진한다.
 - 장기발전계획 수립 : 지역별 의료 수요, 의료 공급 및 지역 특성에 기반 한 개별 병원의 역할 정립, 시설·장비·인력 확충 및 운영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모델사업 추진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발전 가능한 병원을 선정하여, 장기요양병상 증축 및 시설·장비 보강을 지원한다.
- 둘째, 시설·장비를 현대화 한다.
 - 건물이 노후화되어 외부경관이 열악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불편한 의료원에 대한 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 의료원별로 진단 및 검사장비 등 주요 의료장비를 현대화하여 환자진료수요 및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확보한다.
- 셋째, 국립대학교 병원과 인력교류로 우수의료진을 확보한다.
 - 국립대 교수의 겸임·겸직제도 도입 및 국립대병원에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단기 파견근무제, 훈련과정 설치 등 우수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넷째, 공공의료기관간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 의료원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사업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을 우선 지원한다.
- 다섯째, 주기적인 평가와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시킨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에 따른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 일정 기간 동안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임원진은 교체한다.
 - 의료원장 임용 시 공개모집을 통한 경영전문가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 경영의 투명성 공개로 노사 고통 분담 분위기를 조성한다.
 - 지역거점 공공병원 이사회 구성 개편 및 기능을 강화한다.

- 여섯째, 민간병원과 차별되는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
 - 지역응급의료센터, 재활센터, 장기요양병동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장비를 확충한다.
 - 진료지침에 따른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실행한다.
 - 지역거점공공병원에 공공의료사업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일곱째, 지방의료원의 관리권을 이양한다.
 - 지방의료원 관리·평가 주관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2.2. 지역거점공공병원 발전계획(2010)¹⁾

1) 지역거점공공병원이 근본적 경쟁력을 가지도록 제도적 뒷받침

- 진료비 지불 방법을 포괄수가제(DRG)로 개편한다.
 - 원가를 적정하게 보상하도록 공공병원에 적합한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
 - 4개 지방의료원에 대한 시범사업 후 전체 지역거점공공병원에 확산한다.
-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의료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한다.
 -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노후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신축을 추진한다.
 - 지방의료원에 국비를 투입하여 시설·장비를 확충한다.
 - 적십자병원은 적십자사가 추진 중인 경영개선계획이 완료되면 세부검토 후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 재정자립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차등화 한다.
 -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속하는 의료원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보조금 기준보조율을 차등화 한다.

1) 보건복지가족부, 지역거점 공공병원 발전계획, 2010. 1.

2)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대폭 강화

- 응급·전염병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역량을 강화한다.
 -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응급, 전염병, 건강증진 등 필수·공익적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 및 운영비를 지원한다.
- 서민층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저소득층 무료 간병서비스를 실시한다.
 -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의료안전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한다.
 - 시·도 주관으로 『(가칭) 공공의료 협력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방식을 변경한다.
 - 공공보건의료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3)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의료원 지원 강화

- 의료취약지 의료원을 지정 및 지원한다.
 - 의료취약지에 위치하여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지정·지원한다.
- 의료취약지 의료원은 대학병원의 의료 인력을 직접 지원한다.
 - 대학병원이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거점공공병원에 의사인력을 지원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4)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노력하지 않는 병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배제한다.
 - 병원경영 지표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운영상 비효율이 크고 지자체의 지원 의지가 적은 지역거점공공병원은 국고지원에서 제외한다.
 - 포괄적 진료를 담당할 여건이 안 되는 급성기병원은 재활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 책임경영제도 정착을 지원한다.
 - 병원장의 임기 내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도록 경영성과계약을 활성화한다.
- 운영평가 개선 및 결과의 피드백을 강화한다.
 -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소액을 다수의 의료기관에 분배하기보다는, 사업타당성과 효과성이 높은 의료기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 사용자 중심의 평가가 되도록 운영평가를 개선한다.
 - 운영평가 및 운영진단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3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2013)²⁾

1) 지방의료원의 운영효율화

- (원장 책임경영) 원장-지자체간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장 평가제를 도입하며 불합리한 단체협약을 개선하고 지방의료원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한다.
- (운영 투명성) 경영실적·단체협약·인건비 등 운영정보를 공시하고 이사회에 지역주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한다.
- (지자체 지도감독) 재정수반 의사결정에 대한 지자체 승인절차를 도입하고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지원·관리 수준을 조사하여 지자체 평가에 반영한다.

2)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 강화

- (기능개편) 지역 내 부족한 미충족·필수의료 분야는 강화하고 민간과 경쟁영역은 축소하며 시설·장비 지원 시 공익적 기능 개편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 (보호자 없는 병원) ‘보호자 없는 병원’ 제도화 시 지방의료원에 우선 적용을 검토하여 환자 간병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경쟁력을 강화한다.
- (의료 질 제고) 실폐괄수가제를 통하여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표준진료지침 개발·보급으로 의료 품질을 향상하며 의료기관 평가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한다.

2) 관계부처합동,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강화방안, 2013. 10.

3) 지방의료원 평가·지원 체계화

- (운영평가) 매년 운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 실적을 지원과 연계한다.
- (의료인력 지원) 대학병원 의료 인력을 지방의료원에 파견하는 경우에 인건비를 지원하며 경영·행정·의료 등 직무별 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한다.
- (시설·장비, 정보화 지원) 의료원별 중기투자계획에 따라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전자차트(EMR) 도입 등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 (공익적 비용) 공익적 기능 수행에 따른 손실비용 계측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체계적 지원 근거를 제공한다.

4)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

- (기관 간 연계협력)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기관별 역할분담 및 환자진료·협력 강화한다.
- (공공의료지원 조직) 공공의료수행기관 평가·컨설팅, 교육훈련 등을 담당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 공공의료 지원조직을 강화한다.
- (관리체계)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복지부 간 효율적 관리체계를 모색한다.
- (공공성 평가)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공공성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통과기관을 우선 지원하여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4.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중 지역거점공공병원(2016)³⁾

1)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내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 구축
 -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질병·빈곤 등 복합적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보건의료복지 연계·지원·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3) 보건복지부,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016.4

- (구성) 의료기관 내 공공의료사업팀, 사회사업실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조직을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센터’로 통합
- (기능) ▲병원방문시 행정대행서비스, ▲진료비지원, ▲간병지원 및 퇴원 후 지속적인 질병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계획 수립 등
- (지원)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사업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사업비) 지원 추진 (사회복지사 1인 인건비 0.3억, 관리운영비 0.2억 등 개소당 총 0.5억원)

2) 필요 공공의료 기능 강화

- 지역주민의 기본적 의료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필요 진료과목 및 진료시설 유지
 -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에 대해 수요가 많은 의료원은 우선 지원하고, 요구도가 낮은 의료원은 신·증축 등 대규모 지원 지양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가족의 간병 부담 경감

< 필요 공공의료 기능강화 기본원칙 >

- ◆ 농어촌 등 취약지는 지역별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진료과목(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비뇨기과,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강화
- ◆ 도시지역 의료원은 민간과의 경쟁분야는 축소하고, 대상·분야별 전문화, 보건복지연계, 건강증진 등 특화 기능 강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제공

3) 지역 내 공공보건 의료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한 기능 특성화

- 민간 기피 필요의료(재활, 화상, 완화의료, 고압산소치료 등)에 대한 지역내 수요 및 공급 상황을 감안하여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 강화 추진
 - 민간에서 경쟁이 과열된 분야 지양, 지역 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지역 요구도가 높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
- 기능특성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의료원은 해당분야 의료인력을 「공공병원 파견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

4) 공익적 기능수행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적 비용 계측 체계화
 - 지방의료원 등의 원가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적자규모가 체계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공익적 비용 계측 체계화
-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비용에 대해서는 실폐괄수가 인센티브('14년 15% → '15년 35%)를 통해 보전
 - 공익적 비용 계측 결과 등을 종합하여 향후 인센티브 비율 조정 검토
-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신축·증축·개축시 지방의료원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종합병원으로서의 적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300병상 이상 권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비율 조정 또는 재정자립도 연동 부담 비율 설정 방안 검토

5) 지역거점 공공병원 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및 표준화

- 지방의료원에 표준병원정보시스템(EMR)을 구축 지원하여 진료·운영 효율성 및 고객 만족도를 높여 지역거점 공공병원 경쟁력 제고
- EMR의 표준화를 통해 시스템 활용도 제고 및 병원 간 정보 교류 기반 마련
 - 시스템 내에 표준서식을 '기본값(default)'으로 내장하고, '보건의료용어 표준고시'를 반영하는 등 서식·용어 등의 표준화 정도를 제고

6)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증 획득 지원

- 환자 안전 수준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의료기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국고지원사업 가점부여,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등을 활용해 원인 해소 후 조기 인증 독려

7) 중기 경영(운영)개선 계획 수립·이행 점검

- 지방의료원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의료원별 자구노력 등에 대해 경영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리·지원
- 「표준운영지침」 마련·보급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및 기능, 필수 공공의료사업, 필요한 진료역량, 경영관리 기준 등 필요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제시

8)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 체결 의무화

- 원장의 임기 내 자율적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그에 상응한 책임과 성과를 강화하도록 지자체-의료원간 경영성과계약 체결 의무화
 - 지자체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50%씩 반영한 경영핵심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인사 및 보수에 반영
 - 복지부는 경영성과계약 달성 여부를 운영평가에 반영하고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실효성 제고

9) 공익성 강화 및 비효율성 경감을 위한 컨설팅 제공

- 3년 이상 당기 순손실 발생, 공공보건의료사업 비중이 현저히 낮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컨설팅 전문 업체(복지부 주도)를 통한 운영진단 실시
 -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고, 지자체 상황에 맞는 진료과목별 운영전략 및 경영혁신 전략(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제시

10) 지방의료원 「업무상황 등에 대한 공시제」 도입

- 매년 사업계획서, 인건비 예산과 집행현황, 단체협약 등을 매년 지방의료원 홈페이지 및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통합매체에 공시
 - 모든 공시사항을 통합공시하여 불합리한 단체협약 및 진료비 감면 등에 대해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

- 거짓 사실의 공시에 대해 복지부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 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하도록 요청

2.4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⁴⁾

1)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

-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및 육성
 - (지정기준 등) 전국을 인구수·거리·의료이용률 등을 기준으로 70여개 지역(중진료권)으로 분류하여 지정 및 육성('19. 법률 개정~)
 - (지정) 필수의료로 위한 급성기 진료가 가능한 역량 있는 종합병원급 공공병원(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또는 민간병원을 지정
 -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의료수행기관으로 지정·계약하거나, '(가칭)공익특수의료법인'으로 전환 등을 요건으로 지정
 - (기능보강) 공공병원의 인프라 및 역량이 낮은 취약한 지역은 공공병원 기능보강을 통해 지역책임의료기관 육성
 - (신축) 공공병원이 없고 역량 있는 민간병원도 없는 지역은 공공병원을 신축하여 육성
-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지원
 -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내 '(가칭)공공의료협력센터' 설치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업비 지원('19. 30억원 신규편성, 국립대병원부터 실시~)
 -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파견되는 의료진을 전임교원 또는 기금교수로 채용하는 등 안정적 근무환경·교육기회 부여
 -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지원(지방의료원 등의 기능보강, 의료인력 파견지원 사업 등과 연계)
 - ※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기능보강 예산 84% 증액('18. 530억원 → '19. 977억원)
 -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 취약지 건강보험 수가 가산체계' 도입 방안 마련

4)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2018. 10.

2)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 강화

-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중증의료 강화
- 산모·어린이·장애인 등 건강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
-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 등 안전체계 구축
 - 중진료권 ‘지역 감염병 관리병원’으로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3)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및 역량 제고

- 공공의료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 국립중앙의료원을 교육병원으로 구축하고 국립병원·지방의료원 등을 활용하여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 실시
- 필수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관리
 - 현재의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총괄 책임지고, 2년 이상 계약으로 전환 검토
- 공공보건의료기관 역량 제고
 - 지방의료원 등의 체계적인 기능보강을 위한 병원설계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필수의료 중심 기능특성화 및 평가·컨설팅 내실화

제2장 지역 보건 의료 환경

1. 일반적 특성

1.1 지역 개요

1) 지리적 위치

- 남원시는 전라북도 남동부에 위치한 시이며, 동쪽은 경상남도 함양군, 서쪽은 순창군, 남쪽은 전라남도 구례군과 곡성군, 북쪽은 임실군·장수군과 접하고 있음
- 동쪽·북동쪽·남동쪽이 소백산맥에 속하는 높이 1,000m 이상의 산지이고, 남서쪽 순창군과의 접경지대는 500~700m의 산지로 되어 있음
- 면적은 752.20km²이고, 행정구역으로는 1개 읍, 15개 면, 7개 행정동(23개 법정동), 334개 행정리(157개 법정리)가 있음
- 순창군과 함께 전북남원 중진료권에 속해있음

표 2-1 중진료권 현황

진료권	지역	행정구역
전북 남원	남원시	1읍 15면 7행정동(23법정동) 334행정리(157법정리)
	순창군	1읍 10면 305행정리(131법정리)

2) 교통

- 전라선 철도와 광주대구고속도로(구 88올림픽), 순천완주고속도로가 지나가며, 양 고속도로는 남원JC에서 교차함. 국도는 13번국도, 17번국도, 19번국도, 24번국도가 있음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계획 중이며, 향후 노선의 개통을 통해 남원역은 호남과 영남 간 교통의 요지 역할은 물론 관광객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광주로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생활권역이 확대됨

표 2-2 전북남원 진료권 도로 포장율 현황

구분	도로 포장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원시	73.2	74.3	74.5	73.2	76.3
순창군	75.4	77.8	80.4	80.3	-

* 출처 : 통계청, 전라북도 기본통계('12~'16)

○ 추후 교통 변화 사항



- 달빛내륙철도
 - 광주역~대구역 구간 개통
 - 2025년 개통 예정

1.2 인구학적 특성

1) 인구현황

○ 정의

- 해당 지역(시군구)의 인구수

표 2-3 인구현황 I

단위 : 명, %

진료 권	지역	연도	총 인구수 ⁵⁾	가임인구수 ⁶⁾ (15-49세)	소아청소년 인구수 ⁷⁾ (0~19세)	노인인구수 ⁸⁾ (65세 이상)
전북 남원	남원시	2013년	86,460	17,186	17,248	19,611
		2014년	85,643	16,780	16,512	20,003
		2015년	84,856	16,306	15,831	20,468
		2016년	84,188	15,930	15,145	20,711
		2017년	83,281	15,370	14,333	21,167
	전체인구 대비 비율	2013년	-	19.9%	19.9%	22.7%
		2014년	-	19.6%	19.3%	23.4%
		2015년	-	19.2%	18.7%	24.1%
		2016년	-	18.9%	18.0%	24.6%
		2017년	-	18.5%	17.2%	25.4%
	순창군	2013년	30,272	5,147	4,923	9,024
		2014년	30,368	5,105	4,785	9,160
		2015년	30,248	5,030	4,697	9,184
		2016년	29,949	4,917	4,602	9,193
		2017년	29,698	4,728	4,446	9,286
	전체인구 대비 비율	2013년	-	17.0%	16.3%	29.8%
		2014년	-	16.8%	15.8%	30.2%
		2015년	-	16.6%	15.5%	30.4%
		2016년	-	16.4%	15.4%	30.7%
		2017년	-	15.9%	15.0%	31.3%

5)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2013~2017)

표 2-4 인구현황 II

단위 : 명, %

진료권	지역	연도	등록 장애인수 ⁹⁾	전체인구 대비 비율	다문화 가구수 ¹⁰⁾	다문화 가구 비율 ¹¹⁾
전북 남원	남원시	2015년	7,682	9.05%	685	0.48%
		2016년	7,755	9.21%	643	1.92%
	순창군	2015년	2,941	9.72%	308	0.78%
		2016년	2,966	9.90%	297	2.57%

2)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 남원시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비중은 6.83%로 전국 값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같은 진료권 내 순창군도 마찬가지로 경우 전국에 비해 1%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남원 진료권은 타지역에 비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2-5 전북남원 진료권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기초생활수급자수(A)	인구수(B)	비중(A/B)
남원시	5,687	83,281	6.83%
순창군	1,346	29,698	4.53%
전국	1,630,614	51,696,216	3.15%

* 출처 : 통계청, 전라북도 기본통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16)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16)

6) 15~49세 여성인구,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2013~2017)
7) 0~19세 인구,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2013~2017)
8) 65세 이상 인구, 통계청 행정구역(읍면동)별/5세별 주민등록인구 (2013~2017)
9) 해당 지역(시군구)의 등록장애인수, 통계청 (2015~2016)
10) 해당지역(시군구)의 다문화가구 및 가구원, 통계청(2015~2016)
11) 모니터링 연구 분석지표 (2015~2016)

2. 의료수요 및 의료서비스 현황

2.1 주요 다빈도 질환

- 자료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남원시 입원 환자의 주상병을 기준으로 주요 질환 60개를 선정하였음. 주요 질환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298 질병분류를 활용하였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됨
 - 298질병분류는 국가 차원 분류표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타국가간의 비교를 위해 고안됨
- 다빈도 질환은 입원(전체) 환자 대상, 노인, 소아, 장애인 각 계층별 환자를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질환별 입원 건수를 기재하였음

1) 입원(전체)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 입원(전체) 환자 대상으로 해당 질병의 상병이 의료이용명세서 주상병에 포함된 입원건수를 토대로 산출하였음
- 남원시 입원(전체) 환자대상의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 소견’이 1위로 확인됨. 해당 질병에는 순환계통 및 호흡계통의 증상 및 징후, 소화계통 및 복부의 증상 및 징후 등이 포함됨
- ‘폐렴’이 2위로 확인되며,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기타 배병증’ 각 3위~5위로 확인되었음.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은 과거에 어떤 질병이나 손상에 대하여 이미 치료를 받았으나, 추적치료나 예방의료, 회복기진료, 치료를 공고히 하거나 잔여병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사용됨

표 2-6 남원시 입원(전체)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60위 질환)

순위	질병명*	입원 건수
1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933
2	폐렴	811
3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761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761
5	기타 배병증	744
6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700
7	기타 사지뼈의 골절	673
8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549
9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544
10	연부조직 장애	514
11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70
12	뇌경색증	463
13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459
14	관절증	431
15	당뇨병	427
16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368
17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358
18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348
19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347
20	두개내 손상	292
21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287
22	담석 등 및 담낭염	262
23	기타 상피내, 양성신생물 및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259
24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254
25	기타 호흡기계 질환	243
26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239
27	대퇴골의 골절	239
28	기타 비뇨기계의 질환	231
29	신세뇨관-간질성 질환	224
30	결장의 악성신생물	216
31	신부전증	208
32	요로결석증	208
33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207
34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201

순위	질병명*	입원 건수
35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94
36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191
3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84
38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181
39	관절의 기타 장애	176
40	위의 악성신생물	174
41	뇌내출혈	173
42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173
43	편두통 및 기타 두통 증후군	167
44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163
4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62
46	기타 소화기계의 질환	151
47	인플루엔자	146
48	기타 간질환	138
49	기타 뇌혈관 질환	136
50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135
51	기타 신경계의 질환	135
5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33
53	충수의 질환	133
54	기분(정동성)장애	127
55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127
56	유방의 악성신생물	122
57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121
58	급성 췌장염 및 기타 췌장의 질환	121
59	비호지킨 림프종	118
60	수두	114
60	원인미상 열	114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표 2-7 전주시 입원(전체)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60위 질환)

순위	질병명*	입원 건수
1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6,419
2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5,756
3	폐렴	5,099
4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5,048
5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682
6	기타 사지뼈의 골절	3,915
7	기타 배병증	3,618
8	연부조직 장애	3,495
9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3,419
10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2,732
11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2,608
12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2,519
13	뇌경색증	2,464
14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2,179
15	인플루엔자	2,153
16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2,044
17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965
18	관절증	1,940
19	기타 상피내, 양성신생물 및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1,932
20	당뇨병	1,901
21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1,846
22	요로결석증	1,828
23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1,783
24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1,736
25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1,622
26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1,433
27	담석 등 및 담낭염	1,417
28	유방의 악성신생물	1,405
29	두개내 손상	1,403
30	충수의 질환	1,360
31	편두통 및 기타 두통 증후군	1,329
32	관절의 기타 장애	1,310
33	원인미상 열	1,268
34	신부전증	1,229

순위	질병명*	입원 건수
35	신세뇨관-간질성 질환	1,202
36	결장의 악성신생물	1,132
3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108
38	기타 호흡기계 질환	1,107
39	위의 악성신생물	1,096
40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1,063
41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010
42	기타 뇌혈관 질환	952
43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947
44	기타, 부위불명, 속발성, 상세불명 및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937
45	수두	932
46	뇌내출혈	921
47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912
48	기타 바이러스 질환	901
49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855
50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841
51	대퇴골의 골절	840
52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832
53	기타 간질환	796
54	기분(정동성)장애	764
55	기타 비뇨기계의 질환	758
56	기타 신경계의 질환	755
57	기타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735
58	본태성(원발성)고혈압	729
59	복부 및 골반 동통	705
60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681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2) 계층별 다빈도 질환

- 다빈도 질환은 노인, 소아, 장애인 각 계층별 환자를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질환별 입원 건수를 기재하였음

(1) 노인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 65세 이상 노인 환자 대상으로 해당 질병의 상병이 의료이용명세서 주상병에 포함된 입원건수를 토대로 산출하였음
- 남원시 노인 환자 대상의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이 1위로 확인됨
-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 소견’, ‘폐렴’이 각 2위, 3위로 확인되며,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이 4위로 확인됨. 해당 질병은 과거에 어떤 질병이나 손상에 대하여 이미 치료를 받았으나, 추적치료나 예방의료, 회복기진료, 치료를 공고히 하거나 잔여병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사용됨

표 2-8 남원시 노인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10위 질환)

순위	질병명*	입원 건수
1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592
2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539
3	폐렴	505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426
5	기타 배병증	406
6	뇌경색증	371
7	관절증	320
8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284
9	기타 사지뼈의 골절	265
10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255

(2) 소아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 18세 미만 소아 환자 대상으로 해당 질병의 상병이 의료이용명세서 주상병에 포함된 입원건수를 토대로 산출하였음
- 남원시 소아 환자 대상의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 영아’가 1위로 확인됨. 해당 질병명은 남원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사용됨. 또한, ‘폐렴’이 2위로 확인됨
-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이 각 3위~5위로 확인되었음

표 2-9 남원시 소아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10위 질환)

순위	질병명*	입원 건수
1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254
2	폐렴	188
3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69
4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66
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07
6	기타 바이러스 질환	101
7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91
8	기타 사지뼈의 골절	68
9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59
10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59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3) 장애인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 장애인 환자 대상으로 해당 질병의 상병이 의료이용명세서 주상병에 포함된 입원건수를 토대로 산출하였음
- 남원시 장애인 환자 대상의 다빈도 질환을 살펴보면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가 1위로 확인됨. ‘기타배병증’,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폐렴’이 각 2위~5위로 확인됨

표 2-10 남원시 장애인 환자 대상 다빈도 질환 (해당 질병으로 입원이 잦은 빈도 1위~10위 질환)

순위	질병명*	입원 건수
1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224
2	기타 배병증	173
3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65
4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61
5	폐렴	159
6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58
7	당뇨병	118
8	뇌경색증	102
9	기타 사지뼈의 골절	89
10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88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2.1 주요 사망률

- 자료는 2017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와 사망원인통계를 활용하였으며, 남원시 연령별·사망원인별 사망환자 수를 분석하였음
- 사망원인은 통계청의 사망제표분류 50항목별 사망자 수로 순위를 선정하였으며, 세부 질환의 상위 대분류 질환으로 구분하였음

1) 전체 연령표준화 사망률과 주요 사망원인

- 남원시의 65세 이상 사망자 수는 인근 비교 도시 전주시나 전국 대비 높은 걸로 파악됨. 반면, 65세 미만 사망자 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남원시의 주요 사망원인은 전주시와 전국과 동일하게 암이 1위로 확인되며, 심장질환, 호흡계통 질환, 질병이환 및 사망 외인, 노쇠 순으로 원인이 파악됨.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주시와 전국 대비 높은 수준임

표 2-11 남원시 연령별·사망원인별 사망 현황

구분		2017년			
		남원시	전주시		전국
			완산구	덕진구	
연령	10세 미만	0.1%	0.42%	0.43%	0.40%
	10-20세 미만	0.0%	0.23%	0.09%	0.20%
	20-30세 미만	0.1%	0.81%	0.85%	0.60%
	30-40세 미만	0.7%	1.31%	1.56%	1.20%
	40-50세 미만	1.9%	3.20%	3.26%	3.10%
	50-65세 미만	7.1%	10.13%	8.69%	11.00%
	65세 이상	90.0%	83.90%	85.12%	83.60%
사망 원인	1순위	암	암	암	암
	2순위	심장질환	호흡계통 질환	질병이환·사망외인	뇌혈관질환
	3순위	호흡계통 질환	질병이환·사망외인	호흡계통 질환	심장질환
	4순위	질병이환·사망외인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자살
	5순위	노쇠	심장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연령표준화 사망률		348.9	306.9	321.6	324.3

* 출처 : 2017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사망원인통계

2) 응급 및 심뇌혈관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 남원시의 최근 5개년도 응급 및 심뇌혈관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을 살펴보면, 교통사고,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질병의 사망률은 증가된 것으로 확인됨
-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중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감소한 반면 이외 질환은 모두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표 2-12 남원시 응급 및 심뇌혈관 질환 연령표준화 사망률 연도별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17-’13)
남원시	응급(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66.9	72.7	51.3	57.7	57.5	▼14.1%
	- 교통사고	15.1	12.5	19.3	19.7	20.7	△37.1%
	- 추락사고	4.9	7.2	6	3.3	2.6	▼46.9%
	- 불의의 익사	1.6	2.7	1.9	1.5	0.5	▼68.8%
	-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1.4	0.3	-	0.6	1.6	△14.3%
	- 불의의 중독 및 노출	-	0.7	-	-	-	-
	- 자살	28	36.9	14.4	26.5	25.7	▼8.2%
	- 가해(타살)	-	-	-	-	-	-
	심뇌혈관 질환	66.4	77.7	73.4	72.7	74.2	△11.7%
	- 고혈압성 질환	2.5	3.4	1.9	4.2	9.1	△264%
	- 심장질환	27.1	37	35.4	40.4	34.9	△28.8%
	- 허혈성 심장질환	11.8	15	13.5	16.3	12.7	△7.6%
	- 기타 심장질환	15.3	21.9	21.9	24.1	22.2	△45.1%
	- 뇌혈관 질환	35.5	36.9	33.5	26.8	28.5	▼19.7%
전국	응급(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50.9	47.1	44.6	42.8	40.2	▼21.0%
	- 교통사고	10.1	9.2	8.8	7.8	7.5	▼25.7%
	- 추락사고	3.6	3.3	3.3	3.5	3.4	▼5.6%
	- 불의의 익사	1.1	0.9	0.9	1	0.9	▼18.2%
	-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0.5	0.5	0.4	0.4	0.5	△0.0%
	- 불의의 중독 및 노출	0.4	0.3	0.3	0.5	0.4	△0.0%
	- 자살	25.1	23.9	22.7	21.9	20.7	▼17.5%
	- 가해(타살)	1	0.9	0.9	0.8	0.7	▼30%
	심뇌혈관 질환	75.9	72.7	70.7	68	64.9	▼14.5%
	- 고혈압성 질환	5.9	5.8	5.4	5.4	5.4	▼8.5%
	- 심장질환	34.1	33.8	34	33.8	32.9	▼3.5%
	- 허혈성 심장질환	18.2	18	17.7	16.8	15.5	▼14.8%
	- 기타 심장질환	15.9	15.8	16.3	17	17.5	△10.1%
	- 뇌혈관 질환	33.8	30.9	29.2	26.6	24.5	▼27.5%

* 출처 : 2017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3) 모성 및 영아사망률

- 전북의 모성사망비는 15.8명으로 전국 평균 7.8명 대비 매우 높게 나타남
- 남원시의 출생전후기 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은 전주시와 전국 평균 대비 낮게 나타남

표 2-13 남원시 모성 및 영아사망률

구분	남원시	전주시		전국
		완산구	덕진구	
모성사망비	15.8 (전북)	15.8 (전북)	15.8 (전북)	7.8
출생전후기 사망률	1.9	2.3	2.8	2.7
영아사망률	0.0	1.5	3.2	2.8

* 출처 : 2017년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자료 요청

3. 의료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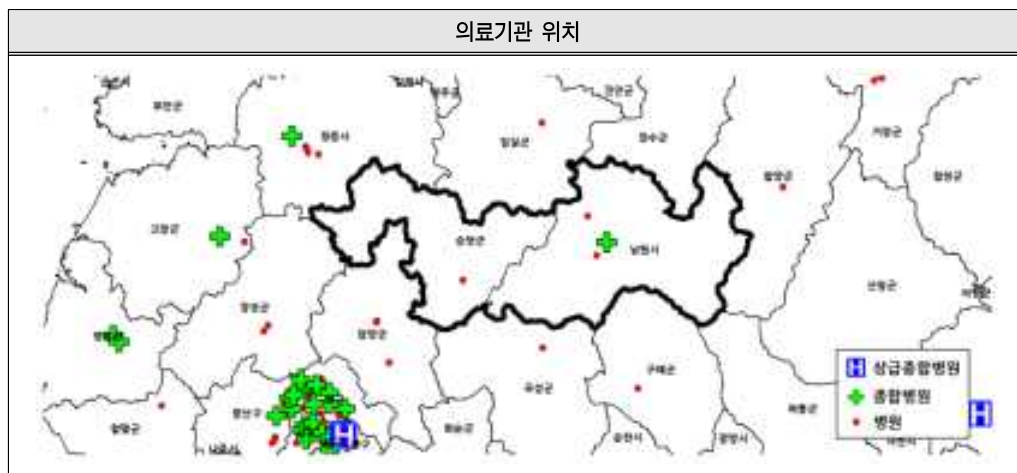
3.1 의료자원 현황

1) 의료기관 분포

○ 정의

- 남원의료원이 속해있는 중진료권 내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남원의료원이 유일함

표 2-14 의료기관 현황



* 병원 급 이상기관을 지도에 표시함.

진료권	지역	종별	병원명	병상수					
				허가	정신 과폐 쇄	분만 실	신생 아	응급 실	인공 신장 실
전북 남원	남원시	종합 병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274	0	3	3	20	33
	남원시	병원	남원성일병원	299	261	0	0	1	0
	남원시		남원병원	100	0	0	0	15	0
	순창군		희망병원	43	0	0	0	0	0
	남원시	요양 병원	의료법인원산의료재단 다사랑요양병원	284	0	0	0	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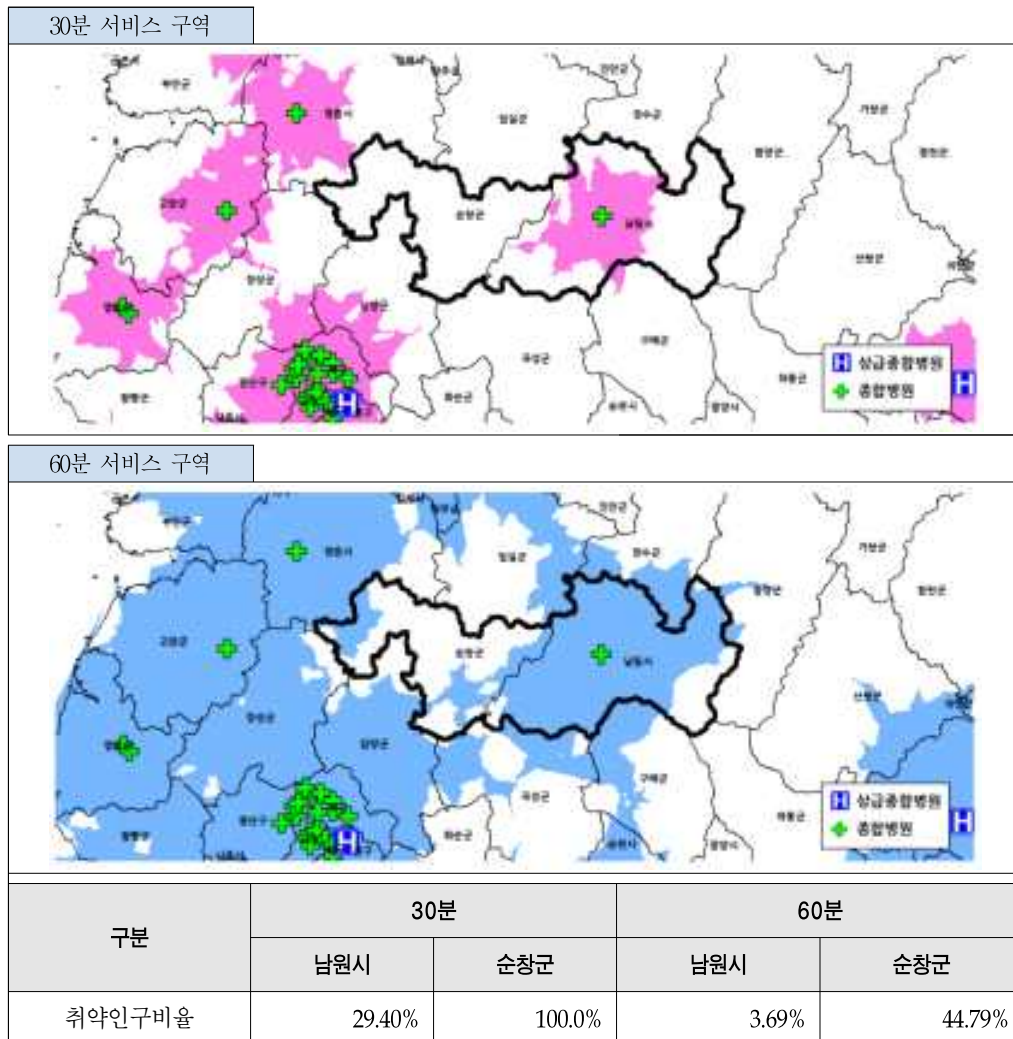
진료권	지역	종별	병원명	병상수					
				허가	정신 과폐 쇄	분만 실	신생 아	응급 실	인공 신장 실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220	0	0	0	0	0
	남원시		남원효사랑요양병원	199	0	0	0	0	0
	남원시		한빛요양병원	150	0	0	0	0	0
	순창군		순창요양병원	588	0	0	0	0	0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2017.6)

2) 서비스 가능 구역 및 취약인구수

-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30분, 60분 서비스 구역을 분석함
- 30분 서비스구역 분석 시 순창군 전체가 접근성 취약지로 도출됨. 남원시의 경우 남원의료원이 있으나 남원시의 면적이 넓어 접근에 한계가 있음
- 60분 서비스 구역을 분석할 경우 남원시 대부분 지역이 서비스 구역 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순창군은 취약인구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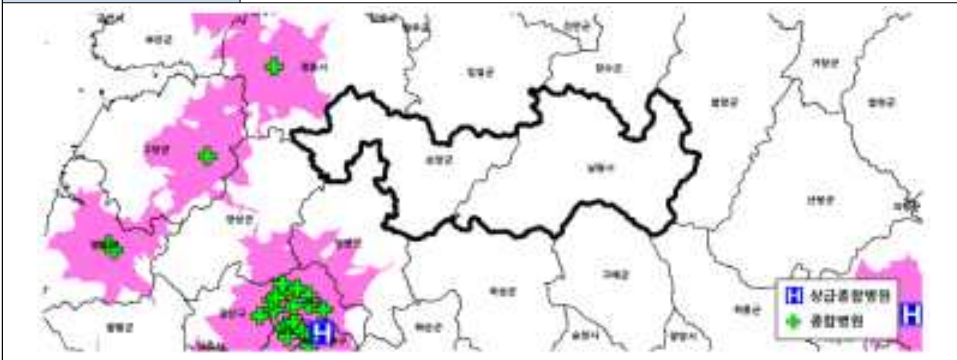
표 2-15 종합병원 서비스 가능 구역 및 취약인구수



※ 참고(지역 내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없을 경우)

- 남원의료원 전북남원 진료권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해당 기관이 부재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함
- 중진료권 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30분 서비스구역 분석 시 취약인구비율이 100%로 산출됨. 60분 분석 시에도 남원시는 취약인구비율이 100%이며, 순창군의 취약인구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남
- 접근성 분석 결과를 통해 해당 진료권 내에서 남원의료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30분 서비스 구역



60분 서비스 구역



구분	30분		60분	
	남원시	순창군	남원시	순창군
취약인구비율	100.0%	100.0%	100.0%	60.44%

3) 의료서비스 분야별 접근성 지표

- 정의 : 해당 지역의 인구 수 대비 의료기관까지 기준시간 내 접근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
- 남원시는 특수검진 분야를 제외하고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 순창군 또한 전반적으로 의료기관까지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재활, 분야에 대해서는 취약인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접근성 취약인구비율 - I

구분	종합 병원 (90분)	지역응급 의료센터 (60분)	응급실 (30분)	ICU (60분)	내과 (60분)	외과 (60분)	소아과 (60분)	분만실 (60분)
남원시	0.00	0.00	4.60	3.73	0.85	0.85	2.19	2.38
순창군	0.84	7.42	12.84	45.48	2.20	2.20	3.40	25.88

표 2-17 접근성 취약인구비율 - II

구분	감염 (결핵) (60분)	재활 (60분)	정신 (60분)	중독 (60분)	화상 (60분)	호스 피스 (90분)	투석 (60분)	특수 검진 (90분)
남원시	0.85	23.33	2.81	2.81	0.85	0.00	3.53	94.30
순창군	2.54	56.82	25.48	25.48	2.20	8.85	17.61	11.44

3.2 의료서비스 분야별 의료이용 현황

1) TRI(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

- 남원시의 의료서비스 분야별 TRI 지표는 대부분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어 기준시간 내 의료이용률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순창군의 경우 전반적으로 TRI가 낮아 근거리 의료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표 2-18 분야별 TRI - I

구분	종합 병원 TRI (90분)	지역응급 의료센터 TRI (60분)	응급실 TRI (30분)	ICU TRI (60분)	내과 TRI (60분)	외과 TRI (60분)	소아과 TRI (60분)	분만실 TRI (60분)
남원시	49.24	56.56	37.91	45.49	53.74	52.14	49.10	34.05
순창군	46.00	5.99	0.42	8.84	37.06	25.41	16.22	15.57

표 2-19 분야별 TRI - II

구분	감염 TRI (60분)	재활 TRI (60분)	정신 TRI (60분)	중독 TRI (60분)	화상 TRI (60분)	투석 TRI (60분)
남원시	45.74	18.62	36.55	24.11	55.67	24.75
순창군	21.15	9.38	16.41	11.63	33.33	31.15

표 2-20 분야별 TRI - III

구분	암 TRI	심장질환 TRI	뇌혈관질환 TRI
남원시	61.62	24.22	28.49
순창군	68.97	16.48	17.71

* 암, 심뇌혈관 질환 등은 대표적인 전문질환군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담당해야하는 질환임. 따라서, 기준시간을 180분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거리내 의료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0분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제시함

2) RI(의료이용률)

- 남원시의 경우 관내의료이용률이 대부분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관내 의료기관의 위상이 좋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순창군은 대부분의 분야의 관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으로 나타남. 이는 관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같은 의료시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표 2-21 분야별 RI - I

구분	병원 RI (60분)	응급실 RI (30분)	ICU TRI (60분)	내과 RI (60분)	외과 RI (60분)	소아과 RI (60분)	분만실 RI (60분)
남원시	53.42	64.15	36.87	46.09	42.73	52.13	35.40
순창군	31.95	0.57	0.00	16.86	4.28	5.64	0.00

표 2-22 분야별 RI - II

구분	감염 RI (60분)	재활 RI (60분)	정신 RI (60분)	중독 RI (60분)	화상 RI (60분)	투석 RI (60분)
남원시	51.51	29.41	41.54	24.72	49.29	32.66
순창군	12.85	0.00	0.56	0.70	34.15	0.00

표 2-23 주진료권 의료이용 유출입

내과					외과				
									
구분	건수	비율	비고		구분	건수	비율	비고	
남원시	3,010명	50.61%			남원시	558명	47.77%		
전주시 덕진구	852명	14.33%			전주시 덕진구	124명	10.62%		
전주시 완산구	491명	8.26%			전주시 완산구	110명	9.42%		
곡성군	278명	4.67%			곡성군	72명	6.16%		
광주 동구	104명	1.75%			강남구	26명	2.23%		

산부인과					소아과				
									
구분	건수	비율	비고		구분	건수	비율	비고	
남원시	262명	33.29%			남원시	775명	49.68%		
전주시 덕진구	142명	18.04%			전주시 완산구	247명	15.83%		
전주시 완산구	96명	12.2%			전주시 덕진구	224명	14.36%		
광주 북구	88명	11.18%			광주 북구	42명	2.69%		
광주 서구	22명	2.8%			광산구	42명	2.69%		

정형외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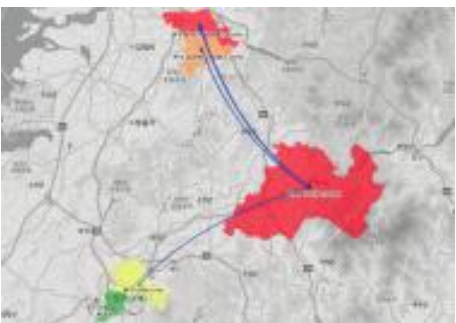
구분	건수	비율	비고
남원시	1,934명	49.48%	
전주시 완산구	510명	13.05%	
전주시 덕진구	393명	10.05%	
여주시	205명	5.24%	
광산구	54명	1.38%	

응급실



구분	건수	비율	비고
남원시	3,297명	56.46%	
전주시 덕진구	930명	15.92%	
전주시 완산구	428명	7.33%	
광주 동구	214명	3.66%	
송파구	62명	1.06%	

분만실



구분	건수	비율	비고
남원시	161명	34.7%	
전주시 덕진구	89명	19.18%	
전주시 완산구	66명	14.22%	
광주 북구	45명	9.7%	
광주 서구	8명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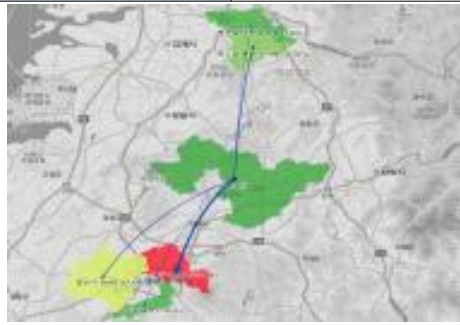
종합

구분	건수	비율	비고
내과	3,010명	50.61%	
외과	558명	47.77%	
산부인과	262명	33.29%	
소아과	775명	49.68%	
정형외과	1,934명	49.48%	
응급	3,297명	56.46%	
분만	161명	34.7%	

- 남원시의 경우 모든 의료서비스 분야별 관내의료 이용 비율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인 관내의료이용 비율이 양호한 것으로 보아 남원시 관내의료기관에 대한 주민 만족도 및 의료서비스 품질이 좋을 것이라 예측됨

(순창군) 표 2-24 의료이용 유출입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응급, 분만, 종합

내과				외과			
							
구분	건수	비율	비고	구분	건수	비율	비고
순창군	513명	20.18%		전주시 완산구	57명	13.41%	
정읍시	308명	12.12%		정읍시	54명	12.71%	
전주시 완산구	243명	9.56%		광주 북구	52명	12.24%	
광주 북구	217명	8.54%		광주 동구	34명	8%	
광주 동구	207명	8.14%		남원시	34명	8%	

산부인과				소아과			
							
구분	건수	비율	비고	구분	건수	비율	비고
광주 북구	152명	43.8%		광주 북구	185명	27.78%	
광산구	34명	9.8명		광산구	102명	15.32%	
전주시 완산구	32명	9.22명		전주시 완산구	75명	11.26%	
광주 동구	23명	6.63명		전주시 덕진구	51명	7.66%	
남원시	23명	6.63%		광주 남구	50명	7.51%	

정형외과



구분	건수	비율	비고
순창군	534명	25.54%	
광주 북구	241명	11.53%	
전주시 완산구	196명	9.37%	
광산구	176명	8.42%	
정읍시	132명	6.31%	

응급실



구분	건수	비율	비고
광주 동구	520명	27.34%	
전주시 완산구	226명	11.88%	
남원시	192명	10.09%	
전주시 덕진구	179명	9.41%	
광주 북구	148명	7.78%	

분만실



구분	건수	비율	비고
광주 북구	70명	41.92%	
전주시 덕진구	19명	11.38%	
전주시 완산구	18명	10.78%	
광산구	12명	7.19%	
정읍시	6명	3.59%	

종합

구분	건수	비율	비고
내과	513명	20.18%	
외과	32명	7.53%	유출 많음
산부인과	2명	0.58%	유출 많음
소아과	45명	6.76%	유출 많음
정형외과	534명	25.54%	
응급	3명	0.16%	유출 많음
분만	-	-	유출 많음

- 순창군의 경우 모든 분야별 의료서비스에 대해 관내의료이용률이 3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관내의료이용 비율이 나타나 외부 유출에 의한 의료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출은 대부분 광주광역시와 전주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제3장 병원 운영 현황

1. 진료인프라

1.1 개설 진료과목 및 전문인력 현황

1) 개설 진료과목 및 인력현황

- 2018년 10월 기준 남원의료원에 개설된 진료과목은 총 16개로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임

표 3-1 남원의료원 진료과별 전문의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전체	30	29	32	36	36	36
내과	4	5	5	6	6	6
신경과	1	1	1	1	1	2
정신과	1	1	1	1	1	1
외과	2	3	2	2	2	2
정형외과	3	2	2	2	2	2
신경외과	1	1	2	2	2	2
흉부외과	2	2	2	2	1	1
성형외과	0	0	0	0	0	0
마취통증의학과	3	3	3	2	2	2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산부인과	1	1	2	2	2	2
소아청소년과	1	1	1	1	1	1
안과	1	1	1	1	0	0
이비인후과	1	1	1	1	1	0
피부과	0	0	0	0	0	0
비뇨기과	1	1	0	1	1	1
영상의학과	1	1	2	3	3	3
방사선종양학과	0	0	0	0	0	0
병리과	1	1	1	1	1	1
진단검사의학과	0	0	0	0	0	0
결핵과	0	0	0	0	0	0
재활의학과	1	1	1	1	1	1
핵의학과	0	0	0	0	0	0
가정의학과	3	3	5	5	4	3
응급의학과	2	0	0	2	5	6
직업환경의학과	0	0	0	0	0	0
예방의학과	0	0	0	0	0	0

*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현황(2013~2017), 2018년 병원 제출 자료

표 3-2 직종별 인력현황(2017년 12월 기준)

단위 : 명, %

직종		분류		전체평균		남원의료원		
				직종별 인력(명)	직종별 구성비(%)	직종별 인력(명)	직종별 구성비(%)	
의 사 직		전문의	봉직의	25	7.99	30	9.46	
			공보의	3	1.06	6	1.89	
		일반의	봉직의	1	0.33	1	0.32	
			공보의	0	0.01	0	0.00	
		레지던트		11	3.46	4	1.26	
		인턴		4	1.24	0	0.00	
간 호 직		조산사		0	0.05	0	0.00	
		간호사		132	42.45	116	36.59	
		간호조무사		24	7.75	29	9.15	
보건직	약 무 직	약사		3	0.9	2	0.63	
	의료 기사직	방사선사		11	3.4	14	4.42	
		임상병리사		12	3.69	15	4.73	
		물리치료사		6	1.77	5	1.58	
		작업치료사		2	0.73	2	0.63	
		치과기공사		0	0	0	0.00	
		치과위생사		3	0.9	2	0.63	
		의무기록사		3	0.83	3	0.95	
		기타 의료기사		0	0.01	0	0.00	
	영 양 직	영양사		2	0.76	4	1.26	
		조리사		6	2	7	2.21	
조리원·배식원		8	2.59	8	2.52			
행정직		사회복지사		2	0.71	2	0.63	
		사무 기술직	사무직		25	8.17	37	11.67
			기술직		9	2.83	14	4.42
			전산직		3	0.84	2	0.63
			의공직		1	0.41	2	0.63
기능고용 및 기타				34	11.05	12	3.79	
총 계				312	100	317	100	

* 출처 :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2017.12)

2) 개설 병상

표 3-3 남원의료원 개설 병상

구분	총 계	일반병실							특수진료실 등								기타	
		계	상 급	일반	정신과 폐쇄	성인 노년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일반 중환자실	계	부 마 실	신생아 실	수술 실	회복 실	이대 실	인공 지 창 실	물리치 료 실	임상 연구 실	혈액 이행
남원	349	262	34	223	-	-	-	5	87	3	3	3	4	11	33	30	유	유

3) 의사

가. 전문의 구성

- 2018년 10월 기준 남원의료원에 근무하는 전문의는 총 36명임(원장 제외). 이 중 31명(86.1%)이 봉직의 이며, 5명(13.9%)이 공중보건의사임

표 3-4 의사 인력 현황 (2018년 10월)

구분	인원	비율
총 전문의 (원장 제외)	36	100%
봉직의	31	86.1%
공중보건의	5	13.9%

* 의사 인력 현황 산출식¹²⁾ : 전문의수 = $\sum (z)$ (단, 원장 제외)

- 최근 5년간 봉직의와 공중보건의사 구성변화를 조사함. 2014년 대비 2018년에 봉직의는 약 7명 증가하였고, 공중보건의사는 계속 5-6명을 유지하고 있음

표 3-5 연도별 전문의 중 봉직의, 공중보건의사 구성 변화 (단위 : 명(%))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봉직의	24	26	29	30	31
공중보건의사	5	6	5	6	5
계	29	32	34	36	36

12) 예) 2014년에 해당의료원 내과에서 전문의 3명 중 2명이 연간 근무하고 1명은 6개월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산출식에 따라 계산하면 2.5명이 됨

다. 봉직의 재직기간과 이직

- 최근 3년간 남원의료원의 전문의 평균 재직기간은 약 2년임. 공중보건의사의 교체가 잦았음

표 3-6 분기별 진료과별 의사 구성 변화와 봉직의 재직 기간

구분	전문의 구분	재직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내과	제1내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제2내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제3내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제4내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제5내과	파견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제6내과	봉직의	1년10개월					A	A	A	A	A	A	A	재직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흉부외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외과	1외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2외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정형외과	1정형외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2정형외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신경외과	봉직의	1년9개월/ 9개월			A	A	A	A	A	A	A	B	B	B	재직
	공중보건의	3개월/2년/ 8개월	A	B	B	B	B	B	B	B	B	C	C	C	재직
신경과	공중보건의	1년3개월/ 8개월	A	A	A	A	A					B	B	B	재직
	봉직의	1년6개월						A	A	A	A	A	A		
마취통증의학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산부인과	1산부인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2산부인과	봉직의	2년10개월		A	A	A	A	A	A	A	A	A	A	재직
소아청소년과	봉직의	1년10개월						B	B	B	B	B	B	B	재직
	공중보건의	3개월	A												
이비인후과		공중보건의	2년9개월		A	A	A	A	A	A	A	A	A	A	재직
안과	공중보건의	1년		A	A	A	A	A							
	봉직의	4개월/ 1년3개월	A					B	B	B	B	B	B	B	재직
재활의학과	공중보건의	1년	A	A	A	A	A	B	B	B	B				
	봉직의	9개월										A	A	A	재직
가정의학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봉직의	2년10개월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병리학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비뇨기과	파견의	1년					A	A	A	A	A				
	봉직의	11개월/1년/ 8개월	A	A	A	A						B	B	B	재직
응급의학과	1응급의학과	봉직의	2년10개월	A	A	A	A	A	A	A	A				
	2응급의학과	봉직의	2년2개월/ 1년5개월	A	A	A	A	A		A	A	B	B	B	재직

구분	전문의 구분	재직기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1	2	3	4	1	2	3	4	1	2	3	4	
	3응급의학과	봉직의	2년10개월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4응급의학과	봉직의	10개월									A	A	A	재직
	5응급의학과	봉직의	9개월									A	A	A	재직
	6응급의학과	공중보건의	4개월/ 1년8개월					A	A	B	B	B	B	B	재직
치과	1치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2치과	봉직의	9개월	A	A	A	A								
영상의 학과	1영상의학과	봉직의	3년	A	A	A	A	A	A	A	A	A	A	A	재직
	2영상의학과	공중보건의	2년8개월		A	A	A	A	A	A	A	A	A	A	재직
	3영상의학과	공중보건의	1년8개월					A	A	A	A	A	A	A	재직

- 남원의료원의 의사(봉직의) 이직률이 2015년 12%, 2016년 11%, 2017년 10%로 매년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표 3-7 봉직의 연간 이직률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12%	11%	10%

* 설명 : 연간 의사 이직률 = $\frac{(\text{봉직의}) \text{ 연 총 이직자 수} \times 100}{(\text{봉직의}) \text{ 연 평균 총 근로자 수}}$

라. 의사 수련과 대학병원 협력

- 인턴, 레지던트 수련병원으로서 전북대학교병원과 2017년부터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내과전문의 1명, 비뇨기과 전문의 1명, 인턴 1명의 인력을 지원받았음

표 3-8 의사 수련 및 상급종합병원과 협력 현황

병원명	협약 체결 기간	지원 현황	지원 인력
전북대학교병원	2014.03~현재	의료인력 파견	내과 전문의 1명
전북대학교병원	2017.01~	의료인력 파견	비뇨기과 전문의 1명
전북대학교병원	-	진료 협력	인턴 1명

4) 간호사

가. 간호직 구성

- 2017년 12월 기준 남원의료원에 근무하는 간호직(현원, 계약직 포함)은 간호사 114명, 조무사 32명, 간호보조인력 2명임
- 정규직 간호사가 139명 정원에 비해 현원이 113명으로 26명이 부족한 상태임

표 3-9 연도별 간호 인력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간호관리료 등급			6등급	6등급	6등급
간호직 현황	간호사(정규직)	정원	119	119	139
		현원	105	117	113
		신입(신규/경력)	17(10/7)	16(4/12)	21(10/11)
	간호사(계약직)	현원	-	-	1
		신입(신규/경력)	-	-	1(0/1)
	전문간호사	현원	-	-	-
	전담간호사	현원	-	-	-
	기타	현원	-	-	-
	퇴직자수		20	19	23
보조인력 현황	간호부	총원	105	117	114
	간호조무사	정원	30	35	35
		현원	27	29	32
	간호보조인력	현원	-	-	2
	기타	현원	-	-	-
	퇴직자수		-	-	1
	보조인력	총원	27	29	34

- 간호 인력 급수별 현황은 2017년 기준 대부분의 간호사가 7-8급에 배치되어 있고, 간호직 승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표 3-10 간호 인력 급수 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간호직 8급	53	40	37
간호직 7급	19	38	34
간호직 6급	23	24	26
간호직 5급	10	12	13
간호직 4급	4	5	5
총원	109	119	115

나. 간호사 경력과 이직률

- 전체 간호사 중에 20년 이상된 간호사가 24.8%로 가장 많고, 근무기간 3년 이상~5년 미만 간호사가 8%로 가장 적은 비율로 근무하고 있음

표 3-11 간호사의 경력 현황 (단위 : 명, %) (2018년 현재 기준)

근무연수	인원수	백분율 (%)
1년 미만	19	16.8
1년 이상~3년 미만	12	10.6
3년 이상~5년 미만	9	8.0
5년 이상~10년 미만	18	15.9
10년 이상~15년 미만	12	10.6
15년 이상~20년 미만	15	13.3
20년 이상	28	24.8
평균 근무연수	12년 5개월	

○ 간호사 이직률이 '15년 1.4%, '16년 0.5%, '17년 1.1%로 낮음

표 3-12 간호사 연간 이직률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남원의료원	1.4%	0.5%	1.1%

* 간호사 연간 이직률 산출식 :
$$\frac{(\text{간호사}) \text{ 연 총 이직자 수} \times 100}{(\text{간호사}) \text{ 연 평균 총 근로자 수}}$$

2. 진료서비스

2.1 진료실적 개요

- 자료는 2015년~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였음
- 외래 진료의 경우 2016.07.01.~2017.06.31. 기간 동안 의료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1) 연도별 변화

- 입원 환자와 외래환자는 '15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3-13 연도별 남원의료원 입원·외래 실인원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입원	5,668	7,911	8,913
외래	33,401	33,956	33,668 ¹³⁾
합계	39,069	41,867	42,581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그림 3-1 연도별 남원의료원 입원·외래 실인원

13) 2017년 외래 실인원은 2016.07.01.~2017.06.30. 기간 동안 의료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산출

2) 입원 진료

- 입원 환자는 '15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정신과, 신경과, 응급실의 내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입원 실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표 3-14 연도별 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입원 진료실적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내과	2,971	3,102	2,820
외과	843	781	608
산부인과	213	361	307
소아청소년과	545	933	775
정형외과	1,937	1,938	1,930
정신과	62	67	79
신경과	187	474	619
신경외과	228	338	196
비뇨기과	110	80	75
이비인후과	85	54	42
재활의학과	116	78	71
응급실	2,589	4,650	6,556
총계	9,886	12,856	14,078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3) 외래 진료

- 외래 환자는 '15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정신과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 반면, 신경외과는 '6년 대비 '17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5 연도별 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외래 진료실적

(단위 :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¹⁴⁾
내과	41,102	43,963	45,467
외과	5,615	6,292	5,658
산부인과	3,835	4,893	5,056
소아청소년과	8,316	14,543	15,974
정형외과	14,693	16,062	17,074
정신과	4,063	4,586	5,229
신경과	12,002	11,558	13,822
신경외과	5,669	6,817	5,163
비뇨기과	8,285	5,426	5,982
이비인후과	3,745	4,153	3,752
재활의학과	3,733	3,576	4,015
총계	111,058	121,869	127,192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14) 2017년 외래 진료실적은 2016.07.01.~2017.06.30. 기간 동안 의료원을 이용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산출

2.2 분야별 치료점유율

- 해당 의료원이 속한 시군구 내 진료과목별 의료서비스 제공 비율을 의미함
- 시군구 다빈도 질환 60순위별로 시군구 주민의 입원건수, 관내의료이용률을 제시하였음. 또한, 입원 환자의 거주지가 시군구 내·외 여부인지를 기준으로 해당 의료원의 입원건수와 치료점유율을 도출하였음. 해당 의료원의 동일 진료권 내 비교병원 평균, 전국 동일종별의 평균값과의 비교 결과도 제시하였음

- 산출식 :
$$\frac{\text{해당 의료원 입원건수 중 시군구 주민의 입원건수}}{\text{해당 의료원 소재 시군구 주민의 전체 입원건수}} \times 100$$

* 남원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제공률 산출식

$$= \frac{\text{남원의료원 입원건수 중 남원시 주민의 입원건수}}{\text{남원시 주민의 전체 입원건수}} \times 100$$

- 비교병원 : 해당 의료원이 속한 진료권의 동일 종별 민간·공공 병원

1) 진료과목별 치료점유율

- 남원의료원은 진료권 내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전국 동일종별 비교만 수행하였음
신경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만 전국종별대비 저조한 수준이며, 대부분 진료과목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입원(전체) 남원시 주민의 관내 의료이용률은 45.3%으로 높은 수준임. 그에 비해, 치료점유율은 소아청소년과와 신경과, 응급실을 제외하고는 관내의료이용률 이하 수준이므로 남원시 주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표 3-16 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구분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이용률 (RI) ¹⁵⁾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산출식	A	-	B	C	C/A						
입원(전체)	23,266	45.3%	11,506	8,240	35.4%	1	35.4%	=	298	12.5%	△
- 내과	7,061	39.5%	2,817	2,117	30.0%	1	30.0%	=	297	14.7%	△
- 외과	1,435	29.7%	607	426	29.7%	1	29.7%	=	298	11.4%	△
- 산부인과	825	28.2%	307	233	28.2%	1	28.2%	=	240	6.4%	△
- 소아청소년과	1,329	49.6%	773	659	49.6%	1	49.6%	=	249	14.3%	△
- 정형외과	3,961	48.7%	1,929	1,381	34.9%	1	34.9%	=	294	12.4%	△
- 정신과	686	45.5%	79	50	7.3%	1	7.3%	=	138	6.4%	△
- 신경과	990	48.8%	618	483	48.8%	1	48.8%	=	252	18.9%	△
- 신경외과	1,250	11.6%	196	145	11.6%	1	11.6%	=	272	12.3%	▼
- 비뇨기과	366	15.6%	75	57	15.6%	1	15.6%	=	226	17.1%	▼
- 이비인후과	294	10.5%	42	31	10.5%	1	10.5%	=	179	17.2%	▼
- 재활의학과	521	10.9%	71	57	10.9%	1	10.9%	=	161	8.9%	△
- 응급실	6,979	64.2%	6,556	4,479	64.2%	1	64.2%	=	288	26.2%	△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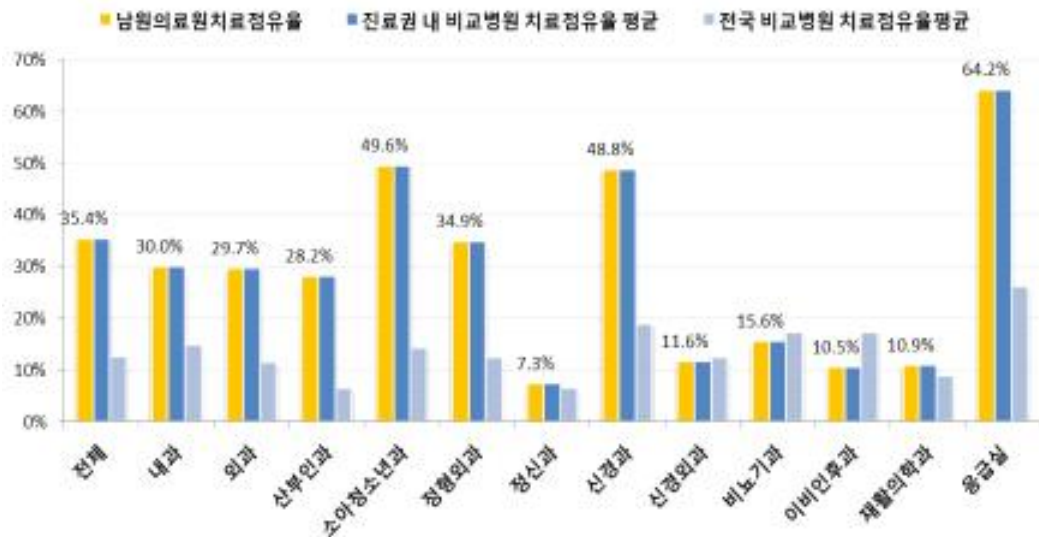


그림 3-2 진료과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 15) 관내 의료이용률(RI): 해당 시군구 소재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건수
 - 진료권 : 73개 진료권 정의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별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구축 방안 연구)
 - 비교병원 : 진료권 내 혹은 전국 내 동일 종별(종합병원 혹은 병원) 의료기관

2) 입원(전체) 다빈도 질환별 치료점유율

- 자료는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남원시 입원 환자의 주상병을 기준으로 주요 질환 60개를 선정하였음. 주요 질환은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298 질병분류를 활용하였음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국내 보건·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 활용됨
 - 298질병분류는 국가 차원 분류표의 기본이 되고 있으며, 타국가간의 비교를 위해 고안됨
- 다빈도 질환은 입원(전체) 환자 대상, 노인, 소아, 장애인 각 계층별 환자를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질환별 입원 건수를 기재하였음
- 전국 동일종별 의료기관의 치료점유율 평균과 비교해보면 다빈도 질환 60개 중 33개 질환(55%)에 대해서 남원의료원이 높은 점유율을 보임. 평균 대비 저조한 질환의 치료점유율을 입원(전체) 남원시 주민의 관내 의료이용률 45.3%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표 3-17 입원(전체) 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순위	질병명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¹⁶⁾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산출식		A		B	C	C/A						
1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933	57.4%	750	533	57.1%	1	57.1%	=	298	33.2%	△
2	폐렴	811	61.2%	594	438	54.0%	1	54.0%	=	297	32.3%	△
3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761	74.0%	700	457	60.1%	1	60.1%	=	294	34.1%	△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761	77.1%	752	0	0.0%	1	77.1%	=	192	32.9%	▼
5	기타 배병증	744	45.8%	165	119	16.0%	1	16.0%	=	298	21.5%	▼
6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700	77.3%	704	541	77.3%	1	77.3%	=	297	37.5%	△
7	기타 사지뼈의 골절	673	69.1%	601	360	53.5%	1	53.5%	=	293	30.2%	△
8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549	57.0%	419	255	46.4%	1	46.4%	=	297	29.3%	△
9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544	69.3%	267	173	31.8%	1	31.8%	=	296	24.3%	△
10	연부조직 장애	514	19.1%	88	71	13.8%	1	13.8%	=	297	19.9%	▼
11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470	23.0%	50	41	8.7%	1	8.7%	=	293	14.8%	▼

순위	질병명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¹⁶⁾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12	뇌경색증	463	42.8%	239	183	39.5%	1	39.5%	=	294	29.2%	△
13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459	84.3%	299	224	48.8%	1	48.8%	=	292	40.3%	△
14	관절증	431	10.2%	46	35	8.1%	1	8.1%	=	293	20.7%	▼
15	당뇨병	427	44.0%	233	173	40.5%	1	40.5%	=	297	35.6%	△
16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368	3.3%	18	12	3.3%	1	3.3%	=	288	22.2%	▼
17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358	89.9%	47	44	12.3%	1	12.3%	=	288	34.4%	▼
18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348	78.2%	160	138	39.7%	1	39.7%	=	293	30.9%	△
19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347	59.4%	4	4	1.2%	1	1.2%	=	138	20.0%	▼
20	두개내 손상	292	60.6%	213	147	50.3%	1	50.3%	=	293	36.6%	△
21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287	14.6%	48	40	13.9%	1	13.9%	=	288	32.9%	▼
22	담석 등 및 담낭염	262	34.0%	101	76	29.0%	1	29.0%	=	296	33.9%	▼
23	기타 상피내, 양성신생물 및 행 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259	5.4%	21	12	4.6%	1	4.6%	=	297	23.8%	▼
24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254	28.3%	94	0	0.0%	1	28.3%	=	80	39.7%	▼
25	기타 호흡기계 질환	243	40.7%	124	98	40.3%	1	40.3%	=	297	32.1%	△
26	직장S상결장 접합부, 직장, 항 문과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239	0.4%	4	1	0.4%	1	0.4%	=	282	22.6%	▼
27	대퇴골의 골절	239	54.4%	189	122	51.0%	1	51.0%	=	294	37.2%	△
28	기타 비뇨기계의 질환	231	60.2%	173	137	59.3%	1	59.3%	=	295	35.5%	△
29	신세뇨관-간질성 질환	224	61.6%	120	87	38.8%	1	38.8%	=	296	37.6%	△
30	결장의 악성신생물	216	3.7%	10	8	3.7%	1	3.7%	=	289	22.6%	▼
31	신부전증	208	19.2%	45	39	18.8%	1	18.8%	=	291	34.4%	▼
32	요로결석증	208	49.0%	138	89	42.8%	1	42.8%	=	286	38.3%	△
33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207	62.8%	158	120	58.0%	1	58.0%	=	295	40.9%	△
34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201	40.3%	111	78	38.8%	1	38.8%	=	296	28.2%	△
35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94	61.3%	147	113	58.2%	1	58.2%	=	296	31.6%	△
36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191	2.6%	5	5	2.6%	1	2.6%	=	248	13.8%	▼
37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84	69.0%	161	127	69.0%	1	69.0%	=	294	31.8%	△
38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181	30.4%	78	55	30.4%	1	30.4%	=	289	30.5%	▼
39	관절의 기타 장애	176	19.3%	37	26	14.8%	1	14.8%	=	294	18.4%	▼
40	위의 악성신생물	174	6.3%	7	5	2.9%	1	2.9%	=	291	23.3%	▼
41	뇌내출혈	173	31.2%	74	54	31.2%	1	31.2%	=	289	25.4%	△
42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173	23.1%	57	40	23.1%	1	23.1%	=	134	31.1%	▼
43	편두통 및 기타 두통 증후군	167	69.5%	54	34	20.4%	1	20.4%	=	290	37.7%	▼
44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163	4.9%	12	8	4.9%	1	4.9%	=	285	20.1%	▼
4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62	72.8%	117	105	64.8%	1	64.8%	=	296	31.0%	△
46	기타 소화기계의 질환	151	48.3%	112	72	47.7%	1	47.7%	=	295	30.6%	△
47	인플루엔자	146	71.9%	113	89	61.0%	1	61.0%	=	293	33.8%	△
48	기타 간질환	138	42.0%	66	43	31.2%	1	31.2%	=	297	30.9%	△
49	기타 뇌혈관 질환	136	11.8%	18	15	11.0%	1	11.0%	=	292	28.3%	▼
50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135	14.1%	14	11	8.1%	1	8.1%	=	230	9.5%	▼

순위	질병명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¹⁶⁾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51	기타 신경계의 질환	135	13.3%	22	15	11.1%	1	11.1%	=	295	24.8%	▼
5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133	27.1%	48	36	27.1%	1	27.1%	=	297	26.6%	△
53	충수의 질환	133	72.9%	129	85	63.9%	1	63.9%	=	296	45.8%	△
54	기분(정동성)장애	127	44.1%	46	28	22.0%	1	22.0%	=	236	19.4%	△
55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127	66.9%	82	67	52.8%	1	52.8%	=	297	35.7%	△
56	유방의 악성신생물	122	0.0%	2	0	0.0%	1	0.0%	=	263	21.4%	▼
57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121	24.8%	21	15	12.4%	1	12.4%	=	294	27.6%	▼
58	급성 췌장염 및 기타 췌장의 질환	121	67.8%	67	56	46.3%	1	46.3%	=	294	36.6%	△
59	비호지킨 림프종	118	0.8%	1	1	0.8%	1	0.8%	=	224	16.2%	▼
60	수두	114	66.7%	64	49	43.0%	1	43.0%	=	294	38.7%	△
60	원인미상 열	114	42.1%	71	44	38.6%	1	38.6%	=	280	30.3%	△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16) 관내 의료이용률(RI): 해당 시군구 소재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건수
 - 진료권 : 73개 진료권 정의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별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구축 방안 연구)
 - 비교병원 : 진료권 내 혹은 전국 내 동일 종별(종합병원 혹은 병원) 의료기관

2) 응급 다빈도 질환별 치료점유율

가. 응급실 현황

표 3-18 응급 관련 기관 현황

병원명	응급의료기관 유형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015년		2016년		2017년	
		필수영역	총점	필수영역	총점	필수영역	총점
남원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충족	68.8	충족	72.9	충족	69.8

나. 응급 다빈도 질환별 치료 점유율

- 응급실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병의 상병이 의료이용명세서 주상병에 포함된 입원건수를 토대로 다빈도 질환을 산출하였음
- 전국 동일종별 의료기관의 치료점유율을 평균과 비교해보면 다빈도질환 60개 중 59개 질환(98.3%)에 대해서 남원의료원이 높은 점유율을 보임

표 3-19 응급 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순위	질병명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¹⁷⁾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산출식		A		B	C	C/A						
1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632	64.2%	583	406	64.2%	1	64.2%	=	274	17.06%	△
2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354	80.2%	395	284	80.2%	1	80.2%	=	280	23.57%	△
3	폐렴	305	67.9%	299	207	67.9%	1	67.9%	=	280	20.64%	△
4	기타 사지뼈의 골절	275	86.2%	421	237	86.2%	1	86.2%	=	278	24.80%	△
5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267	76.0%	335	203	76.0%	1	76.0%	=	279	20.92%	△
6	뇌경색증	240	53.8%	167	129	53.8%	1	53.8%	=	274	15.76%	△
7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238	88.2%	333	210	88.2%	1	88.2%	=	280	27.30%	△
8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223	85.2%	253	190	85.2%	1	85.2%	=	267	23.97%	△
9	두개내 손상	181	68.0%	176	123	68.0%	1	68.0%	=	273	20.58%	△
10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47	93.2%	180	137	93.2%	1	93.2%	=	92	34.14%	△
11	대퇴골의 골절	138	70.3%	154	97	70.3%	1	70.3%	=	278	23.96%	△
12	기타 호흡기계 질환	123	56.1%	90	69	56.1%	1	56.1%	=	279	15.18%	△
13	담석 등 및 담낭염	119	45.4%	69	54	45.4%	1	45.4%	=	276	16.78%	△

순위	질병명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¹⁷⁾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14	기타 비뇨기계의 질환	119	73.1%	116	87	73.1%	1	73.1%	=	276	19.98%	△
15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16	85.3%	160	99	85.3%	1	85.3%	=	279	25.89%	△
16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114	70.2%	110	80	70.2%	1	70.2%	=	274	20.67%	△
17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113	35.4%	48	40	35.4%	1	35.4%	=	252	14.35%	△
18	기타 소화기계의 질환	109	57.8%	99	63	57.8%	1	57.8%	=	269	14.21%	△
19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	104	45.2%	68	47	45.2%	1	45.2%	=	268	16.01%	△
20	요로결석증	103	81.6%	131	84	81.6%	1	81.6%	=	260	22.72%	△
21	뇌내출혈	102	49.0%	67	50	49.0%	1	49.0%	=	264	14.74%	△
22	주로 비의약품 물질의 중독작용	99	76.8%	123	76	76.8%	1	76.8%	=	224	20.89%	△
23	기관지염, 폐기종 및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95	83.2%	102	79	83.2%	1	83.2%	=	276	24.40%	△
24	신부전증	90	34.4%	36	31	34.4%	1	34.4%	=	266	16.13%	△
25	당뇨병	86	86.0%	98	74	86.0%	1	86.0%	=	275	24.68%	△
26	원인미상 열	80	45.0%	62	36	45.0%	1	45.0%	=	245	17.24%	△
27	신세뇨관-간질성 질환	77	61.0%	67	47	61.0%	1	61.0%	=	277	21.33%	△
28	심부전	76	40.8%	47	31	40.8%	1	40.8%	=	266	16.79%	△
29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72	13.9%	14	10	13.9%	1	13.9%	=	258	10.93%	△
30	헤르니아가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관폐쇄	66	65.2%	69	43	65.2%	1	65.2%	=	276	20.92%	△
31	기타 장 및 복막의 질환	65	56.9%	54	37	56.9%	1	56.9%	=	274	18.15%	△
32	급성 췌장염 및 기타 췌장의 질환	65	67.7%	54	44	67.7%	1	67.7%	=	276	21.85%	△
33	충수의 질환	61	88.5%	84	54	88.5%	1	88.5%	=	260	20.00%	△
34	급성 심근경색증	59	52.5%	42	31	52.5%	1	52.5%	=	231	16.24%	△
35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56	57.1%	40	32	57.1%	1	57.1%	=	250	17.42%	△
36	기타 배병증	52	61.5%	49	32	61.5%	1	61.5%	=	272	21.03%	△
37	위 및 십이지장궤양	51	54.9%	42	28	54.9%	1	54.9%	=	271	17.98%	△
38	위염 및 십이지장염	51	90.2%	63	46	90.2%	1	90.2%	=	246	20.42%	△
39	복부 및 골반 동통	49	55.1%	43	27	55.1%	1	55.1%	=	228	20.27%	△
40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 및 관련 증후군	47	74.5%	47	35	74.5%	1	74.5%	=	246	18.55%	△
41	인플루엔자	45	75.6%	42	34	75.6%	1	75.6%	=	269	24.49%	△
42	신경증적,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형 장애	44	86.4%	56	38	86.4%	1	86.4%	=	205	22.59%	△
43	기타 간질환	44	43.2%	33	19	43.2%	1	43.2%	=	272	16.41%	△
44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43	74.4%	52	32	74.4%	1	74.4%	=	252	16.84%	△
4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40	60.0%	29	24	60.0%	1	60.0%	=	270	22.61%	△
46	천식	40	82.5%	43	33	82.5%	1	82.5%	=	268	23.22%	△
47	화상 및 부식	39	92.3%	64	36	92.3%	1	92.3%	=	233	21.84%	△
48	발진티푸스	35	68.6%	36	24	68.6%	1	68.6%	=	188	25.18%	△
49	기타 빈혈	35	68.6%	34	24	68.6%	1	68.6%	=	226	18.21%	△

순위	질병명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¹⁷⁾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50	기타 신경계의 질환	34	26.5%	13	9	26.5%	1	26.5%	=	266	14.11%	△
51	알콜성 간질환	32	59.4%	30	19	59.4%	1	59.4%	=	274	21.14%	△
52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32	75.0%	27	24	75.0%	1	75.0%	=	263	19.71%	△
53	간질	31	41.9%	14	13	41.9%	1	41.9%	=	252	16.60%	△
54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30	23.3%	10	7	23.3%	1	23.3%	=	256	11.21%	△
55	기타 및 상세불명 외인의 영향	30	93.3%	56	28	93.3%	1	93.3%	=	257	20.72%	△
56	편두통 및 기타 두통 증후군	29	37.9%	19	11	37.9%	1	37.9%	=	239	20.54%	△
57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29	72.4%	27	21	72.4%	1	72.4%	=	261	20.19%	△
58	폐혈증	27	18.5%	10	5	18.5%	1	18.5%	=	257	18.84%	▼
59	기타 바이러스 질환	26	19.2%	5	5	19.2%	1	19.2%	=	208	15.79%	△
60	기타 식도, 위 및 십이지장 질환	26	46.2%	20	12	46.2%	1	46.2%	=	264	19.49%	△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17) 관내 의료이용률(RI): 해당 시군구 소재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건수
 - 진료권 : 73개 진료권 정의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별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구축 방안 연구)
 - 비교병원 : 진료권 내 혹은 전국 내 동일 종별(종합병원 혹은 병원) 의료기관

3) 재활 다빈도 질환별 치료점유율

가. 재활·노인의료서비스 현황

표 3-20 재활·노인의료서비스 인력 및 시설 현황

재활의학과 개설여부	인력			물리치료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병실	병상
개설	1명	5명	2명	1실	30병상

나. 재활 다빈도 질환별 치료 점유율

- 재활의학과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당 질병의 상병이 의료이용명세서 주상병에 포함된 입원건수를 토대로 다빈도 질환을 산출하였음
- 전국의 동일종별 의료기관 치료점유율 평균과 비교해보면 다빈도질환 60개 중 남원의료원의 입원 실적이 존재하는 질환은 8개이며, 그 중 1개 질환(1.7%)만 상대적으로 높고, 나머지는 모두 저조한 수준임

표 3-21 재활 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순위	질병명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¹⁸⁾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산출식		A		B	C	C/A						
1	뇌성마비 및 기타 마비성 증후군	166	1.2%	2	2	1.2%	1	1.2%	=	137	6.8%	▼
2	특수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60	80.0%	57	48	80.0%	1	80.0%	=	40	47.4%	△
3	뇌경색증	51	7.8%	6	4	7.8%	1	7.8%	=	135	9.6%	▼
4	기타 패병증	36	0.0%	1	0	0.0%	1	0.0%	=	131	13.1%	▼
5	관절증	27	0.0%	0	0	0.0%	0	0.0%	=	106	12.9%	▼
6	기타 신경계의 질환	22	0.0%	0	0	0.0%	0	0.0%	=	128	10.1%	▼
7	뇌내출혈	19	0.0%	1	0	0.0%	1	0.0%	=	128	8.3%	▼
8	기타 뇌혈관 질환	19	0.0%	0	0	0.0%	0	0.0%	=	106	16.7%	▼
9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 체부위의 기타 손상	16	0.0%	0	0	0.0%	0	0.0%	=	117	14.9%	▼
10	당뇨병	10	0.0%	0	0	0.0%	0	0.0%	=	96	15.5%	▼
11	대퇴골의 골절	10	0.0%	0	0	0.0%	0	0.0%	=	91	15.4%	▼
12	본태성(원발성)고혈압	9	0.0%	1	0	0.0%	1	0.0%	=	77	16.6%	▼
13	두개내 손상	9	0.0%	0	0	0.0%	0	0.0%	=	111	12.8%	▼
14	연부조직 장애	7	0.0%	0	0	0.0%	0	0.0%	=	120	19.1%	▼
15	기타 간질환	6	0.0%	0	0	0.0%	0	0.0%	=	26	33.2%	▼

순위	질병명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¹⁸⁾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16	요추 및 기타 추간관장애	6	0.0%	0	0	0.0%	0	0.0%	=	122	15.8%	▼
17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	5	0.0%	0	0	0.0%	0	0.0%	=	92	25.5%	▼
18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5	0.0%	0	0	0.0%	0	0.0%	=	91	12.5%	▼
19	폐렴	3	0.0%	0	0	0.0%	0	0.0%	=	52	20.3%	▼
20	뼈밀도 및 구조장애	3	0.0%	0	0	0.0%	0	0.0%	=	50	28.7%	▼
21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3	0.0%	0	0	0.0%	0	0.0%	=	105	21.7%	▼
22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2	100.0%	2	2	100.0%	1	100.0%	=	1	100.0%	=
23	비호지킨 림프종	2	0.0%	0	0	0.0%	0	0.0%	=	15	31.1%	▼
24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2	0.0%	0	0	0.0%	0	0.0%	=	60	24.3%	▼
25	치매	2	0.0%	0	0	0.0%	0	0.0%	=	52	24.7%	▼
26	파킨슨병	2	0.0%	0	0	0.0%	0	0.0%	=	96	16.7%	▼
27	류마티오이드 관절염 및 기타 염증성 다발성 관절병증	2	0.0%	0	0	0.0%	0	0.0%	=	62	25.9%	▼
28	관절의 기타 장애	2	0.0%	0	0	0.0%	0	0.0%	=	89	19.5%	▼
29	기타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기타 장애	2	0.0%	0	0	0.0%	0	0.0%	=	77	21.2%	▼
30	기타 비뇨기계 질환	2	0.0%	0	0	0.0%	0	0.0%	=	48	23.4%	▼
31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압 궤손상 및 외상성 절단	2	0.0%	0	0	0.0%	0	0.0%	=	11	34.3%	▼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18) 관내 의료이용률(RI): 해당 시군구 소재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건수
 - 진료권 : 73개 진료권 정의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별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구축 방안 연구)
 - 비교병원 : 진료권 내 혹은 전국 내 동일 종별(종합병원 혹은 병원) 의료기관

2.3 계층별 치료점유율

- 건강보험, 소득상위 40%,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노인, 소아 다빈도 질환은 입원(전체) 환자 대상, 노인, 소아, 장애인 각 계층별 환자를 구분하여 산출하였으며, 각 질환별 입원 건수를 기재하였음

1) 계층별 · 입원(전체) 다빈도 질환별 치료점유율

- 전국 동일종별 평균과 비교해보면 모든 계층의 치료점유율이 높게 나타남
- 계층별 관내 의료이용률은 소아계층이 51.4%로 높게 나타나며, 소득 상위 40% 계층이 42.7%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남원의료원의 소아계층 치료점유율은 45.4%로 관내의료이용률이 가장 높은 소아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적정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2 남원시 계층별 환자 수 및 남원의료원의 치료 점유율

구분		건강보험	소득상위 40%	차상위	의료급여	장애인	노인	소아
남원시	환자 수	10,434	5,338	1,776	2,461	1,772	5,487	1,363
	관내 의료이용률	44.7%	42.7%	49.0%	47.4%	49.4%	47.6%	51.4%
남원의료원	환자 수	7,287	3,703	1,252	1,697	1,428	4,537	916
	치료점유율	35.5%	35.9%	34.6%	34.9%	35.8%	39.9%	45.4%
평균								
진료권내 동일종별		35.5% =	35.9% =	34.6% =	34.9% =	35.8% =	39.9% =	45.4% =
전국 동일종별		12.2% △	12.0% △	12.7% △	13.8% △	12.9% △	14.0% △	12.5% △

2) 계층별 · 진료과목별 치료점유율

- 소아를 제외하고 모든 계층에서 응급실의 치료점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특히, 의료급여 계층의 신경외과와 이비인후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에서는 전국 동일종별 평균 대비 모두 높게 낮음. 반면, 모든 계층의 이비인후과 치료점유율은 저조하게 확인됨

표 3-23 계층별 · 진료과목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구분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입원 건수	관내의료 이용률 (RI) ¹⁹⁾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전체	남원시 주민											
산출식		A		B	C	C/A						
건강 보험	입원(전체)	18,464	44.7%	9,244	6,562	35.5%	1	35.5%	=	298	12.2%	△
	- 내과	5,507	40.0%	2,264	1,687	30.6%	1	30.6%	=	297	14.3%	△
	- 외과	1,126	30.1%	474	339	30.1%	1	30.1%	=	298	11.2%	△
	- 산부인과	724	26.5%	255	192	26.5%	1	26.5%	=	232	6.5%	△
	- 소아청소년과	1,115	50.5%	658	563	50.5%	1	50.5%	=	247	14.3%	△
	- 정형외과	3,155	46.1%	1,508	1,053	33.4%	1	33.4%	=	294	12.0%	△
	- 정신과	645	45.1%	73	45	7.0%	1	7.0%	=	138	6.1%	△
	- 신경과	774	48.1%	478	372	48.1%	1	48.1%	=	252	18.5%	△
	- 신경외과	1,041	11.2%	159	117	11.2%	1	11.2%	=	272	11.9%	▼
	- 비뇨기과	311	12.9%	55	40	12.9%	1	12.9%	=	225	16.9%	▼
	- 이비인후과	245	11.4%	38	28	11.4%	1	11.4%	=	179	16.9%	▼
	- 재활의학과	341	10.6%	45	36	10.6%	1	10.6%	=	160	8.9%	△
	- 응급실	5654	63.4%	5290	3586	63.4%	1	63.4%	=	287	18.1%	△
소득 상위 40%	입원(전체)	9,367	42.7%	4,662	3,361	35.9%	1	35.9%	=	298	12.0%	△
	- 내과	2,876	39.0%	1,171	898	31.2%	1	31.2%	=	297	14.0%	△
	- 외과	579	28.3%	235	164	28.3%	1	28.3%	=	298	10.9%	△
	- 산부인과	340	21.2%	93	72	21.2%	1	21.2%	=	222	6.4%	△
	- 소아청소년과	491	49.5%	270	243	49.5%	1	49.5%	=	247	13.9%	△
	- 정형외과	1,667	44.5%	798	564	33.8%	1	33.8%	=	294	11.7%	△
	- 정신과	186	25.8%	31	22	11.8%	1	11.8%	=	127	7.5%	△
	- 신경과	447	47.4%	265	212	47.4%	1	47.4%	=	250	18.1%	△
	- 신경외과	571	10.7%	75	61	10.7%	1	10.7%	=	272	11.5%	▼
	- 비뇨기과	176	12.5%	30	22	12.5%	1	12.5%	=	225	16.0%	▼
	- 이비인후과	125	10.4%	17	13	10.4%	1	10.4%	=	179	16.2%	▼
	- 재활의학과	178	11.8%	24	21	11.8%	1	11.8%	=	159	8.8%	△
	- 응급실	2950	62.4%	2688	1841	62.4%	1	62.4%	=	285	17.8%	△
차상위	입원(전체)	3,253	49.0%	1,593	1,126	34.6%	1	34.6%	=	298	12.7%	△
	- 내과	958	42.3%	409	300	31.3%	1	31.3%	=	297	14.9%	△

구분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입원 건수	관내의료 이용률 (RI) ¹⁹⁾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전체	남원시 주민											
산출식		A		B	C	C/A						
- 외과		231	34.6%	101	80	34.6%	1	34.6%	=	295	11.5%	△
- 산부인과		83	28.9%	33	24	28.9%	1	28.9%	=	210	7.9%	△
- 소아청소년과		201	49.8%	110	100	49.8%	1	49.8%	=	238	16.2%	△
- 정형외과		467	51.0%	252	165	35.3%	1	35.3%	=	292	12.6%	△
- 정신과		315	51.4%	13	10	3.2%	1	3.2%	=	114	6.1%	▼
- 신경과		115	48.7%	81	56	48.7%	1	48.7%	=	251	19.4%	△
- 신경외과		146	12.3%	23	18	12.3%	1	12.3%	=	269	12.7%	▼
- 비뇨기과		23	4.3%	5	1	4.3%	1	4.3%	=	220	18.2%	▼
- 이비인후과		28	7.1%	3	2	7.1%	1	7.1%	=	174	18.1%	▼
- 재활의학과		34	14.7%	8	5	14.7%	1	14.7%	=	155	9.3%	△
- 응급실		988	64.9%	938	641	64.9%	1	64.9%	=	281	19.0%	△
의료 급여	입원(전체)	4,802	47.4%	2,262	1,678	34.9%	1	34.9%	=	298	13.8%	△
	- 내과	1,554	37.8%	553	430	27.7%	1	27.7%	=	297	16.1%	△
	- 외과	309	28.2%	133	87	28.2%	1	28.2%	=	296	12.5%	△
	- 산부인과	101	40.6%	52	41	40.6%	1	40.6%	=	229	7.5%	△
	- 소아청소년과	214	44.9%	115	96	44.9%	1	44.9%	=	245	15.4%	△
	- 정형외과	806	58.9%	421	328	40.7%	1	40.7%	=	294	14.2%	△
	- 정신과	41	51.2%	6	5	12.2%	1	12.2%	=	114	8.6%	△
	- 신경과	216	51.4%	140	111	51.4%	1	51.4%	=	251	20.3%	△
	- 신경외과	209	13.4%	37	28	13.4%	1	13.4%	=	271	14.5%	▼
	- 비뇨기과	55	30.9%	20	17	30.9%	1	30.9%	=	225	18.7%	△
	- 이비인후과	49	6.1%	4	3	6.1%	1	6.1%	=	176	18.8%	▼
	- 재활의학과	180	11.7%	26	21	11.7%	1	11.7%	=	157	9.0%	△
	- 응급실	1335	66.9%	1266	893	66.9%	1	66.9%	=	285	19.8%	△
장애인	입원(전체)	4,082	49.4%	2,015	1,460	35.8%	1	35.8%	=	298	12.9%	△
	- 내과	1,378	39.4%	597	445	32.3%	1	32.3%	=	297	15.4%	△
	- 외과	245	31.4%	107	77	31.4%	1	31.4%	=	295	11.7%	△
	- 산부인과	15	33.3%	5	5	33.3%	1	33.3%	=	194	12.2%	△
	- 소아청소년과	27	22.2%	6	6	22.2%	1	22.2%	=	187	13.8%	△
	- 정형외과	750	54.1%	422	315	42.0%	1	42.0%	=	293	13.8%	△
	- 정신과	295	61.4%	13	4	1.4%	1	1.4%	=	110	6.3%	▼
	- 신경과	167	62.3%	137	104	62.3%	1	62.3%	=	249	17.8%	△
	- 신경외과	171	15.8%	33	27	15.8%	1	15.8%	=	270	14.0%	△
	- 비뇨기과	39	23.1%	11	9	23.1%	1	23.1%	=	222	17.7%	△
	- 이비인후과	29	3.4%	1	1	3.4%	1	3.4%	=	173	16.1%	▼
	- 재활의학과	161	8.7%	15	14	8.7%	1	8.7%	=	154	9.1%	▼

구분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의료 이용률 (RI) ¹⁹⁾	입원 건수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치료 점유율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산출식	A		B	C	C/A						
- 응급실	1262	68.4%	1227	863	68.4%	1	68.4%	=	282	18.9%	△

노인	입원(전체)	11,216	47.6%	6,224	4,476	39.9%	1	39.9%	=	298	14.0%	△
	- 내과	4,226	40.8%	1,926	1,448	34.3%	1	34.3%	=	297	15.6%	△
	- 외과	615	31.5%	287	194	31.5%	1	31.5%	=	297	11.8%	△
	- 산부인과	53	11.3%	14	6	11.3%	1	11.3%	=	206	9.1%	△
	- 소아청소년과	1	0.0%	0	0	0.0%	0	0.0%	=	10	29.2%	▼
	- 정형외과	1,928	52.9%	1,189	820	42.5%	1	42.5%	=	293	14.0%	△
	- 정신과	253	35.6%	43	25	9.9%	1	9.9%	=	124	8.1%	△
	- 신경과	664	52.3%	444	347	52.3%	1	52.3%	=	250	19.1%	△
	- 신경외과	671	11.6%	110	78	11.6%	1	11.6%	=	271	14.3%	▼
	- 비뇨기과	168	14.3%	35	24	14.3%	1	14.3%	=	225	15.9%	▼
	- 이비인후과	85	3.5%	3	3	3.5%	1	3.5%	=	173	16.7%	▼
	- 재활의학과	290	11.7%	40	34	11.7%	1	11.7%	=	157	9.8%	△
	- 응급실	4138	66.0%	3837	2731	66.0%	1	66.0%	=	285	19.1%	△

소아	입원(전체)	1,948	51.3%	1,091	884	45.4%	1	45.4%	=	298	12.5%	△
	- 내과	154	59.1%	34	30	19.5%	1	19.5%	=	290	15.1%	△
	- 외과	44	56.8%	37	25	56.8%	1	56.8%	=	288	16.9%	△
	- 산부인과	48	16.7%	10	8	16.7%	1	16.7%	=	161	7.6%	△
	- 소아청소년과	1,270	51.9%	773	659	51.9%	1	51.9%	=	249	14.5%	△
	- 정형외과	127	56.7%	48	41	32.3%	1	32.3%	=	291	14.6%	△
	- 정신과	3	0.0%	0	0	0.0%	0	0.0%	=	54	15.6%	▼
	- 신경과	6	50.0%	6	3	50.0%	1	50.0%	=	221	25.3%	△
	- 신경외과	18	27.8%	5	5	27.8%	1	27.8%	=	258	15.3%	△
	- 비뇨기과	13	0.0%	0	0	0.0%	0	0.0%	=	188	10.6%	▼
	- 이비인후과	30	10.0%	4	3	10.0%	1	10.0%	=	169	16.1%	▼
	- 재활의학과	3	0.0%	0	0	0.0%	0	0.0%	=	81	10.3%	▼
	- 응급실	409	46.0%	272	188	46.0%	1	46.0%	=	282	17.1%	△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19) 관내 의료이용률(RI): 해당 시군구 소재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건수
 - 진료권 : 73개 진료권 정의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별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구축 방안 연구)
 - 비교병원 : 진료권 내 혹은 전국 내 동일 종별(종합병원 혹은 병원) 의료기관

3) 계층별·다빈도 질환별 치료점유율

- 건강보험, 소득상위 40%의 7위 이내 질환은 약간의 순위변동은 있으나 거의 일치하였음
- 노인의 경우 다른 계층 순위에는 없는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환이 포함됐으며, 소아계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는 포함되지 않는 질환이 다수 포함됨. 1위로 확인된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 영아’는 남원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에 사용됨. 또한,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기타 바이러스 질환’,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이 포함됨

표 3-24 계층별·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구분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²⁰⁾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산출식			A		B	C	C/A						
건강 보 험	1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752	55.9%	591	417	55.5%	1	55.5%	=	298	15.3%	△
	2	폐렴	658	61.4%	492	359	54.6%	1	54.6%	=	296	16.2%	△
	3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634	76.8%	626	487	76.8%	1	76.8%	=	183	12.5%	△
	4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617	71.2%	565	362	58.7%	1	58.7%	=	293	17.5%	△
	5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552	76.4%	559	422	76.4%	1	76.4%	=	296	21.2%	△
	6	기타 사지뼈의 골절	548	70.6%	504	302	55.1%	1	55.1%	=	293	16.7%	△
	7	기타 배병증	522	40.4%	109	77	14.8%	1	14.8%	=	297	8.3%	△
	8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428	67.8%	221	141	32.9%	1	32.9%	=	292	13.2%	△
	9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422	55.9%	334	190	45.0%	1	45.0%	=	296	14.9%	△
	10	연부조직 장애	421	14.3%	54	40	9.5%	1	9.5%	=	297	9.2%	△
소 득 상 위 40%	1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427	55.5%	324	236	55.3%	1	55.3%	=	296	15.0%	△
	2	폐렴	369	60.4%	255	196	53.1%	1	53.1%	=	295	15.9%	△
	3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335	67.2%	299	191	57.0%	1	57.0%	△	293	17.4%	△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325	82.8%	329	269	82.8%	1	82.8%	=	167	14.2%	△
	5	기타 사지뼈의 골절	298	70.8%	274	172	57.7%	1	57.7%	=	293	16.6%	△
	6	기타 배병증	272	34.9%	52	37	13.6%	1	13.6%	=	295	7.9%	△
	7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266	73.7%	258	196	73.7%	1	73.7%	=	295	20.9%	△
	8	연부조직 장애	222	12.6%	28	20	9.0%	1	9.0%	=	296	8.8%	△

구분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²⁰⁾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전체	남원시 주민												
산출식			A		B	C	C/A						
	9	뇌경색증	207	40.6%	101	78	37.7%	1	37.7%	=	290	12.1%	△
	10	관절증	201	4.5%	12	7	3.5%	1	3.5%	=	291	6.9%	▼

차 상 위	1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220	58.2%	1	1	0.5%	1	0.5%	△	75	8.9%	▼
	2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22	55.7%	98	66	54.1%	1	54.1%	=	288	16.7%	△
	3	폐렴	120	65.0%	94	71	59.2%	1	59.2%	=	294	17.8%	△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19	74.0%	114	88	74.0%	1	73.9%	=	137	16.1%	△
	5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96	79.2%	100	61	63.5%	1	63.5%	=	290	17.9%	△
	6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95	76.8%	93	73	76.8%	1	76.8%	=	292	22.1%	△
	7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84	83.3%	53	36	42.9%	1	42.9%	=	272	22.7%	△
	8	기타 배병증	83	54.2%	29	18	21.7%	1	21.7%	=	292	9.2%	△
	9	기타 사지마비의 골절	80	71.3%	76	38	47.5%	1	47.5%	=	290	17.2%	△
	10	당뇨병	72	56.9%	44	36	50.0%	1	50.0%	=	294	17.9%	△

의 료 급 여	1	기타 배병증	222	58.6%	56	42	18.9%	1	18.9%	=	292	11.5%	△
	2	당뇨병	184	20.1%	49	34	18.5%	1	18.5%	=	295	15.3%	△
	3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81	64.1%	159	116	64.1%	1	64.1%	=	292	16.4%	△
	4	폐렴	153	60.1%	102	79	51.6%	1	51.6%	=	295	17.7%	△
	5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48	80.4%	145	119	80.4%	1	80.4%	=	296	22.0%	△
	6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44	86.1%	135	95	66.0%	1	66.0%	=	291	20.2%	△
	7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27	60.6%	85	65	51.2%	1	51.2%	=	291	15.7%	△
	8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27	78.7%	126	100	78.7%	1	78.7%	=	155	16.7%	△
	9	기타 사지마비의 골절	125	62.4%	97	58	46.4%	1	46.4%	=	291	17.9%	△
	10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16	75.0%	46	32	27.6%	1	27.6%	=	292	14.1%	△

장 애 인	1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224	67.0%	0	0	0.0%	0	0.0%	=	99	5.8%	▼
	2	기타 배병증	173	57.8%	54	36	20.8%	1	20.8%	=	291	9.8%	△
	3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65	81.8%	156	112	67.9%	1	67.9%	=	290	18.7%	△
	4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61	70.8%	148	114	70.8%	1	70.8%	=	284	16.2%	△
	5	폐렴	159	64.2%	114	85	53.5%	1	53.5%	=	292	18.6%	△
	6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58	73.4%	141	116	73.4%	1	73.4%	=	144	18.6%	△
	7	당뇨병	118	44.1%	66	50	42.4%	1	42.4%	=	292	15.3%	△

구분			남원시		남원의료원			비교병원					
			전체 입원 건수	관내 의료 이용률 (RI) ²⁰⁾	입원 건수		치료 점유율	진료권 종별 비교			전국 종별 비교		
					전체	남원시 주민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병원수	치료 점유율	기준값 도달
산출식			A		B	C	C/A						
	8	뇌경색증	102	43.1%	47	38	37.3%	1	37.3%	△	288	12.1%	△
	9	기타 사지마비 골절	89	69.7%	71	47	52.8%	1	52.8%	=	290	18.4%	△
	10	명시된 상해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88	65.9%	71	50	56.8%	1	56.8%	=	290	15.9%	△

노 인	1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592	72.1%	540	358	60.5%	1	60.5%	=	293	18.3%	△
	2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539	64.4%	459	345	64.0%	1	64.0%	=	292	17.2%	△
	3	폐렴	505	65.7%	396	292	57.8%	1	57.8%	=	296	19.5%	△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426	81.0%	442	345	81.0%	1	81.0%	=	161	15.7%	△
	5	기타 배병증	406	46.6%	127	88	21.7%	1	21.7%	△	294	9.2%	△
	6	뇌경색증	371	45.3%	204	155	41.8%	1	41.8%	=	291	13.4%	△
	7	관절증	320	8.8%	32	23	7.2%	1	7.2%	=	293	7.7%	▼
	8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284	3.2%	15	9	3.2%	1	3.2%	=	287	8.1%	▼
	9	기타 사지마비 골절	265	70.9%	248	155	58.5%	1	58.5%	=	291	19.1%	△
	10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255	89.8%	172	134	52.5%	1	52.5%	=	284	22.5%	△

소 아	1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254	28.3%	94	72	28.3%	1	28.3%	=	80	14.2%	△
	2	폐렴	188	53.7%	120	95	50.5%	1	50.5%	=	278	14.2%	△
	3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69	74.0%	125	112	66.3%	1	66.3%	=	266	16.9%	△
	4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66	77.7%	146	129	77.7%	1	77.7%	=	288	19.2%	△
	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07	69.2%	78	72	67.3%	1	67.3%	=	273	16.4%	△
	6	기타 바이러스 질환	101	63.4%	73	64	63.4%	1	63.4%	=	232	15.0%	△
	7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91	84.6%	34	33	36.3%	1	36.3%	=	237	19.4%	△
	8	기타 사지마비 골절	68	80.9%	58	40	58.8%	1	58.8%	=	286	18.3%	△
	9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59	50.8%	40	30	50.8%	1	50.8%	=	262	16.3%	△
	10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59	37.3%	30	22	37.3%	1	37.3%	=	270	13.6%	△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20) 관내 의료이용률(RI): 해당 시군구 소재 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의료이용건수
 - 진료권 : 73개 진료권 정의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별 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구축 방안 연구)
 - 비교병원 : 진료권 내 혹은 전국 내 동일 종별(종합병원 혹은 병원) 의료기관

4) 계층별·다빈도 질환별 의료이용 현황

- 모든 계층의 다빈도 질환자 대부분이 관내 의료이용건수가 높게 파악되며 타 지역으로의 의료유출이 적은 것으로 파악됨
- 건강보험과 소득상위 40%의 연부조직 장애 환자는 전주시 소재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중이 높음
- 소득상위40%와 노인 관절증 환자는 전주시와 서울 소재 의료기관으로의 유출이 많은 것으로 확인됨. 또한, 노인 기관·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환자는 서울과 전주시 소재 의료기관 의료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25 계층별·다빈도 질환별 남원의료원 치료점유율

구분		남원시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서울특별시		기타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이용건수
건강보험	1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	420	3	82	2	113	4	43	94
	2 폐렴	1	404	3	49	2	76	7	9	120
	3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	487	3	31	5	13	3	31	72
	4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	439	3	34	2	39	4	24	81
	5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	422	3	27	2	47	4	9	47
	6 기타 사지뼈의 골절	1	387	2	51	3	31	4	16	63
	7 기타 배병증	1	211	4	34	3	73	2	83	121
	8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	290	2	43	3	34	4	15	46
	9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	236	2	59	3	48	6	8	71
	10 연부조직 장애	4	60	2	65	3	62	5	30	204
소득상위 40%	1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	237	3	50	2	66	4	26	48
	2 폐렴	1	223	3	28	2	47	6	6	65
	3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	225	3	22	2	26	4	17	45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	269	4	12	5	10	2	15	19
	5 기타 사지뼈의 골절	1	211	2	28	3	15	4	13	31
	6 기타 배병증	1	95	4	18	3	43	2	53	63
	7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	196	3	16	2	26	4	6	22
	8 연부조직 장애	4	28	2	36	3	32	5	14	112
	9 뇌경색증	1	84	3	28	2	50	4	12	33
	10 관절증	6	9	1	38	4	22	2	32	100
차상위	1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1	128	11	1	9	2	-	-	89
	2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1	68	2	22	3	8	4	6	18

구분		남원시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서울특별시		기타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이용건수
	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3	폐렴	1	78	2	10	12	1	5	5	26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	88	9	1	9	1	2	7	22
5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	76	3	5	3	5	9	1	9
6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	73	2	6	5	2	3	4	10
7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1	70	3	3	7	1	2	5	5
8	기타 배병증	1	45	2	8	4	5	4	5	20
9	기타 사지뼈의 골절	1	57	2	5	-	-	3	4	14
10	당뇨병	1	41	5	3	4	5	3	7	16
의료급여	1 기타 배병증	1	130	4	11	3	21	6	4	56
	2 당뇨병	2	37	4	7	6	5	10	3	132
	3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	116	2	19	4	11	4	11	24
	4 폐렴	1	92	2	11	8	4	5	6	40
	5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	119	3	5	4	3	2	10	11
	6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	124	2	6	5	2	4	4	8
	7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	77	4	8	6	3	2	11	28
	8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	100	2	8	9	1	3	5	13
	9 기타 사지뼈의 골절	1	78	3	8	4	6	5	5	28
	10 명시된 다발성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1	87	6	2	13	1	2	7	19
장애인	1 정신분열증,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1	150	-	-	10	1	-	-	73
	2 기타 배병증	1	100	2	16	4	8	5	6	43
	3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	135	3	8	5	4	5	4	14
	4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	114	3	9	2	18	4	8	12
	5 폐렴	1	102	7	3	2	14	5	5	35
	6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	116	4	6	6	3	2	14	19
	7 당뇨병	1	52	6	3	11	1	4	5	57
	8 뇌경색증	1	44	4	8	3	10	2	21	19
	9 기타 사지뼈의 골절	1	62	7	2	3	4	3	4	17
	10 명시된 상세불명 및 다발성 신체부위의 기타 손상	1	58	6	2	3	6	3	6	16
노인	1 목, 흉곽 또는 골반의 골절	1	427	3	32	2	40	4	25	68
	2 기타 달리 분류되지않은 증상, 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	347	3	50	2	62	4	34	46
	3 폐렴	1	332	3	17	2	58	6	8	90
	4 특수처치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1	345	9	3	9	3	2	21	54

구분		남원시		전주시 완산구		전주시 덕진구		서울특별시		기타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순위	이용건수	이용건수
	5 기타 배병증	1	189	4	16	3	48	2	65	88
	6 뇌경색증	1	168	3	39	2	70	4	20	74
	7 관절증	5	28	2	48	4	37	1	50	157
	8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6	9	4	16	1	114	2	77	68
	9 기타 사지뼈의 골절	1	188	2	16	4	12	3	14	35
	10 기타 귀 및 유양돌기 질환	1	229	3	5	2	9	10	1	11
소아	1 출산장소에 따른 출생영아	1	72	3	46	2	67	9	2	67
	2 폐렴	1	101	2	26	4	11	11	2	48
	3 급성 기관지염 및 급성 세기관지염	1	125	2	9	3	7	13	1	27
	4 감염성 기원이라고 추정되는 설사와 위장염	1	129	2	12	3	11	11	1	13
	5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	74	2	17	3	3	-	-	13
	6 기타 바이러스 질환	1	64	3	10	2	11	5	2	14
	7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1	77	2	5	4	2	7	1	6
	8 기타 사지뼈의 골절	1	55	2	5	3	4	-	-	4
	9 기타 급성 상기도 감염	1	30	3	8	3	8	4	3	10
	10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상 이상소견	1	22	4	4	2	19	5	3	11

* 출처 : 2017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 명세서

3. 공공보건의료사업

3.1 공공의료사업 조직 및 인력

1) 조직 내 위치(2017년)

- 원장 산하 조직으로 공공의료사업부가 있으며, 공공의료사업부 하부에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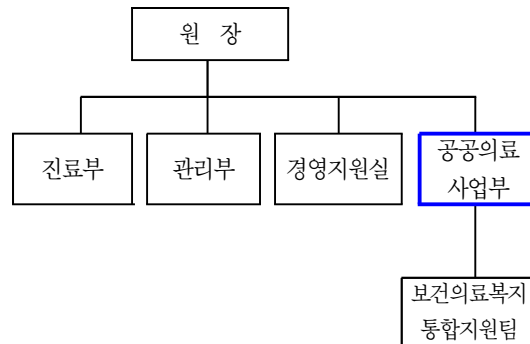


그림 3-3 공공의료팀 조직 내 위치

2) 인력구성(2017년)

- 의사, 간호사, 행정, 보건직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며, 겸직 1명에 전임 5명으로 총 6명으로 운영

표 3-26 공공보건의료사업 담당 인력

번호	직종	공공의료팀 직급	역할	전임	겸임
1	의사직	부장	공공의료사업부 업무 슈퍼 비전		○
2	간호직	팀장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 업무 전반	○	
3	간호직	간호직	QI 활동관리, 환자안전관리, 표준진료지침	○	
4	간호직	사무직	만성질환관리	○	
5	사무직	사무직	공공보건행정, 지역의료지원, 치매관리사업	○	
6	보건직	보건직	의료사회복지, 건강안전망기능, 사회복지후원회	○	

3.2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실적

1) 사업 내용 및 실적

표 3-27 공공보건의료사업 계획 및 실적

구분	연도	계획
공공성 강화	16년	• 신규직원 교육 • 재직직원 교육 • 협력업체 직원 교육 •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17년	• 신규직원 교육 • 직원역량 기본과정 • 직무역량 공통과정 • 리더십 역량과정 • 협력직원 교육 • 완화의료 및 생활권 선도 사업 정착 • 경영효율성 제고
양질의 적정진료	16년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및 적용 관리 • 급성기 뇌졸중 적정진료 도모 • 원내 감염관리
	17년	• CP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의료의 질 향상 • 병문안 문화 개선
건강안전망	16년	•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 학대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료지원 • 지역아동센터 아동 무료검진 및 진료지원사업 • 장애아동 및 지적장애인 무료검진 및 예방접종사업 등
	17년	• 저소득층 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 학대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진료지원 • 지역아동센터아동을 위한 “튼튼한 몸 건강한 성장 프로그램” • 장애아동 및 지적장애인 무료검진 및 예방접종사업 • 장애인 관리사업 • 취약지역 주민 생활행태 개선사업 •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치매관리사업
미충족서비스	16년	•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 및 시설 개선 • 재난대응 자체 훈련 • 산·소아과 병동 설치 및 산모 이동버스 운영 •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및 가정간호방문서비스 제공 •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협진체계 구축 등

구분	연도	계획
	17년	• 재난대응 자체훈련 •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 • 산부인과 - 소아청소년과 협진체계 구축 • 산모·신생아 가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 임실군 보건의료원 이동진료 • 가정간호 방문사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만성질환관리사업 •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2) 미충족 의료서비스 및 건강안전망 사업 실적

표 3-28 미충족 의료서비스 사업 실적(2017년)

번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달성도	
				목표	실적
1	재난대응 자체훈련	재난대책본부 구성원	재난대응 자체훈련	1회	1회
2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	남원,임실, 순창 산모	분만의료 사각지대 해소	120건	99건
3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협진체계 구축	산모·신생아	신생아 응급상황 대처	33,801명	26,339명
4	산모·신생아 가정방문간 호서비스제공	본원에서 분만한 산모	산모·신생아 관리로 합병 증 조기발견 및 예방	180회	170회
5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남원,임실, 순창 산모	산후조리원 기능 수행	36회	36회
6	이동진료	임실 산모	의료취약지역 의료접근성 향상	24회	14회
7	가정간호방문사업	본원이용환자	가정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 제공	3,500명	659명
8	만성질환관리사업	당뇨·고혈압 환자	만성질환 합병증관리	4,000명	5,673명
9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입원환자	환자 및 보호자 돌봄	2,000명	1,826명
1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시행	입원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으로 간병비 부담 해소	14,600명	-

표 3-29 건강안전망 사업 실적(2017년)

번호	사업명	사업대상	사업내용	달성도	
				목표	실적
1	저소득층환자 진료비 지원사업	중위소득 80% 이하	입원, 외래 진료비 지원	110명	180명
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및 자녀, 외국인 근로자 및 자녀, 난민 등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 산전진찰 등 진료비 지원	4명	3명
3	학대아동 및 학교 밖 청소년 치료지원	굿네이버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의뢰된 아동	진료비지원 건강검진 독감예방접종	12명	21명
4	지역아동센터아동을 위한 ‘튼튼한몸 건강한 성장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저소득 가정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 교육, 소아대사증후군관리	741명	1,175명
5	장애아동 및 지적장애인 무료검진, 예방접종사업	장애인부모회, 남원시지회, 지적장애인협회를 이용하는 장애인	건강검진, 예방접종(A형, B형, 자궁경부암) 튼튼한몸 건강한성장 프로그램, 소아대사증후군 관리	100명	114명
6	장애인관리사업	장애인	재활방문진료, 나들이지원, 건강관리 등	300명	513명
7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강화	퇴원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거나 지역내에서 발굴된 취약환자	퇴원환자 연계 및 관리, 취약환자를 위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시스템 구축	30명	17명
8	치매관리사업	60세 이상 노인	치매조기검진, 치매예방 및 인지프로그램, 물품지원 등	670명	731명

3) 사업 예산

- 의료안전망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사업에 대한 전체 예산은 2017년도 362,998천원임

표 3-30 의료안전망 및 미충족 의료서비스 사업 예산

번호	구분	예산출처	2017년	
			사업내용	예산(천원)
1	중앙정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25,000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국가암관리	13,000
		농림축산식품부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168,000
2	광역지자체	전라북도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12,000
3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5,564
8	기초지자체 지원액	남원시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12,000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43,000
			긴급복지법에 따른 의료비지원	15,470
9	자체예산	남원의료원	의료사회복지사업	16,000
			만성질환사업	8,700
			치매관리사업	2,010
			호스피스완화의료사업	10,005
10	기타(민간단체 보조금 등)		남원의료원 사회복지후원회	25,994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6,255
총계			362,998	

4) 지역사회 협력 및 연계

표 3-31 지역사회 연계기관 및 내용

번호	기관명	연계내용	실적
1	남원시 보건소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운영	3회
2	임실군 보건의료원		
3	순창군 보건의료원		
4	남원시 지역아동센터(25처)	지역아동 건강관리 및 보건교육 지원 (기초검진, 보건교육, 저소득아동 진료지원 등)	9회
5	남원시 보건소	당뇨·고혈압 교실 운영	43회
6		만성질환자 등록	12회
7		만성질환 바로알기 캠페인	4회
8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지원	40회
9	남원시	찾아가는 만성질환상담실	8회
10		재래시장 나눔행사	1회
11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만성질환 바로알기 캠페인	1회
12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만성질환 바로알기 캠페인	1회
13	전남대의대	만성질환 추적검사 및 교육	49회
14	남원시체육회	당뇨·고혈압 교실	43회
15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	만성질환 바로알기 캠페인	1회
16	전북지역암센터	표준교육, 일반봉사자교육 강의	3회

3) 정부·정책사업 참여

표 3-32 정부·정책사업참여

번호	2016		2017	
	사업명	실적	사업명	실적
1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외래 5,493명 분만 94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외래 5,378명 분만 99건 이동진료 14회
2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서비스	20명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 서비스	1,244
3	병문안 문화개선	시행	병문안 문화개선	시행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미시행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00병상/ 12,256명
5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 (입원형)	11병상	호스피스완화의료서비스 제공 (입원형, 가정형)	26병상
6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음압 12병상	감염병 표본감시기관	음압 5병상 일반 12병상

3.3 관련 평가 결과

1) 평가 결과

표 3-33 남원의료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구분	전체 평균점수	남원의료원 점수				
		종합점수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2006년	61.3	73.2	83.9	64.9	61.3	83.3
2007년	67.4	77.7	88.6	78.3	63.3	88.8
2008년	69.9	81.0	89.6	90.0	61.9	100.0
2009년	70.3	84.3	93.4	90.0	67.5	100.0
2010년	68.8	82.8	85.1	90.0	72.1	94.4
2011년	69.7	81.8	72.7	90.0	72.5	92.5
2012년	67.5	83.2	69.7	92.1	72.2	100.0
2013년	69.6	72.6	66.5	89.3	59.7	73.0
2014년	70.9	75.5	78.0	75.7	70.0	84.0
2015년	72.1	74.5	78.0	76.7	68.3	76.0
2016년	72.6	77.2	78.5	79.0	65.3	91.0
2017년	75.3	80.9	82.5	78.3	80.0	84.5
2018년	75.2	77.0	78.3	79.3	72.5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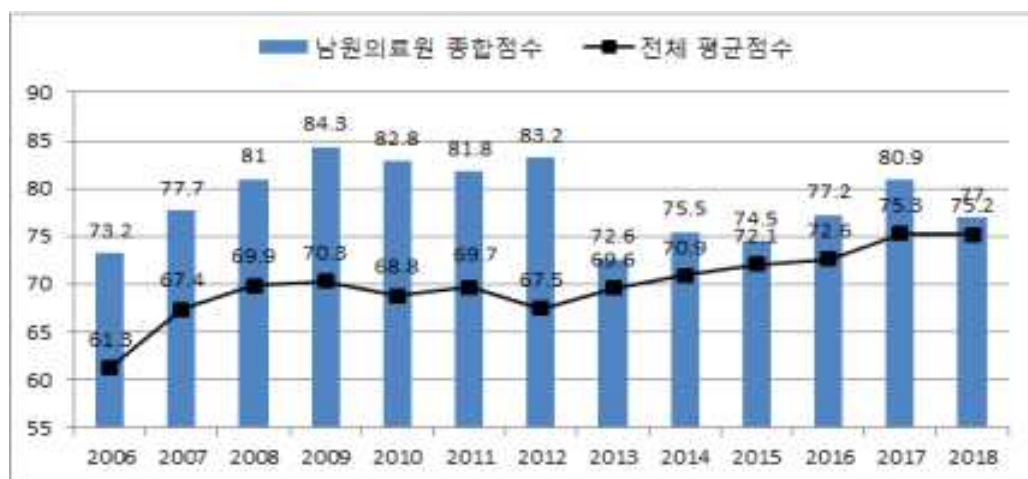


그림 3-4 운영평가 결과

표 3-34 남원의료원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연도	구분	평가 영역별				총점	평가 등급*
		공공성 강화	양질의 적정진료	건강안전망**	미충족서비스***		
'15	총 합	7.3	24.9	24.0	24.6	80.8	우수
	• 정성평가	7.0	23.6	23.6	24.7	78.9	
	• 정량평가	8.5	30.0	25.5	24.0	88.0	
	그 룹 평 균	7.6	21.2	24.5	23.2	76.5	
'16	총 합	20.0	22.0	20.0	20.5	82.5	우수
	• 정성평가	11.0	3.0	12.0	16.0	42.0	
	• 정량평가	9.0	19.0	8.0	4.5	40.5	
	그 룹 평 균	20.8	19.2	20.4	19.6	79.9	
'17	총 합	19.5	19.5	20.6	20.9	80.4	우수
	• 정성평가	18.4	18.0	19.5	20.0	75.9	
	• 정량평가	22.0	23.0	23.0	23.0	91.0	
	그 룹 평 균	21.7	20.6	21.9	21.4	85.6	

*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등급: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으로 5등급으로 구성됨 (최우수 : 90점이상, 우수 : 80점이상~90점미만, 양호 : 70점이상~80점미만, 보통 : 50점이상~70점미만, 미흡 : 50점미만)

** 건강안전망 :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진료지원 사업, 301네트워크(보건·의료·복지) 사업

*** 미충족서비스 : 치매정밀검진 및 치매환자 원격화상 진료, 찾아가는 부인과 사업



그림 3-5 공공보건의료계획 평가 결과

2) 종합평가의견

구 분	평가 의견
‘15년 실적 평가결과	- 가정간호방문사업 : 자체예산 100%이며, 실적도 우수, 진료수익도 증가함 - 사업 내용에 부합하는 담당인력 교육 내용 강화 - 목표 미달 사업의 경우 원인 분석 후 개선 대책 수립 - 인력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엿보임 - 사업추진의 체계화, 전략이 미흡함 - 공공기관의 사명에 맞는 추진체(동력원) 지원이 필요함(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노력(인력·예산 투입)이 필요함
‘16년 계획 심의결과	- 전반적으로 체계적이고 우수한 계획이라 판단됨 -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표준진료지침(CP)와 손위생 수행 이외의 계획 보강 필요(EMR 적극 활용 계획 등) - 건강안전망 및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는 기본계획과 연계한 과제들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됨 - 공공성 강화: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 필요(신규, 재직, 협력 직원 교육 계획만 있음)
‘16년 실적 평가결과	- 남원시 지역아동센터 25곳의 아동들에게 체계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통합건강증진 사업지원단과 연계하여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간염예방접종도 실시하고 있음 -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활동을 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증빙자료가 부족함 -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부문의 자체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 있음 - 적정진료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성과지표가 CP에 국한되어 있음 - 장애아동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건강안전망과 미충족 서비스와 관련된 병원 전체 차원의 부서 간 협력 노력이 다소 부족함 - 지역아동센터 건강검진 유소견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센터’ 사업을 통해 산모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돋보임 -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튼튼한 몸, 건강한 성장 사업(위험대상자 선별> 문제해결)은 벤치 마킹 사례로 활용가능
‘17년 계획 심의결과	- 상위계획과 부합하게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계획 - 사업별 목표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세부계획 및 평가·모니터링 체계 우수 - 미충족 의료서비스인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계획 우수 -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에 있어 구조·과정·결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으나,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량(계량)지표로 제시할 필요 있음
‘17년 실적 평가결과	- 취약계층(장애인, 지역아동센터, 고위험산모 등) 발굴과 이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우수함. 또한 전남대학교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사업을 의료원의 고유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것도 우수함.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공공형 산모보건센터 사업도 잘 수행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사업을 많이 그리고 잘 수행하고 있으나 평가에서 실시 여부에 대한 것으로 그치고 있어 구체성이 일부 부족함. 사업의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병행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결과에 대한 평가도 실시되어야 할 것임 - 지역의 위치에 맞게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통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남원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4. 병원 관리

4.1 기획의 타당성

1) 중장기 및 연간 계획 수립

가. 비전과 미션

- 남원의료원의 비전은 「최상의 의료제공으로 신뢰받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임
- 미션은 「우리는 양질의 의료 및 포괄적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의료 발전에 기여한다.」 임

나. 중장기 계획

- 2014년에 3년간(2015~2017)의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함
 -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을 통해 중장기 경영 계획을 수립함
 - 이를 통해 2대 중장기 경영목표와 3대 전략목표, 13개 세부 전략과제를 도출함

표 3-35 남원의료원의 중장기 경영목표 및 전략

중장기 경영목표	전략목표	세부 전략과제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강화	- 공공보건의료사업 -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 병원발전자문위원회 활성화 - 표준진료지침(CP) 개발 - 포괄간호서비스
	내부효율화	- 조직의 안정 - 직원역량강화 - 내부고객 만족도 향상 - 친절하고 설명잘해주는 병원 만들기
경영효율화	경영개선	- 우수의료진 확충 - 신포괄 정책인센티브 - 비용절감 노력강화 - 시설·장비 현대화

4.2 조직 관리의 적절성

1) 조직 및 직종별 인력 구성

가. 조직 구성

- 원장을 중심으로 1실 · 3부 , 19진료과 · 3센터, 2지원과 · 8팀으로 구성됨
- 경영지원실은 공중보건의 업무지원, 출연금 및 보조금 사업계획 및 교부 신청, 의료원 운영계획, 정책, 도의회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기획총무팀은 조직 및 정원관리, 예산, 이사회, 운영평가, 경영평가,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팀은 간병인 관리, 의료봉사 지원, 가정간호, 정신보건, 의료지원, 보건교육, 의료취약계층 및 의료사회복지, 만성질환 관리 등 공공의료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함
- 진료부는 16개 진료과와 3개 센터, 2과, 3팀으로 구성됨
 - 진료과는 내과, 신경과, 정신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병리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임
 - 응급의료센터, 건강증진센터, 감염병센터에서 응급의료, 검진, 감염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
 - 약제과, 간호과에서 약품, 간호업무 전반 업무를 수행함
 - 3팀은 영상의학팀, 물리치료팀, 진단검사팀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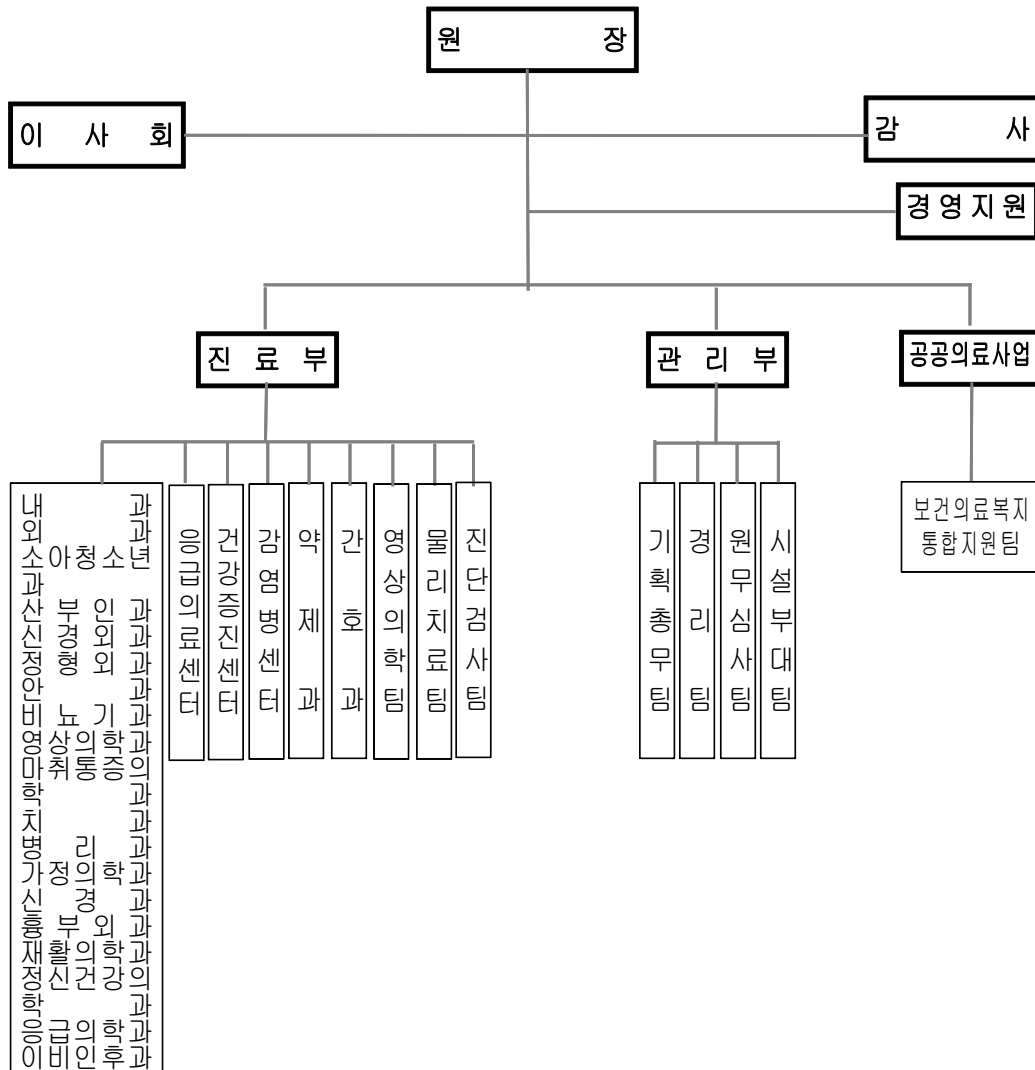


그림 3-6 남원의료원 조직도

2) 조직 운영

가. 의사 결정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

- 규정심의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1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표 3-36 위원회 현황

구분	위원회명	위원장	구성
1	규정심의위원회	관리부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 진단검사팀장, 감염관리팀장, 노동조합 지부장
2	인사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노동조합 지부장 외부위원 : 성승근, 노혜성
3	윤리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4	시설관리운영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원무심사팀장, 시설부대팀장,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
5	의무기록관리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가정의학과장(배강민), 가정의학과장(신호윤), 1외과장, 2외과장, 1내과장, 2내과장, 3내과장, 4내과장, 호흡기내과장, 내분비내과장, 1정형외과장, 2정형외과장, 1산부인과장, 2산부인과장, 정신건강의학과장, 1신경과장, 신경외과장, 소아청소년과장, 비뇨기과장, 재활의학과장, 2신경과장, 마취과장, 간호과장
6	환자급식관리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내과장, 호흡기내과장, 간호과장
7	의료사고예방 및 분쟁조정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내과장, 산부인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 노동조합 지부장 외부위원 : 오혜성, 최태성
8	감염관리위원회	원장	진료부장, 감염병센터장, 관리부장, 간호과장, 진단검사팀장
9	약사심의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1내과장, 가정의학과장, 1정형외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10	질향상과 환자안전 위원회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11	의료장비심의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기획총무팀장, 시설부대팀장, 노동조합 지부장, 영상의학과장, 내과장, 가정의학과장 외부위원 : 박영태, 이만선
12	공공보건의료 운영위원회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1내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 감염관리팀장 외부위원 : 최태성, 권근상, 한석권, 양경남
13	의료기관인증 운영위원회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1정형외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수간호사
14	진료비심사위원회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영상의학과장, 간호과장, 원무심사팀장

구분	위원회명	위원장	구성
15	병원발전자문위원회	정우진	양완철, 우광호, 강자원, 김경열, 김병석, 김옥기, 김재훈, 김한권, 노홍완, 동중호, 모춘재, 박노옥, 박영덕, 서용원, 서기성, 신일섭, 안창환, 양경남, 양일규, 유영철, 이무곤, 이용덕, 이태수, 조명래, 최성환, 최종만, 황병선, 양해옥, 이상덕, 이성춘, 최동선
16	병원운영위원회	원장	진료부장, 관리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내과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17	교육위원회	관리부장	간호과장, 기획총무팀장, 경리팀장, 원무심사팀장, 진단검사팀장, 노동조합 지부장
18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관리부장	기획총무팀장, 원무심사팀장 외부위원 : 김태영, 한희정

- 경영전략회의
 - 병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로 분기별 1회 개최
 - 원장, 부장, 실·과장, 팀장, 계장, 수간호사 이상이 참여
- 주간업무보고
 - 매주 1회 관리부장, 관리부팀장, 간호과장, 보건의료팀장이 참여
- 확대간부회의
 - 월 1회 관리부 팀장 및 계장이 참여

표 3-37 병원운영회의 현황

회의명	참석대상	인원	개최 주기	주요 역할 및 운영 형태
경영전략회의	원장, 부장3, 실·과장, 팀장, 수간호사, 계장	33명 이상	분기별	주요 현안업무 추진상황 등
주간업무보고	관리부장, 팀장, 간호과장	8명	매주 1회	주간 업무 추진상황 등
확대간부회의	관리부장, 팀장, 계장	약 17인 이상	월 1회	월별 주요 실적 및 추진상황 등

나. 직원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임. 특히 경영방침 및 비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보임

표 3-38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연도	구분	커뮤니케이션	경영방침 및 비전	의사소통 및 협조	적극적 의사소통	정보교환	전반적 만족도
2016년	전체 평균	75.6	78.7	73.8	76.6	74.0	72.1
	남원의료원	75.1	81.7	71.0	75.1	73.9	71.0
2017년	전체 평균	76.7	79.2	74.9	78.0	75.2	73.1
	남원의료원	82.9	88.3	80.5	82.4	81.3	78.5
2018년	전체 평균	76.1	79.6	73.8	77.3	74.3	71.8
	남원의료원	78.4	83.9	76.7	78.4	75.7	75.1



그림 3-7 커뮤니케이션 만족도

다. 정보체계 구축

- 병원 경영을 위해 필요한 관리지표 6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외부고객 만족도, 표준진료지침 개발, 직원만족도는 연 1회 조사하고, 신포괄수가제는 분기별 1회, 비용절감을 위한 지표는 연2회 관리하고 있음

표 3-39 관리지표 현황

관리지표명	조사 주기
외부고객 만족도	연 1회
표준진료지침 개발	연 1회
직원만족도	연 1회
신포괄수가제	분기별 1회
비용절감	연 2회
친절한 병원만들기	분기별 14회

3) 교육

가. 직원 교육 실적

- 2015년, 2016년 통신교육을 각각 4회, 3회 실시하였으나 2017년도부터 인증필수 교육을 통신교육으로 1회 실시
- 청탁금지법 개정 및 부패방지 교육 의무화에 따라 2016년부터 윤리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교육, 청렴사이버교육, 직무교육 등 실시 현황은 미포함

표 3-40 연도별 직종별 교육실적

연도	직종	교육명	실적(연인원)
2015년	전 직원	전 직원 친절교육	186명
		폭력예방통합교육	218명
		통신교육	817명
2016년	전 직원	전 직원 친절교육	436명
		폭력예방통합교육	253명
		통신교육	665명
		윤리교육	245명
2017년	전 직원	전 직원 친절교육	320명
		폭력예방통합교육	312명
		통신교육(인증필수)	295명
		윤리교육	172명

나. 직원 교육 만족도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교육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전반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3-41 직원교육 만족도

연도	구분	직원교육	교육목표 명확성	교육기간 적절성	교육기회 충분성	교육기회 공정성	자기개발 측면 도움성	업무수행 도움정도	전반적 만족도
2016년	전체 평균	77.2	79.1	76.8	77.2	77.0	75.6	77.8	76.1
	남원의료원	77.0	80.2	76.6	76.0	77.3	75.2	76.8	75.6
2017년	전체 평균	78.4	80.2	78.0	78.8	78.4	76.6	78.7	77.2
	남원의료원	84.7	87.1	84.9	84.4	84.0	83.1	84.7	82.8
2018년	전체 평균	77.7	79.3	77.2	77.8	77.9	76.2	78.0	76.8
	남원의료원	81.5	83.3	80.9	82.2	80.5	81.0	81.1	80.4



그림 3-8 교육 만족도

4) 노사 관계

- 남원의료원의 노사협의회는 원장 및 원장이 지정하는 4명,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위원 4명으로 구성되어 총 10명임
- 분기별 1회 개최하여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복지 증진에 대해 논의함

표 3-42 노사협의회 현황

참석대상	인원	개최 주기	주요 역할
• 원장 및 원장이 지정하는 4명 •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위원 4명	총 10명	연 4회	근로자의 고충처리 및 복지 증진

표 3-43 노사협의회 주요 안건

연도	요구 주체	안전	내용	결과
2015년	근로자 대표	•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 노조발전기금 마련 • 신입직원 시용기간 내 임금 100% 지급 • 산별중앙교섭 참석	• 신규 간호사 확보를 위한 간호사 임금 체계 개편 • 노조발전기금 확보 방안 마련 • 시용기간 3개월 동안 임금 20% 삭감 금지 • 지방의료원이 참여하는 산별중앙교섭에 남원의료원도 참여 구	• 간호사봉급조정수당 신설 • 노조발전기금 마련을 위해 노동조합 자체 바자회 등 개최 시 사용자측에서 장소 제공 • 규정 개정을 통해 시용기간 내 임금 20% 삭감 조항 개정 •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중앙산별교섭 참석
	병원	-	-	-
2016년	근로자 대표	• 점심 당번 근무자 환경 개선 • 간호조무사 대기실 설치	• 의료원 특성 상 점심시간에도 민원을 상대해야 하는 직원에 대해 중식 무료 제공 요청 • 간호조무사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 공간 설치 요구	• 점심 당번 근무자에 한해 당일 무료 식사 제공 • 향후 리모델링 공사 시 검토
	병원	• 노사 공동으로 연차유급휴가 독려 • 주5일제 시행 연기	• 직원의 여가 활동 등을 위해 연차유급휴가 사용 독려 시	• 직원 연차유급휴가 독려 실시 • 7월 1일자로

연도	요구 주체	안전	내용	결과
		직원 감면 조항 변경	- 노동조합 협조 요청 - 주5일제 시행을 기존 합의한 5월 1일에서 7월 1일로 연기 요청 「보건복지부 표준운영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직원 감면 조항 변경 요청	- 주5일제 시행 - 직원 감면을 의료수가의 50%에서 본인부담금 50%로 수정
2017년	근로자 대표	- 인사 이동 시 사전 협의 요구 - 퇴사 의향 근로자를 노동조합과 면담할 수 있도록 요청	- 인사 이동 시 15일 이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실시할 것을 요구 - 퇴사 의향 근로자 발생 시 노동조합에서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요청	- 필요 시 노동조합과 협의는 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사전에 인사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 - 퇴사 의향이 있는 근로자를 강제로 노동조합과 면담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기에, 퇴사 의향 근로자 발생 시 노동조합에 인적사항 및 사직 시기 등을 통보
	병원	근로자의 날 근무 실시	의료원 특성을 감안하여 5월 1일 근무 실시 요구	5월 1일에 근무를 실시하고 대체휴일 1일과 휴일근무 수당 4시간 지급

4.3 의사결정 구조의 적절성

1) 이사회

- 이사회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임원)과 제9조(이사회)임
- 남원의료원의 이사회는 총 9명으로 이사장은 원장임
 - 법적 요건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보건소장 포함),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지역주민 대표 등이 이사에 포함됨
 - 교수, 소비자 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됨

표 3-44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성별	추천기관	현직	전직
1	원장	박주영	남	-	의료원장	
2	이사	강영석	남	-	도 보건의료과장	-
3	이사	이순례	여	-	보건소장	-
4	이사	모삼종	남	전라북도 의회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장	전 전라북도 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
5	이사	정상근	남	보건의료전문가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교수	
6	이사	박심훈	여	지역보건의료계	전주비전대학교 간호학부교수	
7	이사	강정자	여	소비자단체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회장	
8	이사	김성수	남	비영리민간단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남원시지부협회장	
9	이사	곽성주	남	지역주민대표	의료법인 남원성일병원이사장	

- 정기 이사회가 2015년 2회, 2016년 2회, 2017년 2회 개최되었으며, 임시 이사회도 각 2회(서면 2회), 서면 4회, 1회(서면3회) 개최됨

표 3-45 이사회 운영 실적

시기	구분	참석자	주요 내용
2015년	2월	정기 박주영, 강정자, 김유창, 김학경, 김훈, 서혁철, 유택수, 조성남, 최태성, 이연주(감사)	2014년도 결산안 외 8안건
	5월	서면 김유창, 김학경, 김훈, 서혁철, 유택수, 조성남, 최태성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2안건
	6월	서면 강정자, 김유창, 김학경, 김훈, 서혁철, 유택수, 최태성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7월	서면 강정자, 김유창, 김학경, 심훈, 서혁철, 유택수, 조성남, 최태성	고정자산 불용처분 의결안 외 1안건
	8월	임시 박주영, 강정자, 김유창, 김학경, 김훈, 서혁철, 조성남, 최태성	정관 일부개정안 외 9안건
	10월	서면 강정자, 김유창, 김학경, 김훈, 서혁철, 유택수, 조성남, 최태성	이사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3안건
	11월	임시 박주영, 강정자, 김학경, 서혁철, 조성남, 최태성, 유택수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6안건
	12월	정기 박주영, 김유창, 광성주, 김성수, 조성남, 최태성, 유택수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외 4안건
2016년	1월	서면 강정자, 김성수, 김유창, 김훈, 조성남, 유택수, 최태성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월	정기 박주영, 강정자, 김훈, 김성수, 유택수, 조성남, 최태성, 유주환(감사)	2015 도 결산안 외 11안건
	4월	서면 강정자, 김성수, 김유창, 김훈, 조성남, 유택수, 최태성	복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3안건
	6월	서면 김성수, 김유창, 김훈, 조성남, 유택수, 최태성	정관 일부개정안 외 3안건
	10월	서면 강정자, 광성주, 김성수, 김유창, 조성남, 유택수, 최태성	고정자산 불용처분 의결안 외 1안건
	12월	정기 박주영, 강정자, 광성주, 김성수, 김유창, 유택수, 조성남, 최태성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외 8안건
2017년	1월	서면 강정자, 광성주, 김성수, 김유창, 조성남, 유택수, 최태성	정관 일부개정안 외 2안건
	2월	정기 박주영, 강정자, 광성주, 김성수, 모삼종, 박심훈, 정상근, 최태성, 유주환(감사)	2016년도 결산안 외 14안건
	4월	서면 광성주, 김성수, 모삼종, 박심훈, 유택수, 정상근, 최태성	토지 교환 계획안
	8월	임시 강영석, 강정자, 광성주, 김성수, 모삼종, 박심훈, 최태성	원장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외 2안건
	11월	서면 강영석, 김성수, 모삼종, 박심훈, 정상근, 최태성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12월	정기 박주영, 광성주, 강영석, 김성수, 모삼종, 박심훈, 최태성	정관 일부개정안 외 10안건

2) 원장

- 1983년 지방공사 남원의료원으로 전환 후 7명의 원장이 역임함
 - 7명의 원장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의사이며, 강충구 원장이 11년 10월 으로 가장 오래 재임함

표 3-46 역대 원장 현황

구분	성명	임기			전공
		시기	종기	기간	
1	한규송	1983. 07. 01	1983. 08. 07	1월	외과
2	유영준	1983. 08. 08	1986. 06. 30	2년 8월	가정의학과
3	유영준	1986. 07. 01	1989. 06. 30	3년	가정의학과
4	유영준	1989. 07. 01	1992. 06. 30	3년	가정의학과
5	강충구	1992. 08. 13	1995. 06. 30	2년10월	외과
6	강충구	1995. 07. 01	1998. 06. 30	3년	외과
7	강충구	1998. 07. 01	2001. 06. 30	3년	외과
8	강충구	2001. 07. 01	2004. 06. 30	3년	외과
9	김정희	2004. 07. 01	2007. 06. 30	3년	마취통증의학과
10	황용	2007. 07. 02	2010. 07. 01	3년	외과
11	정석구	2010. 08. 01	2013. 07. 31	3년	마취통증의학과
12	정석구	2013. 08. 01	2014. 08. 19	1년	마취통증의학과
13	박주영	2014. 11. 21	2017. 11. 20	3년	-
14	박주영	2017. 11. 21	현재	11월	-

- 2018년 전라북도지사와 성과계약을 체결함. 성과계약의 내용은 공공의료강화, 내부효율화, 경영개선과 관련됨
- 공공의료강화 40점, 내부효율화 20점, 경영개선 40점을 종합하여 각 지표별 구체적인 운영목표를 따로 정하여 달성률을 평가함

■ 원장 성과계약제

1) 성과지표

성과지표	세부지표	배점
공공의료강화	운영평가	10점
	외부고객 만족도	10점
	공익적 기능강화	10점
	표준진료지침(CP)	10점
내부효율화	내부고객 만족도	10점
	친절한 병원 만들기	10점
경영개선	신포괄수가제	10점
	전문의료진 확충	10점
	제도개선	10점
	공동구매	10점

2) 2017년 경영성과 목표 이행 실적

⇒ 원장이 해당 사업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운영목표는 따로 정함

성과지표	측정방법	'17년 성과목표	성과목표 이행 실적	비고 (달성률)
[공공성 강화]				
① 공공보건의료사업 확대	수혜인원	15,437명	14,728명(11월 말 기준)	95.4%
②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운영평가 결과점수	78.2점	80.9점	103.5%
③ 고객만족도 향상	고객 만족도점수	88.2점	88.5점(11월 말 기준)	100.3%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연인원	1,878명	1,712명(11월 말 기준)	91.2%
⑤ 응급의료 확충	선별진료소 확충	선별진료소 1실	선별진료소 1실	100.0%
[내부효율화 개선]				
① 단체협약 개정	단체협약 개정	1개 조항	2개조항 (인사위원 당연직→위촉직 기본진찰료 의료수가 50%→ 본인부담50%)	200.0%
[경영개선]				
수익증대	수익	34,665 백만원	26,949백만원(11월 말 기준)	77.7%
① 신포괄지불제도 효율적 운영	입원환자당수익	186천원	191천원	102.7%
②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건강증진센터 수익	1,776 백만원	1,458백만원(11월 말 기준)	82.1%
③ 장례식장 활성화	장례식장 수익	1,756 백만원	1,579백만원(11월 말 기준)	89.9%
비용절감	의료비용	33,015 백만원	26,566백만원(11월 말 기준)	80.5%
① 공동구매 확대	공동구매 품목수	5개 품목	5개 품목	100.0%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리더십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전년대비 큰폭으로 하락하였으나 모든 항목에 대하여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

표 3-47 리더십 만족도

연도	구분	비전설정 및 제시	비전 및 로드맵 제시	성취의욕 및 자신감 고취	다양한 경로와 매체 전달	변화와 혁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 모색	외부환경 변화의 능동적 대처
2016년	전체 평균	77.1	78.7	75.5	77.1	76.5	77.3	75.7
	남원의료원	77.9	80.5	75.7	77.4	76.7	78.2	75.2
2017년	전체 평균	78.3	79.8	77.0	78.2	77.8	78.5	77.1
	남원의료원	85.2	87.4	83.5	84.7	84.1	85.4	82.9
2018년	전체 평균	75.6	77.2	74.0	75.7	74.7	75.7	73.7
	남원의료원	78.5	80.2	76.3	79.1	78.0	77.9	78.2
연도	구분	경청 및 정보공개	의견 경청 및 긍정적 자세	경영 정보의 공개 및 공유	동기부여	즐거운 조직분위기 선도	술선수범	칭찬 및 격려를 통한 동기부여
2016년	전체 평균	73.7	73.4	74.1	73.7	73.0	74.4	73.6
	남원의료원	76.0	75.2	76.7	73.8	73.5	74.2	73.6
2017년	전체 평균	75.4	74.9	75.9	74.8	74.2	75.4	74.9
	남원의료원	83.3	83.4	83.2	82.1	82.5	82.6	81.2
2018년	전체 평균	73.4	72.8	74.0	72.2	71.9	72.2	72.5
	남원의료원	77.0	75.9	78.1	75.0	74.2	75.7	75.0
연도	구분	조직관리	공정한 인사평가	직원들 업무수행 역량 개발	의사결정 합리적	의사결정 신속성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	리더십 만족도
2016년	전체 평균	72.9	70.9	74.1	72.3	74.0	73.2	74.4
	남원의료원	74.0	71.9	76.1	73.7	74.5	73.7	75.6
2017년	전체 평균	74.3	72.4	75.3	73.9	75.4	74.5	75.4
	남원의료원	82.0	79.3	82.3	83.1	82.9	82.4	83.1
2018년	전체 평균	72.1	70.8	73.6	71.6	72.6	71.7	73.0
	남원의료원	75.2	73.3	76.7	75.7	76.0	74.5	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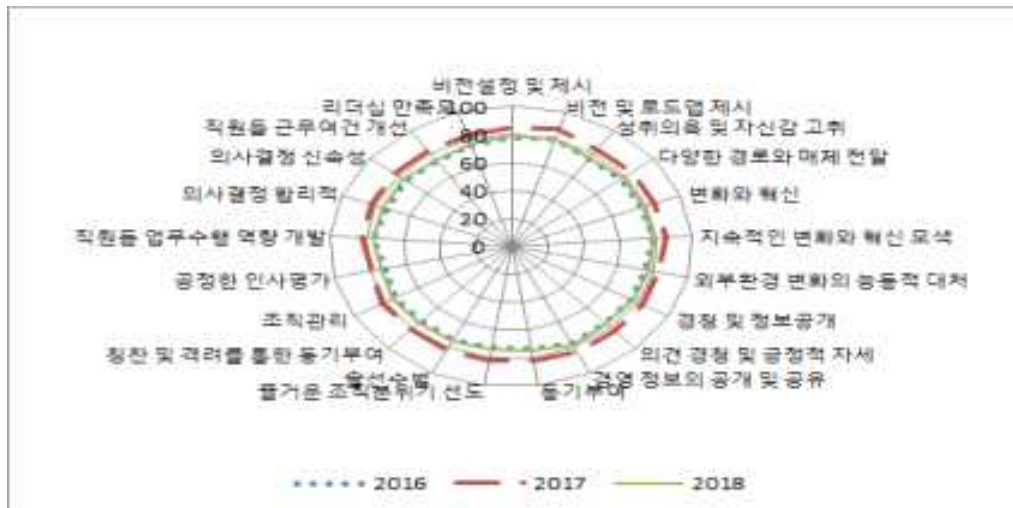


그림 3-9 리더십 만족도

4.4 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1) 인사고과와 승진

- 직원 근무성적을 매년 12월에 평가하고 있음
 - 평정은 피평정자의 직무를 기준으로 하며 각 평정 요소별로 직무가 요구하는 기준에 대한 충정의 정도를 파악함
- 승진 기준은 근무성적, 경력, 연수성적, 상벌성적 등이며 승진서열명부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실시함. 승진하기 위한 최소 경과 년수는 상위급 일수록 길며 최소 1.5년에서 최대 3년임
- 2016년 63명, 2017년 15명, 2018년 10월 기준 9명으로 승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

표 3-48 제규정(승진원칙, 승진방법, 최소 경과 년수)

구분	내용	
승진 원칙	- 4급 이하 직원의 승진 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 경력, 연수성적, 상벌성적 등을 기준으로 한 승진서열 명부를 작성 활용	
승진 방법	- 4급 이하 직원은 승진서열명부상의 5배수 범위 내에서 승진 실시	
최소 경과 년수	해당 계급 재직 3년 이상	4급 이상, 5급, 6급
	2년 이상	7급
	1.5년 이상	8급, 9급

2) 임금 및 성과관리

가. 연봉제

- 남원의료원의 원장, 의사, 약사직, 관리부장, 과장, 팀장은 연봉제를 적용받고 있음

표 3-49 평균 임금

구분	평균임금 범위
원장, 의사, 약사직, 관리부장, 과장, 팀장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

나. 성과급

- 원장과 의사직을 제외하고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음
- 의사는 연봉 계약 시 정한 실적 기준을 상회했을 때에만 성과급이 지급됨

3) 보상관리 및 복리후생제도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평가와 보상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전체평균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전년 대비 큰폭으로 하락함. 공정한 인사평가,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성 등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5점 이상 하락함

표 3-50 평가와 보상 만족도

연도	구분	평가와 보상	공정한 인사평가	능력과 실적에 따른 공정성	복리후생 제도	복리후생 제도 공평하게 적용	전반적 만족도
2016년	전체 평균	69.5	69.9	66.7	68.6	72.9	68.5
	남원의료원	67.2	68.5	63.1	66.9	70.4	65.4
2017년	전체 평균	70.2	70.7	67.1	69.4	73.5	69.0
	남원의료원	76.7	77.4	73.5	76.4	79.4	74.8
2018년	전체 평균	70.4	71.0	67.6	69.6	73.4	68.5
	남원의료원	71.4	71.9	68.8	70.3	74.6	69.6



그림 3-10 평가와 보상 만족도

4) 인력 관리 실태

- 직종별 근속기간을 보면 사무직이 22년으로 가장 길고 의사직이 7년 11개월로 가장 짧음. 사무직에서 신규직원은 1-2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임

표 3-51 직종별 근속기간 (2018년 6월)

직종	근속기간
의사직	7년 11개월
약사직	21년 9개월
간호직	12년 10개월
보건직	19년 5개월
사무직	22년 0개월
시설관리직	16년 1개월
간호조무직	20년 2개월

- 19개의 보직 중 의사직이 맡은 보직은 진료부장, 공공의료사업부장, 응급의료 센터장, 건강증진 센터장, 감염병 센터장이고, 사무직-보건직의 순임

표 3-52 보직 현황

보직	직종	겸임 여부	겸임 시 본 소속
원 장	사무직		
경 영 지 원 실 장	사무직		
진 료 부 장	의사직	겸임	흉부외과
관 리 부 장	사무직		
공 공 의 료 사 업 부 장	의사직	겸임	외과
응 급 의 료 센 터 장	의사직	겸임	응급의학과
건 강 증 진 센 터 장	의사직	겸임	가정의학과
감 염 병 센 터 장	의사직	겸임	호흡기내과
약 제 과 장	약사직		
간 호 과 장	간호직		
영 상 의 학 팀 장	보건직		
물 리 치 료 팀 장	보건직		
진 단 검 사 팀 장	보건직		
기 획 총 무 팀 장	사무직		
경 리 팀 장	사무직		
원 무 심 사 팀 장	사무직		
시 설 부 대 팀 장	사무직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팀장	사무직		
감 염 관 리 팀 장	간호직		

4.5 협력 관계의 실효성

1) 모자병원 및 협약 체결 기관

- 협약 체결 기관은 한양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모자병원, 예수병원 등 14개 병원이며, 전북대학교병원모자병원과는 2017년 185건, 2018년 175건의 전원이 이루어짐

표 3-53 모자병원 및 협약 체결 기관 현황

협약기관명	협약체결일	2017년	2018년
한양대학교의료원	2001-12-15		
아주대학교병원	2004-09-01		
전북대학교병원(모자병원)	2005-08-01	185	175
예수병원	2005-12	7	1
원광대학교병원	2006-04-25		
세브란스병원	2006-10-30	1	
삼성서울병원	2007-04-17	4	
서울아산병원	2009-04-27		
김천의료원	2012-06-22		
원광대학교병원	2016-05-02		
대자인병원	2016-06-09	4	8
서울대학교병원	2017-07-19		
조선대학교병원	2017-08-03		1
고려대학교안산병원	2018-07-01		

5. 경영성과

5.1 진료 실적

1) 재원연인원, 외래환자수

- 외래환자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보다 높으며, 재원연인원은 평균보다 낮음

표 3-54 연도별 재원연인원, 외래환자수 추이

단위 : 명

구분	남원의료원 재원연인원	재원연인원 지역거점공공 병원 평균	재원연인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남원의료원 외래환자수	외래환자수 지역거점공공 병원 평균	외래환자수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95,290	78,047	63,636	171,916	154,275	153,843
2014년	87,386	79,325	63,812	166,824	169,131	158,579
2015년	77,416	78,083	64,202	161,136	166,862	158,469
2016년	85,183	79,971	66,980	175,068	182,061	172,143
2017년	77,331	79,851	67,374	181,864	180,966	176,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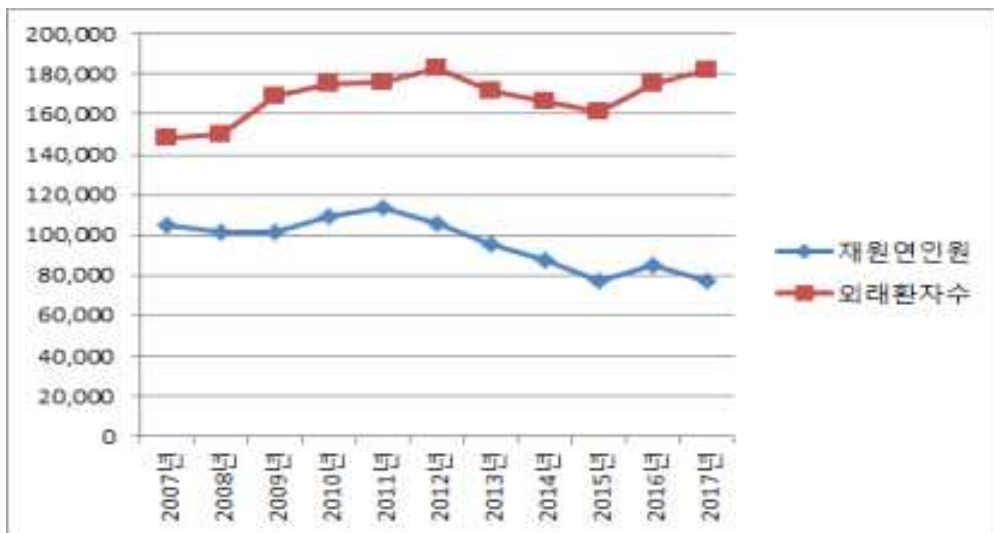


그림 3-11 연도별 재원연인원, 외래환자수 추이

2)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과 비교대상병원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표 3-55 연도별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외래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

단위 : 원

구분	남원의료원 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입원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남원의료원 외래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외래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외래환자 1인1일당 평균진료비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148,986	144,419	147,275	46,460	38,723	38,142
2014년	155,531	154,136	157,994	46,968	40,026	39,690
2015년	167,427	169,009	175,695	50,165	41,156	40,166
2016년	176,439	186,523	192,706	51,419	42,584	42,941
2017년	187,464	201,572	207,128	53,970	47,737	45,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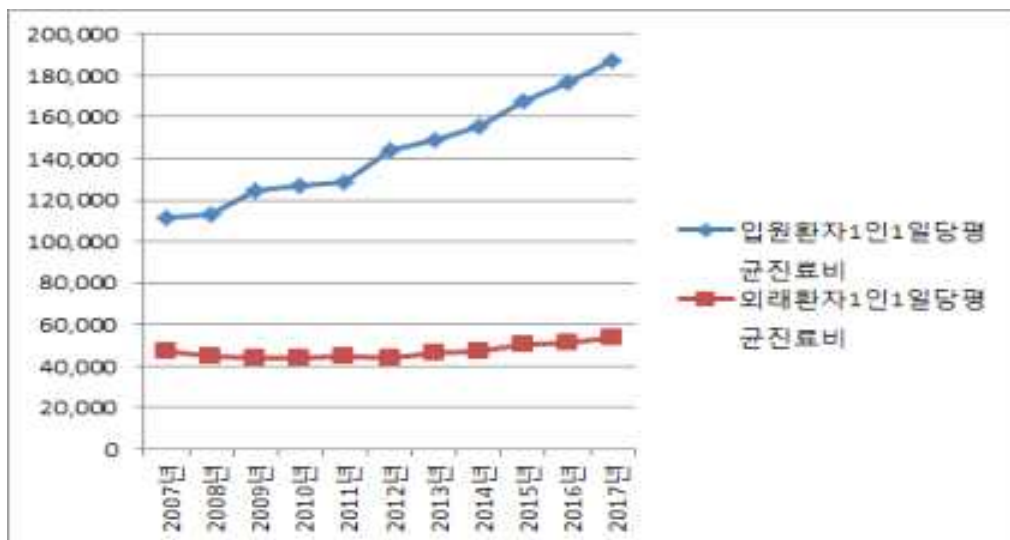


그림 3-12 평균진료비

3) 병상이용률

- 2017년 병상이용률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 비교대상병원 평균보다 낮은 수준임

표 3-56 연도별 병상이용률 추이

단위 : %

구분	남원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평균
2012	82.5	83	85.8
2013	75.6	86.1	87.3
2014	80	86.1	87.1
2015	73.5	85.4	86.1
2016	80.1	82.9	84.5
2017	76.5	81.7	82.8

* 출처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2013~2017)

- 병상이용률 : $\frac{\text{입원연인원}}{\text{지자체 신고병상수} \times 365} \times 100$

* 2012~2015년 병상이용률 : 가동병상수, 2016년 : 허가병상수(지자체신고병상수) 적용

* 2016년 : 366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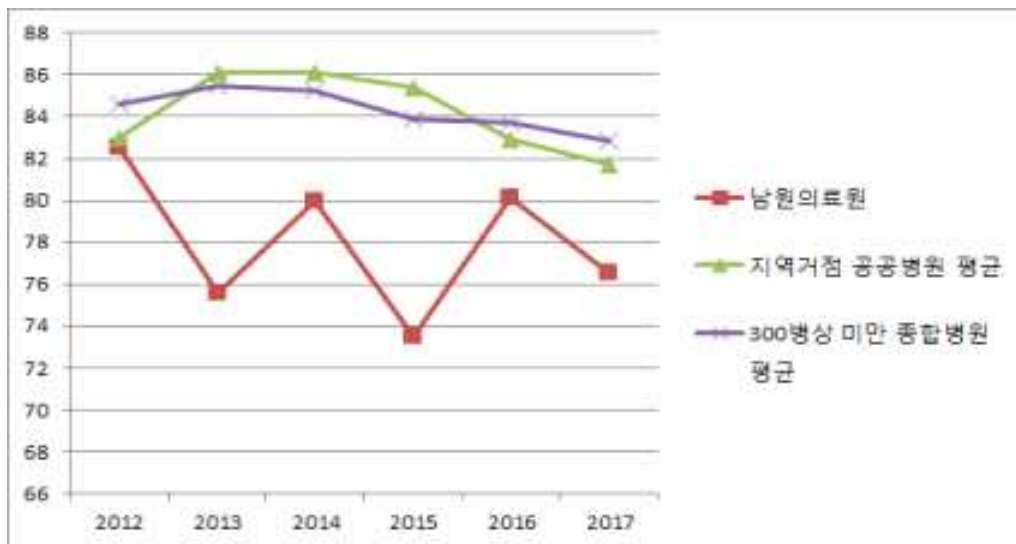


그림 3-13 병상이용률

5.2 경영 실적

1) 의료수익, 의료비용

- 의료수익은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보다는 높고,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보다는 낮음. 의료비용은 비교대상 병원,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보다 높음

표 3-57 연도별 의료수익, 의료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남원의료원 의료수익	의료수익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의료수익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남원의료원 의료비용	의료비용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의료비용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24,223	19,805	16,553	28,007	24,610	20,137
2014년	23,553	21,279	17,636	27,201	25,990	21,167
2015년	23,047	22,403	18,992	29,170	27,013	22,466
2016년	26,021	25,490	21,814	27,505	27,984	23,398
2017년	26,378	27,572	23,884	30,588	30,253	25,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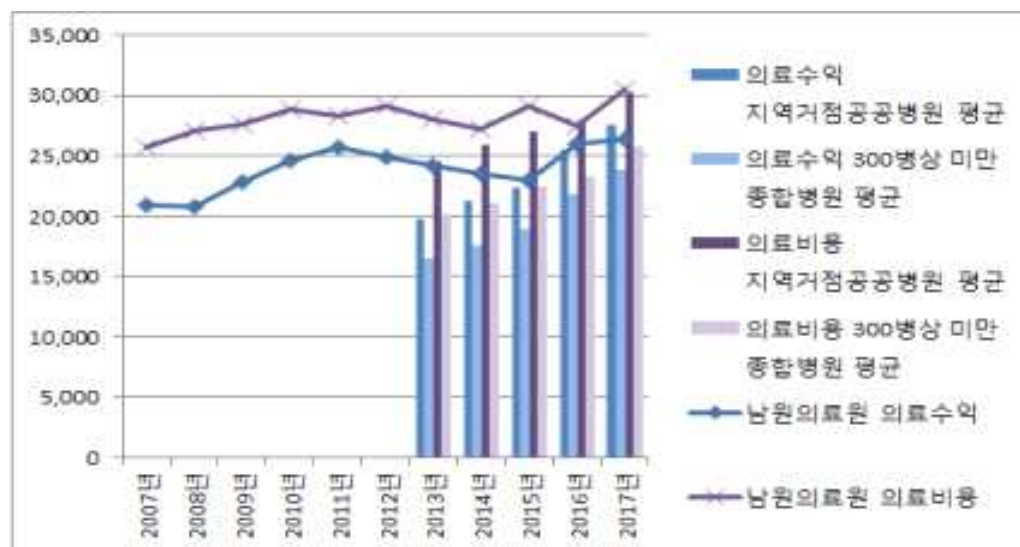


그림 3-14 의료수익

2)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 의료외수익은 34.8억원으로 의료외비용 15.9억원에 비해 크나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에 비해 적은 수준임

표 3-58 연도별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남원의료원 의료외수익	의료외수익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의료외수익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남원의료원 의료외비용	의료외비용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의료외비용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2,979	4,709	3,559	1,629	2,045	1,785
2014년	3,043	5,058	3,838	1,568	1,997	1,746
2015년	3,137	6,258	2,019	1,402	2,064	1,846
2016년	3,577	5,225	4,131	1,499	2,038	1,723
2017년	3,486	5,117	4,016	1,598	2,248	2,1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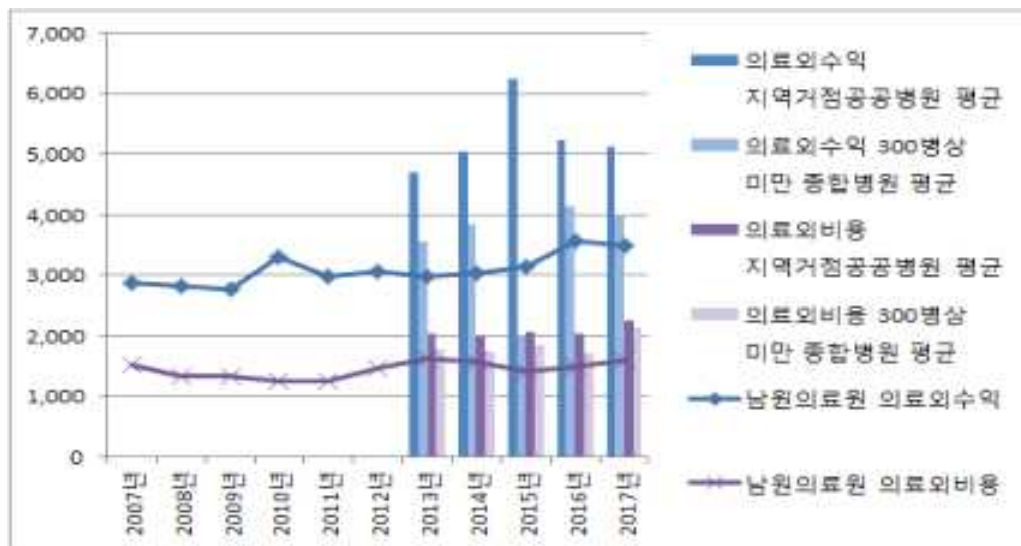


그림 3-15 의료외수익, 의료외비용

3) 경상수익, 경상비용

○ 경상수익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보다 낮고, 경상비용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과 비슷한 수준임. 지역경상수익보다 경상비용이 높음

표 3-59 연도별 경상수익, 경상비용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남원의료원 경상수익	경상수익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경상수익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남원의료원 경상비용	경상비용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경상비용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27,203	24,515	20,112	29,635	26,615	21,922
2014년	26,595	26,337	21,475	28,769	27,970	22,913
2015년	26,184	28,661	24,012	30,571	29,077	24,312
2016년	29,598	30,715	25,945	29,004	30,022	25,121
2017년	29,864	32,689	27,900	32,186	32,501	27,9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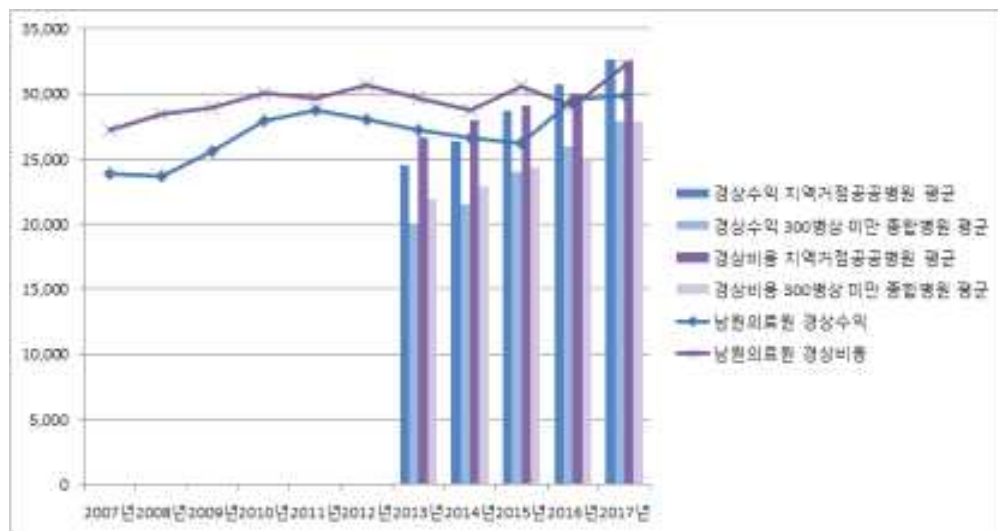


그림 3-16 경상수익, 경상비용

4) 당기순손익

- 2017년 기준으로 23억 이상 적자임

표 3-60 연도별 당기순손익 추이

단위 : 백만원

구분	남원의료원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당기순손익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2,433	-2,095	-1,801
2014년	-2,174	-1,624	-1,438
2015년	-4,387	-416	-301
2016년	594	318	430
2017년	-2,322	144	-1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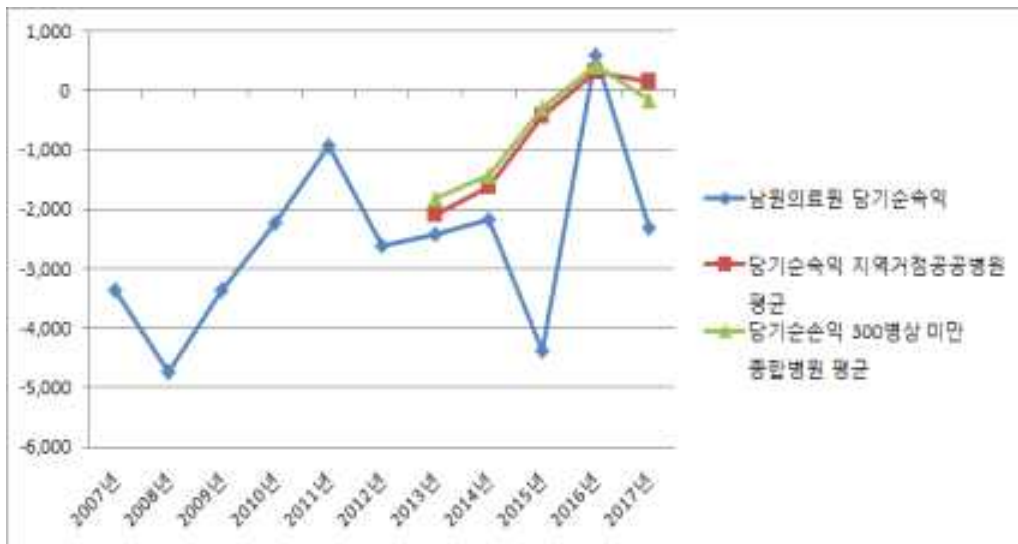


그림 3-17 당기순손익

5) 의료수지 비율

- 2017년 의료수지 비율이 지역거점공공병원,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음

표 3-61 연도별 의료수지 비율 추이

단위 : %

구분	남원의료원 의료수지비율	의료수지비율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의료수지비율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86.5	80.6	81.7
2014년	85.3	82.0	83.0
2015년	79	82.3	84.1
2016년	94.6	90.2	93.4
2017년	86.2	89.6	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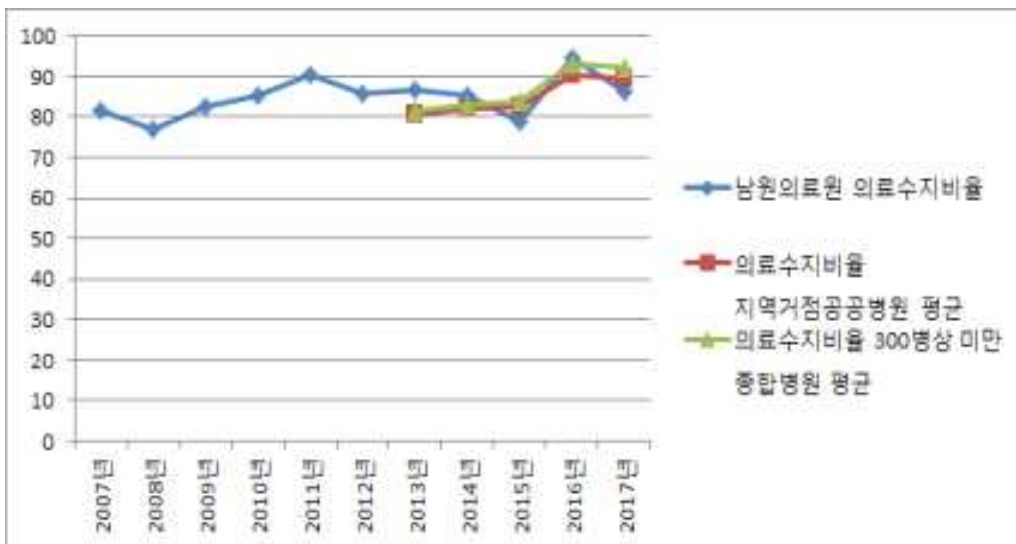


그림 3-18 의료수지비율

6) 경상수지비율

- 2017년 경상수지 비율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음

표 3-62 연도별 경상수지 비율

단위 : %

구분	남원의료원 경상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경상수지비율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91.8	92.1	91.7
2014년	92.4	94.5	93.9
2015년	85.7	98.4	98.5
2016년	102	102.1	103.8
2017년	92.8	99.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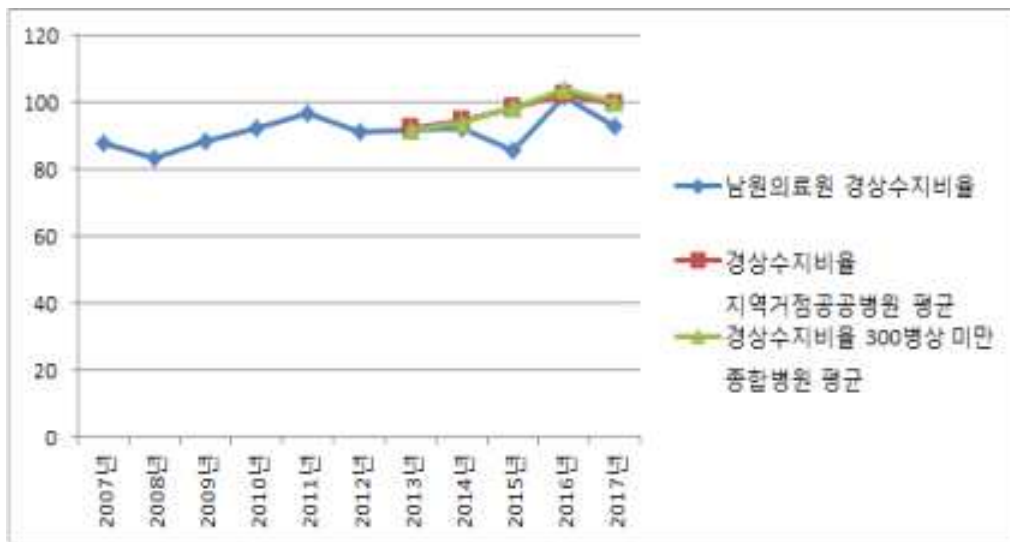


그림 3-19 경상수지 비율

5.3 인건비

1) 인건비 투자효율

- 2017년 인건비 투자효율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보다 낮음

표 3-63 연도별 인건비 투자효율

단위 : %

구분	남원의료원 인건비투자효율	인건비투자효율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인건비투자효율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107.8	97.4	99.5
2014년	108.5	100.6	102.0
2015년	95.3	101.4	104.8
2016년	109.4	105.6	109.6
2017년	98.5	104.1	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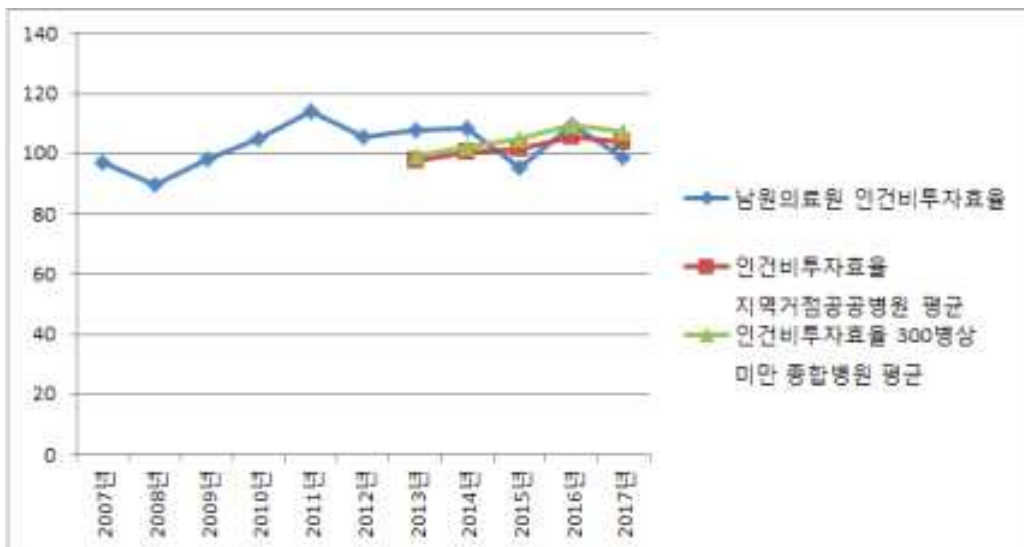


그림 3-20 인건비 투자효율

2)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 2017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보다 높음

표 3-64 연도별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단위 : %

구분	남원의료원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지역거점 공공병원 평균	의료수익대비인건비율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평균
2013년	67.7	69.8	69.2
2014년	67.9	68.7	68.4
2015년	75.9	71.5	67.2
2016년	67.4	67.7	65.2
2017년	75.8	70.0	6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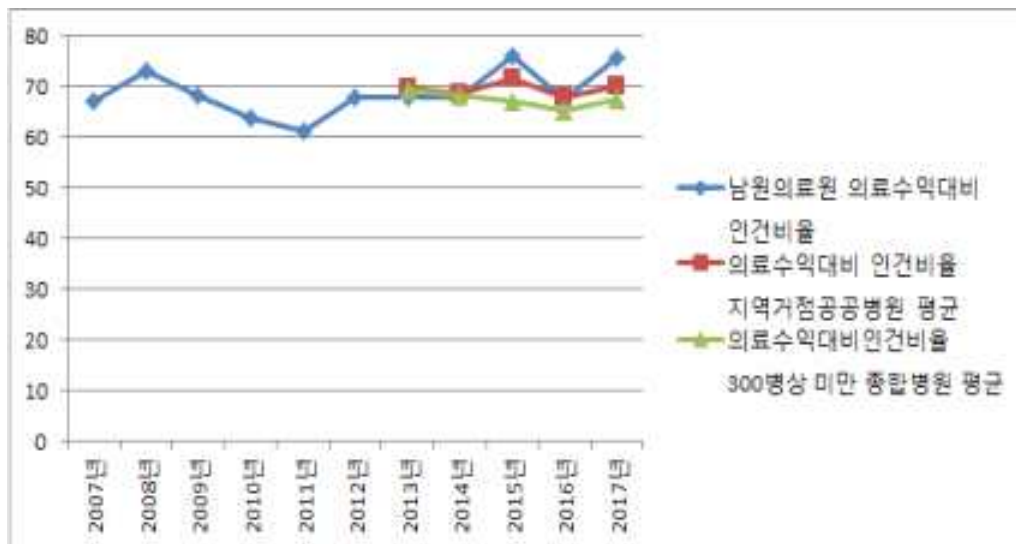


그림 3-21 의료수익대비 인건비율

3) 직종별 평균 임금

- 2017년 직종별 평균임금 중 의사직(전공의),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인건비가 높음. 2015년 임금테이블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자로 호봉이 올라가서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3-65 직종별 평균 임금(2017년 결산서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의사직 (봉직의)	의사직 (전공의)	의사직 (공보의)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남원의료원		210,181	68,113	29,837	59,902	49,457	51,595	50,421
전체평균		231,162	59,369	29,752	56,781	47,031	48,937	50,322
광역시 및 중소도시 소재(300병상 이상)		181,480	51,556	26,818	55,949	46,265	48,906	51,001
중소도시 소재(300병 상 이하)	A(200병상 이상 종합병원)	229,776	52,548	27,026	52,535	42,352	44,467	44,629
	B(200병상 이하 종합병원 & 병원)	231,963	72,399	22,781	53,946	48,855	50,081	52,850
의료취약지 소재		238,956	58,603	34,544	58,682	47,124	48,624	49,944

* 출처 : 2017 결산서 인건비 명세서(총액/연인원/365)

4) 인건비 테이블

- 남원의료원은 2015년 지방의료원 기준 기본급표를 17년도 인건비 테이블로 사용 중임

5.4 진료과별 의료수익 분석

1) 진료과별 의료수익 추이

- 내과와 정형외과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함
- 내과의 경우 2015년 28.7%의 비중을 차지하였지만, 2017년 16.9%로 감소함
- 2016년에 내분비내과와 신장내과, 영상의학과가 신설되었고, 2017년 신경과가 한과 추가됨

표 3-66 진료과별 의료수익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전체 계	23,046,958,221	-	26,020,914,031	-	26,377,951,138	-
내과(1)	3,928,868,640	17.0%	2,385,892,066	9.2%	2,017,426,456	7.6%
내과(2)	1,150,409,088	5.0%	1,212,549,136	4.7%	981,217,851	3.7%
내과(3)	1,012,838,578	4.4%	972,877,610	3.7%	842,545,094	3.2%
내과(4)	527,103,322	2.3%	625,065,080	2.4%	634,128,406	2.4%
호흡기내과	437,074,782	1.9%	660,986,400	2.5%	622,953,350	2.4%
내분비내과	-	-	406,281,950	1.6%	407,612,588	1.5%
신장	-	-	1,483,475,250	5.7%	1,557,968,720	5.9%
외과(1)	806,067,815	3.5%	793,679,300	3.1%	532,029,804	2.0%
외과(2)	764,582,940	3.3%	793,894,570	3.1%	631,884,688	2.4%
흉부외과	347,507,990	1.5%	391,321,090	1.5%	451,858,490	1.7%
신경외과(1)	463,488,159	2.0%	434,714,724	1.7%	301,923,400	1.1%
신경외과(2)	411,239,800	1.8%	805,464,950	3.1%	350,903,554	1.3%
정형외과(1)	2,535,785,854	11.0%	2,620,485,934	10.1%	2,896,057,389	11.0%
정형외과(2)	2,349,686,260	10.2%	2,632,683,160	10.1%	2,553,367,648	9.7%
소아청소년과	602,602,860	2.6%	962,983,720	3.7%	914,923,480	3.5%
치과(1)	78,245,632	0.3%	117,047,140	0.4%	125,996,950	0.5%
치과(2)	63,282,750	0.3%	14,277,590	0.1%	-	-
산부인과(1)	200,655,890	0.9%	188,906,280	0.7%	164,094,520	0.6%
산부인과(2)	243,664,240	1.1%	452,758,010	1.7%	530,787,270	2.0%
신경과(1)	707,720,662	3.1%	1,179,439,690	4.5%	1,004,227,860	3.8%
신경과(2)	-	-	-	-	409,140,474	1.6%
비뇨기과	390,057,026	1.7%	321,890,770	1.2%	347,620,768	1.3%
재활의학과	599,878,946	2.6%	605,798,280	2.3%	628,402,690	2.4%
안과	127,303,150	0.6%	168,893,473	0.6%	170,503,116	0.6%
가정의학과	593,724,928	2.6%	824,042,590	3.2%	813,426,220	3.1%
응급의학과	1,739,186,900	7.5%	2,070,708,510	8.0%	3,468,075,249	13.1%
정신건강의학과	412,347,310	1.8%	455,333,770	1.7%	541,256,736	2.1%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이비인후과	154,778,650	0.7%	145,205,200	0.6%	118,247,400	0.4%
통증의학과	370,911,960	1.6%	278,867,680	1.1%	269,328,220	1.0%
뷰티클리닉	25,825,018	0.1%	25,854,171	0.1%	16,076,185	0.1%
영상의학과	-	-	45,160	0.0%	7,955,020	0.0%
기타의료수익	2,002,119,071	8.7%	1,989,490,777	7.6%	2,066,011,542	7.8%

2) 진료과별 입원수익 추이

- 주로 수익을 내는 내과는 2015년 30.0%에서 21.8%로 감소하였고, 정형외과도 32.3%에서 32.1%로 감소하였음
- 외과는 6.5%, 응급의학과는 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67 진료과별 입원수익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전체 계	12,961,497,487	-	15,029,611,780	-	14,496,767,972	-
내과(1)	1,959,991,130	15.1%	1,861,744,926	12.4%	1,489,911,246	10.3%
내과(2)	825,614,278	6.4%	884,467,696	5.9%	695,427,768	4.8%
내과(3)	782,607,958	6.0%	727,856,380	4.8%	582,619,164	4.0%
내과(4)	326,172,682	2.5%	415,545,270	2.8%	396,443,426	2.7%
호흡기내과	301,158,882	2.3%	476,696,740	3.2%	434,087,040	3.0%
내분비내과	-	-	265,190,730	1.8%	212,969,448	1.5%
신장	-	-	59,159,810	0.4%	49,628,600	0.3%
외과(1)	670,520,850	5.2%	641,326,020	4.3%	417,995,214	2.9%
외과(2)	662,498,510	5.1%	675,689,310	4.5%	526,732,658	3.6%
흉부외과	319,092,670	2.5%	359,007,020	2.4%	411,287,110	2.8%
신경외과(1)	286,154,149	2.2%	321,012,024	2.1%	202,944,300	1.4%
신경외과(2)	335,002,670	2.6%	602,211,790	4.0%	222,623,584	1.5%
정형외과(1)	2,195,758,904	16.9%	2,227,555,964	14.8%	2,472,903,782	17.1%
정형외과(2)	2,001,331,340	15.4%	2,262,725,650	15.1%	2,174,097,378	15.0%
소아청소년과	432,690,600	3.3%	645,522,250	4.3%	567,962,240	3.9%
치과(1)	6,881,762	0.1%	10,394,300	0.1%	1,177,810	0.0%
치과(2)	4,202,780	0.0%	290,430	0.0%	-	-
산부인과(1)	121,482,690	0.9%	103,438,970	0.7%	88,876,430	0.6%
산부인과(2)	148,514,360	1.1%	288,629,800	1.9%	348,083,030	2.4%
신경과(1)	222,365,042	1.7%	679,690,860	4.5%	583,836,720	4.0%
신경과(2)	-	-	-	-	230,229,824	1.6%
비뇨기과	88,402,076	0.7%	64,899,890	0.4%	68,419,628	0.5%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재활의학과	385,360,446	3.0%	373,459,880	2.5%	348,528,610	2.4%
안과	67,073,960	0.5%	81,650,970	0.5%	74,370,406	0.5%
가정의학과	318,376,838	2.5%	528,529,600	3.5%	540,829,390	3.7%
응급의학과	30,244,050	0.2%	124,433,210	0.8%	973,379,980	6.7%
정신건강의학과	82,742,210	0.6%	85,639,650	0.6%	125,558,816	0.9%
이비인후과	65,324,800	0.5%	30,627,970	0.2%	27,706,000	0.2%
통증의학과	321,931,850	2.5%	232,170,290	1.5%	221,059,820	1.5%
뷰티클리닉	-	-	-	-	-	-
영상의학과	-	-	44,380	0.0%	7,078,550	0.0%
기타의료수익	-	-	-	-	-	-

3) 진료과별 외래수익 추이

- 응급의학과 수익이 21.0%로 외래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내과는 2015년 27.0%에서 11.0%로 감소하였고, 정형외과는 6.9%에서 6.8%로 비슷한 수준임

표 3-68 진료과별 외래수익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금액(원)	비중(%)
전체 계	10,085,460,734	-	10,991,302,251	-	11,881,183,166	-
내과(1)	1,968,877,510	19.5%	524,147,140	4.8%	527,515,210	4.4%
내과(2)	324,794,810	3.2%	328,081,440	3.0%	285,790,083	2.4%
내과(3)	230,230,620	2.3%	245,021,230	2.2%	259,925,930	2.2%
내과(4)	200,930,640	2.0%	209,519,810	1.9%	237,684,980	2.0%
호흡기내과	135,915,900	1.3%	184,289,660	1.7%	188,866,310	1.6%
내분비내과	-	-	141,091,220	1.3%	194,643,140	1.6%
신장	-	-	1,424,315,440	13.0%	1,508,340,120	12.7%
외과(1)	135,546,965	1.3%	152,353,280	1.4%	114,034,590	1.0%
외과(2)	102,084,430	1.0%	118,205,260	1.1%	105,152,030	0.9%
흉부외과	28,415,320	0.3%	32,314,070	0.3%	40,571,380	0.3%
신경외과(1)	177,334,010	1.8%	113,702,700	1.0%	98,979,100	0.8%
신경외과(2)	76,237,130	0.8%	203,253,160	1.8%	128,279,970	1.1%
정형외과(1)	340,026,950	3.4%	392,929,970	3.6%	423,153,607	3.6%
정형외과(2)	348,354,920	3.5%	369,957,510	3.4%	379,270,270	3.2%
소아청소년과	169,912,260	1.7%	317,461,470	2.9%	346,961,240	2.9%
치과(1)	71,363,870	0.7%	106,652,840	1.0%	124,819,140	1.1%
치과(2)	59,079,970	0.6%	13,987,160	0.1%	-	-
산부인과(1)	79,173,200	0.8%	85,467,310	0.8%	75,218,090	0.6%
산부인과(2)	95,149,880	0.9%	164,128,210	1.5%	182,704,240	1.5%
신경과(1)	485,355,620	4.8%	499,748,830	4.5%	420,391,140	3.5%
신경과(2)	-	-	-	-	178,910,650	1.5%
비뇨기과	301,654,950	3.0%	256,990,880	2.3%	279,201,140	2.3%
재활의학과	214,518,500	2.1%	232,338,400	2.1%	279,874,080	2.4%
안과	60,229,190	0.6%	87,242,503	0.8%	96,132,710	0.8%
가정의학과	275,348,090	2.7%	295,512,990	2.7%	272,596,830	2.3%
응급의학과	1,708,942,850	16.9%	1,946,275,300	17.7%	2,494,695,269	21.0%
정신건강의학과	329,605,100	3.3%	369,694,120	3.4%	415,697,920	3.5%
이비인후과	89,453,850	0.9%	114,577,230	1.0%	90,541,400	0.8%
통증의학과	48,980,110	0.5%	46,697,390	0.4%	48,268,400	0.4%
뷰티클리닉	25,825,018	0.3%	25,854,171	0.2%	16,076,185	0.1%
영상의학과	-	-	780	0.0%	876,470	0.0%
기타의료수익	2,002,119,071	19.9%	1,989,490,777	18.1%	2,066,011,542	17.4%

4) 의료외손익 구조

가. 의료외수익/비용/손익 추이

- 의료외수익이 2014년 33.3억원에서 2017년 29.8억원으로 감소하고, 의료외비용이 15.1억원에서 14.7억원으로 감소하여 의료외손익이 15.3억원임

표 3-69 의료외수익, 비용, 손익 내역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의료외수익	3,336,531,115	4,083,965,431	2,980,017,221
의료부대수익	1,781,908,080	1,627,990,200	1,718,170,080
수탁사업수익	0	0	0
이자수익	4,655,407	7,964,699	2,172,801
임대료수익	110,036,000	106,390,000	103,090,000
기부금수익	1,010,166,970	2,203,514,288	1,047,541,200
잡이익	429,764,658	138,106,244	109,043,140
의료외비용	1,517,854,316	1,571,653,811	1,447,190,489
의료부대비용	1,131,839,266	1,137,541,118	1,161,579,797
이자비용	333,202,190	267,120,000	261,120,000
기부금	-	5,000,000	3,000,000
잡손실	52,812,860	161,992,693	21,490,692
의료외손익	1,818,676,799	2,512,302,620	1,532,826,732

6. 시설 및 장비

6.1 시설개요

1) 건축개요

- 남원의료원은 1999년에 개원하였고, 2006년 신장투석실 및 치매주간보호센터 확장이전함. 2015~2017년 본관 외래부 리모델링 공사 중임. 2018년 격리병상, 응급의료, 분만서비스, 중환자실, 수술실 및 지원시설 확충하고 있음. 본관건물은 지하3층, 지상 8층이며 연면적은 41,134㎡ 규모임



그림 3-22 남원의료원 전경

- 건폐율은 9.35%(법정 20% 이하), 용적률은 39.27%(법정 100% 이하)로 법정 기준 대비 추가 건물 건축에 여유가 있음

표 3-70 건축 개요

구분		현재	비고
대지위치		전라북도 남원시 충정로 365	-
최초 개원연도		1921년	-
건축연도		1999년	-
지역, 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지구	-
대지면적		110,899㎡	-
건축면적(건폐율)		8,067.68㎡(9.35%)	법정 20%
연면적 (용적률)	지상	29,880.75㎡	-
	지하	11,236.99㎡	-
	계	41,117.74㎡(39.27%)	법정 100%
조정면적			해당없음
주차대수		578대	법정 258대

2) 동별 개요 및 건축연도

- 부지 내 주요 건물로 5개동(본관, 기숙사 가나다동, 장례식장)이 위치함
- 본관은 건축경과연수가 18년이며 현재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음

표 3-71 동별 개요('17.12 기준)

구분	건물명	층수	연면적(㎡)	건축연도	리모델링연도	경과연수 (리모델링기준)
1	본관	지상8층/지하3층	34,015.92㎡	1987	1999	18년
2	기숙사 가동 (의사숙소)	지상3층/지하1층	2462.13㎡	1999	-	18년
3	기숙사 나동 (의사숙소)	지상3층/지하1층	1267.76㎡	1999	-	18년
4	기숙사 다동 (간호사 숙소)	지상2층	412.32㎡	2007	-	11년
5	장례식장	지상2층/지하1층	2611.72㎡	2006	-	12년

6.2 필수 의료시설

1) 필수시설 설치

-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급성기 진료에 필수적인 시설과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안내에서 제시하는 필수의료시설(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음압격리병실, 호스피스 병동)을 기준으로 남원의료원의 시설 설치 여부를 보면 음압격리병실이 미설치 됨

표 3-72 필수 의료시설 설치 여부

구분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음압격리병실	호스피스병동
설치유무	○	○	응급의료센터	○	×	○

* 출처 : 의료원 현황 자료

2) 병상규모

- 남원의료원의 허가병상 수('17.12 기준)는 274병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 평균 병상수(258.4병상, '17.12 기준)의 106.1% 수준임
- 남원의료원의 병상이용률은 '17년 기준 99.9%로 지방의료원 전체 평균(87.6%) 및 유사규모(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평균(85.4%) 대비 각각 12.3%, 14.5% 높음

표 3-73 허가병상수 및 병상이용률

구분	병원명	병상수	병상이용률('17)
대상기관	남원의료원	274	99.9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	전체 평균	258.4	87.6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512.4	85.4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218.5	88.3
	병원	146.7	87.2

* 출처 : 결산서

6.3 건물 면적

1) 의료시설 면적

가. 병상 당 연면적

- 남원의료원의 병상 당 의료시설 연면적은 124.1m² 임
- 이는 지방의료원 평균(병상당 연면적 76.3m²)보다 넓음

표 3-74 의료시설 연면적 비교

구분	병원명	병상수	의료시설 연면적(m ²)	병상 당 연면적(m ²)	비고
대상기관	남원의료원	274	34,015.92	124.1	
지방의료원 평균	전체 평균	258.4	19,719.1	76.3	
최근신축병원	충주의료원	300	23,882.0	79.6	'14년 완공
	마산의료원	300	22,169.9	73.9	'16년 완공
	공주의료원	362	25,522.0	79.0	'16년 완공
	영주적십자병원	152	14,505.0	95.4	'17년 완공
	평균	278.5	21,519.7	81.9	

* '17.12 기준, 단, 최근 신축병원 병상수는 신축완공 당시 기준

** 의료시설 연면적은 장례식장, 기숙사 및 옥내주차장을 제외한 전체 면적

*** 출처 : 각 의료원 제출 자료, 영주적십자병원은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BTL 시설사업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2) 자료

나. 주요 진료시설 규모

- 남원의료원의 주요 의료시설은 수술실 3개, 중환자실 8병상, 응급실 20병상, 주사실 6병상, 물리치료실 26병상임
- 지방의료원 평균과 비교 시 남원의료원은 응급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의 병상(실) 수가 적음

표 3-75 주요 진료시설 규모

구분	병원명	수술실 (실수)	중환자실 (병상수)	응급실 (병상수)	분만실 (실수)	인공신장실 (병상수)	주사실 (병상)	물리치료실 (병상)
대상기관	남원의료원	3	8	20	1	30	6	26
지방의료원 평균	전체 평균	3.5	13.5	14.9	1.9	21.1	6.9	15.6
최근신축병원	충주의료원	5	12	10	-	21	5	14
	마산의료원	5	15	15	1	30	18	18
	공주의료원	6	12	20	1	25	1	19
	영주적십자병원	3	10	10	2	10	5	9
	평균	4.8	12.3	13.8	1	21.5	7.3	15

* '17.12 기준

** 지방의료원 평균은 설치기관 수 기준

*** 출처 : 각 의료원 제출 자료, 영주적십자병원은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BTL 시설사업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2) 자료

2) 부대시설

가. 간호사 기숙사

- 남원의료원은 간호사 기숙사가 설치되어 있음
- 전체 지방의료원(34개소)중에서 간호사 기숙사는 27개소(79.4%), 의사숙소는 20개소(58.8%)에 설치되어 있음

표 3-76 기숙사 규모 비교

구분	병원명	수용률				기숙사 면적	
		간호사수	실 수	최대 수용 인원(명)	수용 가능 비율(%)	면적(㎡)	수용인원 당 면적(㎡)
대상기관	남원의료원	116	16	32	50	412.32	12.9
지방의료원 평균	전체 평균	132	17	36	56	1,241.3	34.5
최근신축병원	충주의료원	148	16	38	25.7	969.0	25.5
	마산의료원	137	50	50	36.5	1,557.0	31.1
	공주의료원	111	38	73	65.7	1,690.8	23.2
	영주적십자병원	78	36	50	65.0	1,796	35.9
	평균	118.5	35.0	52.7	44.5	1,503.2	28.9

* '17.12 기준

** 지방의료원 평균은 설치기관 평균(미설치기관 제외)

*** 의사숙소를 제외한 간호사 기숙사 기준

**** 출처 : 각 의료원 제출 자료, 단, 영주적십자병원의 간호사수는 「영주적십자병원 개설 및 운영효율화 방안 연구」(삼정KPMG, 2016), 영주적십자병원 및 공주의료원 수용률 및 면적은 기숙사 증축 기본설계 자료

나. 장례식장

- 전체 지방의료원(34개소) 중 장례식장은 34개소(100%)에 설치되어 있음
- 남원의료원 장례식장은 6개의 분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분향실 당 연면적은 444.3㎡임

표 3-77 장례식장 면적 비교

구분	병원명	면적(㎡)	분향실수	분향실 당 면적(㎡)
대상기관	남원의료원	2,665.72	6	444.3
지방의료원 평균	전체 평균	2,148.6	6	358.1
최근신축병원	충주의료원	2,403.5	7	343.4
	마산의료원	4,508.5	7	644.0
	공주의료원	1,749.0	6	291.5
	영주적십자병원	791.9	4	197.9
	평균	2,363.23	6.0	369.2

* '17.12 기준

** 지방의료원 평균은 설치기관 평균

*** 출처 : 각 의료원 제출 자료, 영주적십자병원은 「영주적십자병원 신축 BTL 시설사업기본계획」(보건복지부, 2012) 자료(순면적에 공용면적 비를 추가한 면적), 마산의료원은 현재 증축 중인 장례식장 기본설계 자료

6.3 의료장비 노후도

- 남원의료원의 의료장비 경과연수 5년 이하 비율은 27% 임
- 경과연수 5년 초과 노후장비 비율은 73%로 이를 세분화 하면 경과연수 6~7년 9.2%, 8~10년 25%, 10년 초과 39%로 10년 초과 노후장비가 가장 많음
- 남원의료원의 경과연수 5년 초과 노후장비 비율(73%)은 전체 지방의료원 평균(56.5%) 대비 높아 장비가 노후함
- 단가 2,000만원 이상 고가 의료장비 또한 남원의료원의 경과연수 비율은 5년 이하 58%, 6~10년 21.9%, 10년 초과 20%로 지방의료원 평균(5년 이하 46%, 10년 초과 20.7%) 대비 양호함

표 3-78 의료장비 경과연수 비율(%)

구분		남원의료원	지방의료원 전체평균
병원전체 의료장비	경과연수 5년 이내	27.0	43.5
	경과연수 6~7년	9.2	14.3
	경과연수 8~10년	25.0	18.4
	경과연수 10년 초과	39.0	23.7
단가 2000만원 이상 보유장비	경과연수 5년 이내	58.0	46.0
	경과연수 6~7년	8.9	16.1
	경과연수 8~10년	13.0	17.2
	경과연수 10년 초과	20.0	20.7

* '17.12 기준

** 경과연수 5년 이내('13~'17년 구매), 경과연수 6~7년('11~'12년 구매), 경과연수 8~10년('08~'10년 구매), 경과연수 10년 초과('08년 이전 구매)

*** 출처 : 각 의료원 제출 자료

6.4 의료장비 활용 현황

- 의료장비 활용 저조장비('17년 기준 200건 이하)는 11종임. 이중에서 활용건수 연 100건 이하 장비는 신생아 청력검사기, 백내장 수술장치 등 7종임
- 진료부서별로 보면 안과가 5종(100건 이하 4종, 200건 이하 1종)으로 가장 많음

표 3-79 활용 저조 장비 목록 (2017년)

부서명	활용 저조 장비(구입연도)	
	100건 이하	200건 이하
신생아실/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청력검사기(2016)	-
신경과	근전도 및 유발전위검사기(2009)	-
안과	백내장수술장치(2015)	자동각막곡률굴절검사기(2015)
	각막내피세포측정기(2015)	-
	안고용 레이저수술기(2015)	-
	인공수정체도수측정기(2015)	-
작업치료실	-	Minnesota Manual Dexterity Test(2009)
온열전기치료실	Cervical Traction Unit(1999,2009)	Cryo Therapy Unit(1999)
	-	Lumbar Traction Unit (1999,2009)

* 2017년 12월 기준

** 출처 : 병원제출 자료 분석

6.5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 규정

- 보건복지부의 「지역거점공공병원 의료장비 심의 및 관리지침」('16.02)에 따라 의료장비 구매 시 심의위원회 심의 및 평가, 의료장비 도입 시 검수 및 관리라벨 부착, 관리대장 작성, 장비 활용 및 예방점검, 폐기 시 심의 등 의료장비 제반 관리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함
- 남원의료원은 의료장비 예방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고, 활용점검도 연4회 실시하고 있음

표 3-80 의료장비 구매관리 준수 여부 (2017년)

구분			내용	
1	의료장비 심의위원회 운영실적	의료장비 구매 심의 비율	연간 총 구매 장비수	-
			심의위원회 검토 구매 장비수	-
			심의 비율	-
		의료장비 폐기 심의 비율	연간 총 폐기 장비수	1 대
			심의위원회 검토 폐기 장비수	1 대
			심의비율	100%
2	의료장비 관리 점검 실적	의료장비 예방점검 실시	의료장비 위험도 관리등급 분류	예
			정기 예방점검 실시 횟수	연 2회
		의료장비 활용점검 실시	활용점검 실시 횟수	연 4회

* 출처 : 2018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제4장 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원

1. 전라북도의 산하 의료원 관리지원

1.1 전라북도 의료원 현황

1) 전라북도 의료원 개요

- 전라북도 산하에 군산, 남원 2개 의료원을 운영 중임

표 4-1 전라북도도 산하 의료원 현황 (단위 : 개)

구분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설립연도	1922년	1921년
종별	종합병원	종합병원
허가 병상	420	274
응급의료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개설 진료과목	23	19
수련병원 지정	인턴, 레지	인턴, 레지

2) 운영평가 결과로 본 전라북도 의료원의 현황

- 최근 3년간('16~'18) 전라북도 2개 의료원의 운영평가 점수는 78.6점, 80.9점, 76.2점으로 평균(72.6점, 75.3점, 75.2점) 보다 높았음

표 4-2 '14~'18년 운영평가 결과

병원명	전체		양질의 의료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합리적 운영		책임 운영	
	평균	전라북도	평균	전라북도	평균	전라북도	평균	전라북도	평균	전라북도
2016	72.6	78.6	67.5	75.0	76.0	80.2	67.0	70.7	81.0	91.5
2017	75.3	80.9	68.0	77.3	78.0	75.8	75.0	85.3	79.0	85.3
2018	75.2	76.2	68.3	72.5	82.7	78.2	76.5	76.3	73.5	78.5

* 출처 : 2016~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결과

3)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 2017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전라북도는 5대 추진 전략의 세부과제별 평가결과 '보통' 3개, '미흡' 2개로 평가되었음

추진전략 1: 지역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체계 구축

①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 취약지를 파악하여 지원 사업을 모색하였음
- 분만취약지에 대한 지원방안은 있으나, 응급의료취약지에 대한 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음
- 분만의료취약지 개선을 위한 인력지원, 체계 구축활동은 포함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연계/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임
- 취약지에 대한 지원 활동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도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은 부족해 보임

-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협력/지원체계 개발 필요함
- 운영성과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려는 활동이 추가되어야 할 것임
- 목표치 설정의 합리적인 근거 제시가 미흡하며, 실적 지표 점검에만 치중하고 수행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부족함
- 활동 내용이외의 목표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 개발 필요함

②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지원

- 의료진에 대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개발 권장함
- 장기적 병원 발전방안과 병원별 인력의 기초통계가 제시되지 않아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움. 정책적 목표 대비 현재의 활동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인력파견 이외의 전북대병원 등과의 교육, 훈련체계 지원, 협력체계 등 구체적인 도내 지원활동이 제시되지 않음
- 파견, 교육 훈련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도 단위의 목표, 병원별 목표 이룰 달성하는 기획과정에서의 구체적 목표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체계의 수립 필요함
- 모든 사업에서 사업의 궁극적인 효과(결과)를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의 도입이 필요

표 4-3 전라북도 지역 간 균형 잡힌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구축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과제번호	과 제 명	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1-1-1	분만 취약지 지원 강화	외래진료 실적	5,900건	9,050건
1-2-2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인력관리 체계 구축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현황	6명	6명
1-2-3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교육훈련 인원	860명	914명

추진전략 2: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및 미래 수요에 선제적 대응

① 감염·재난 응급의료서비스 강화

-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우수함
-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에 대한 제시가 충분치 않음
- 행정절차 진행 이외의 추진주체와 체계를 확인하기 어려움(감염병전문병원 등이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그 중 도의 역할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떤 지원과 활동을 하는지를 제시할 필요 있음)
- 사업관리체계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파악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함

②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필수의료 확충

- 전체의 취약성 해소를 위한 단계별 목표를 개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활용하길 바람
- 실적관리와 함께 사업관리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길 바람
- 성과지표의 핵심지표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결과, 과정 지표 등을 추가로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 있음

③ 의료수요증가 예상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의료수요 증가예상 분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기존 제시된 사업 이외에 전라북도만의 보건의료 수요를 고려한 새로운 서비스/사업 개발 노력 강화 필요
- 만성질환관리, 정신질환자, 완화의료 영역 등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음
- 추적관리 (follow-up service)가 필요한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연계 관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 노력 강화 필요
- 중증 만성질환 퇴원환자 재입원을 기본통계와 문제점 및 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중증 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 정신질환, 호스피스 지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관별 역할 수립, 지원, 관리체계의 수립이 필요함. 개별 기관별로 시행하는 것을 넘어서는 도 수준의 역할 개발이 필요함

- 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평가계획이 필요함

표 4-4 전라북도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및 미래 수요에 선제적 대응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과제번호	과 제 명	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2-1-1	감염병 전문병원 등 전문치료체계 구축	음압격리병상 기관별 시설확충 및 운영	2병상	2병상
2-1-2	권역외상센터 관리 운영	권역외상센터 시설 확충 및 운영	시설 확충	진행중
2-1-3	권역응급의료센터 관리 운영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확충 및 운영	시설 확충	진행중
2-2-1	분만 의료 인프라 확충	출산 취약지 임신부 이송지원 수혜율	90%	96.9%
2-2-3	수요가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유지 기반 강화	진료 및 검진 실적 달성	8,468건	10,574건
2-3-1	공공의료기관 내 중증·만성질환 퇴원환자 관리체계 구축	만성질환센터 운영 의료원 개소 수	3개소	3개소
2-3-2	정신보건의료체계 구축 및 정신질환 분야 지원 강화	정신건강 상담 건수	23,000건	24,451건
2-3-3	완화의료 제공체계 확대 및 공공의료 기관과의 연계 제고	완화의료 제공체계 및 호스피스 사업 수행기관 개소 수	3개소	3개소
2-3-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한 간병 부담 경감 추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개소 수	8개소	7개소

추진전략 3: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장애인 건강권 사업의 기획을 위한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고 전반적인 사업기획이 필요함. 검진 이외의 영역(재활, 복합질환 군 등)으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
- 보건의료복지통합서비스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 의료기관 간의 협력이 중요함.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의뢰체계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길 바람
- 권역 내 의료안전망 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특히 전문성 있는 인력의 확보에 관심을 두고 지원을 확대하길 바람
- 시군구/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등과의 강화된 협력을 통해 확대된 안전망 체계를 개발하여야 함

② 취약집단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

- 치매 사업의 경우 목표치 설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부진요인을 발굴하였다면, 이에 근거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도출한 부진요인과 개선방안 간 논리적인 일관성이 일부 결여됨
- 치매검진 및 치료비 지원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만 파악된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사업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 치매, 외국인 노동자 등은 실행과제 내용과 목적은 잘 부합하지만, 기관별 사업 내용의 연계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기관별로 적절한 지원을 시행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함
- 기반 확충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업역량 확보를 위한 지원계획, 평가계획이 필요함
- 결과, 과정 지표 등을 추가로 개발하여 활용 필요함

표 4-5 전라북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강화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과제번호	과 제 명	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3-1-1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 강화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수행기관 개소 수	6개소	6개소
3-2-1	노인 대상 치매관리체계 확충 및 지원 강화	치매환자 등록율	92.7%	90%
3-2-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확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사업 수행기관 개소 수	2개소	2개소
3-2-3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수혜 인원	15명	14명

추진전략 4: 공공보건의료 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①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능 정립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
- 통계현황이 적절하게 기술되어 있었으나, 계획 수립범위 선정에 있어 적극성 및 충실성이 부족함. 장기적인 기능 확충 계획과 이에 따른 진행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함

- 기능개선은 적절한 사업이나 중장기적 병원별 기능/역량 확보 계획, 이를 지원하거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방안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
- 사업 대상, 시행방법은 적시되어 있으나, 추진체계(인력, 예산 등) 구체적이지 않으며, 사업 추진 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음
-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 운영되어 있으나, 정기적으로 실시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단순 진도점검으로 사료됨. 자체평가에서 평가지표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 불가능하며, 정책내용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 목표치 설정 및 사업성과 목표달성에 대한 근거가 모호함

②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 의료 질에 대한 자체적인 문제 분석에 근거하여 사업이 도출되지 않았으나, 표준진료지침의 수행과정은 일부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음
- CP개발을 사업내용에 포함시킨 것은 바람직하지만, 현황 파악, 도 차원에서 다른 병원들을 지원할 체계 등에 대한 고민 필요함
- 도내 전체 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적절한 추진주체와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음. 추진주체와 체계를 선정하여 운영해야 함
- 도내 필요한 현황자료, 개발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러 내용의 파악이 필요하며, 병원별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함
-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 운영되지 않았으며, 단순 진도점검으로 사료됨. 자체평가에 평가지표 및 방법이 명시되어있지 않으며, 문제점 진단, 향후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표 4-6 전라북도 공공보건의료지원기반 확충 및 서비스 질 제고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과제번호	과 제 명	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4-1-4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 및 기능 특성화	기능보강 사업 완료 여부	여	부 (진행중)
4-1-6	민간의료기관 활용 및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전달체계 보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 수행기관 개소 수	13개소	13개소
4-3-1	의료 질 향상 및 적정진료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적용 기관수	3개소	3개소

추진전략 5: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① 공공의료기관 경영체계 개선

- 성과예산 집행 이외의 다각적인 전략이 제시되지 않아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기가 제한적임
- 정책 내용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함
- 적절한 컨설팅 등의 제공으로 역량의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함
- 운영효율성에만 국한되지 않는 청렴도 지표, 주민 참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표 4-7 전라북도 공공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별 실적 및 달성도

과제번호	과 제 명	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도	
			목표	수행실적
5-2-3	지방의료원 운영의 효율성·투명성 제고	군산의료원 부채액 감소	405억원	399억원
		남원의료원 부채액 감소	252억원	251억원

1.2 의료원 관리 업무

1) 의료원 담당 조직 및 업무

- 전라북도 의료원 업무 담당자는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분장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8 전라북도 의료원 담당 업무분장

직위(직급)	담당업무
주무관	1. 지방의료원 의회관련 업무, 지방의료원 지도감독 2.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3. 지방의료원 정관 및 제규정 관리 4. 공립요양병원 관련 업무, 진안군의료원 업무

* 출처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조직도

2) 원장 임용과 성과계약 체결

- 전라북도 2개 의료원 원장들은 전라북도 의료원장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성과평가 분야는 공공의료강화(40점), 내부효율화(20점), 경영개선(40점) 등 3개 분야이며 각 분야별 세부 단위성과 목표는 각 병원에서 정하여 제출함

표 4-9 전라북도 원장 경영성과 항목

성과지표	세부지표	배점
공공의료강화 (40)	운영평가	10점
	외부고객 만족도	10점
	공익적 기능강화	10점
	표준진료지침(CP)	10점
내부효율화 (20)	내부고객 만족도	10점
	친절한 병원 만들기	10점
경영개선 (40)	신포괄수가제	10점
	전문의료진 확충	10점
	제도개선	10점
	공동구매	10점

* 출처 : 2017년 전라북도 의료원장 성과계약서

1.3 의료원에 대한 예산지원

1) 의료원 지원 실적

- 전라북도는 2개 지방의료원에 시설·장비비, 운영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으로 최근 3년간('15~'17년) 의료원당 평균 2,355.83백만원('15년 2,607.5백만원, '16년 2,003백만원, '17년 2,457백만원)을 지원함
- 이는 최근 3년간('15~'17년) 의료원당 평균 지원금액(5,329.9백만원, '15년 6,617백만원, '16년 5,910백만원, '17년 3,866.1백만원)의 44.2%로 '15년 39.4%, '16년 33.9%, '17년 63.6% 수준임

표 4-10 '15~'17년 지방의료원 당 지자체 평균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지자체	3개년 평균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	20,643.67	25,152.00	19,466.00	17,313.00
부산	7,613.50	7,750.50	8,570.00	6,520.00
대구	5,998.00	6,775.00	6,764.00	4,455.00
인천	7,049.00	6,340.00	9,358.00	5,449.00
경기	1,838.05	1,778.80	983.17	2,752.17
강원	1,452.14	1,521.80	1,794.50	1,040.12
충북	997.33	571	861	1,560.00
충남	2,985.77	2,377.80	3,229.50	3,350.00
전북	2,355.83	2,607.50	2,003.00	2,457.00
전남	1,583.33	2,008.00	1,656.00	1,086.00
경북	1,665.67	1,500.33	2,378.33	1,118.33
경남	10,547.33	25,502.00	3,028.00	3,112.00
제주	6,028.31	4,899.50	7,339.50	5,845.92
진안군	4,207.33	6,702.00	3,517.00	2,403.00
목포시	157.00	-	14.00	300.00
울진군	10,157.00	3,770	23,605	3,096
평균	5,329.95	6,617.08	5,910.44	3,866.10

* 일반회계 기준

** 시설·장비 지원액, 경상운영비 지원액,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이자액 합계

*** 출처 :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및 국고지원사업계획 의견서

- 최근 3년간('15~'17년) 전라북도가 2개 의료원에 지원한 지방비는 총 14,135 백만원임
- 이는 전라북도 보건의료 예산액의 6.9% 수준이며, 2개 의료원에 지원된 지방비 중 '15년 79.1%, '16년 57.1%, '17년 64.3%가 남원의료원에 지원되었음

표 4-11 '15~'17년 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연도	지자체 전체 예산액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액	산하 의료원 지원금액			
			시설 장비 기능강화	경상운영비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합계
2015년	4,882,276	61,541	3,961	529	725	5,215
2016년	4,447,671	67,915	2,476	774	756	4,006
2017년	4,691,639	74,764	3,514	684	716	4,914

* 일반회계 기준

** 출처 :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및 국고지원사업계획 의견서

표 4-12 '15~'17년 전라북도 2개 의료원에 대한 지자체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의료원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군산	시설, 장비 지원액	국비 매칭사업 지원금액	260	600	-
		설립주체 단독 지원금액	11	38	815
	경상운영비 지원액		329	591	484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이자액		391	489	455
	계		991	1,718	1,754
남원	시설, 장비 지원액	국비 매칭사업 지원금액	3,690	1,838	2,699
		설립주체 단독 지원금액			
	경상운영비 지원액		200	183	200
	지역개발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이자액		334	267	261
	계		4,124	2,288	3,160
총계			5,215	4,006	4,914

* 일반회계 기준

** 출처 : 2019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및 국고지원사업계획 의견서

제5장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1.1 조사개요

1) 조사의 목적

- 남원의료원의 운영실태 및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병원이 지역내 거점 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를 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본 조사의 목적이 있음

2) 조사 대상 및 유효 표본수

- 남원의료원의 전직원 3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에 참여한 직원은 197명으로 65.4%의 응답률을 보임

3) 조사기간

-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총 17일간 진행함

4) 주요 조사내용

- 조사내용은 응답자의 일반사항, 지역환경, 기능 및 역할, 운영현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5-1 주요 조사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사항	• 성별 / 연령
	• 직무구분 / 진료과 / 근무지 / 소속부서
	• 해당분야 근속년수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
지역환경	• 남원의료원 대표 진료과
	• 운영 및 보완이 필요한 진료과
	• 환자증감 현황 및 노인환자 의료서비스 대응 수준
	• 남원의료원의 강약점(장단점)
	• 운영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외부적 환경요소
기능 및 역할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인지정도
	• 남원의료원의 진료서비스 수준
	• 남원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타당여부
	• 남원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시 보완사항
	• 남원의료원의 공공과대학(원)의 수련병원 역할 수행 적합정도
	• 남원의료원의 적절한 향후 진료서비스 방향
	• 남원의료원의 적절한 향후 운영 방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한 의견
운영현황	• 운영상 문제점
	• 직종별 인력 확보 어려움 정도 및 채용조건별 수준
	• 남원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 직무간 업무협조 및 인간관계 원활성
	• 관내 병원 및 보건소와 업무협조 정도
	• 근무 지속 여부
	• 남원의료원 근무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리체계 적합성 및 지원에 대한 만족도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개선방안

1.2 응답자 분포

- 본 조사에 응답한 응답자의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5-2 응답자 분포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197	100.0
성별	남성	65	33.0
	여성	132	67.0
연령	만19~29세	15	7.6
	30대	54	27.4
	40대	65	33.0
	50대	60	30.5
	60세 이상	3	1.5
직무구분	의사	17	8.6
	간호사	83	42.1
	행정직	27	13.7
	기타	70	35.5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14.7
	5년 초과 10년 이하	29	14.7
	10년 초과	139	70.6
남원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26.9
	5년 초과 10년 이하	30	15.2
	10년 초과	114	57.9
진료과	내과	17	8.6
	신경과	2	1.0
	외과	5	2.5
	정형외과	16	8.1
	신경외과	4	2.0
	마취통증의학과	3	1.5
	산부인과	5	2.5
	소아청소년과	7	3.6
	비뇨기과	1	0.5
	가정의학과	5	2.5
	응급의학과	11	5.6
	치과	1	0.5
	기타	23	11.7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49.2

1.3 결과 해석시 유의사항

- 조사결과 해석시 집단의 표본수가 30표본 미만인 경우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중복응답 문항을 제외한 문항별 응답비율의 합이 100.0%가 아닌 경우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 수치들의 합이므로 오류가 아님

2. 조사결과 요약

2.1 지역환경

- 남원의료원의 대표진료과는 내과, 정형외과
- 가장 운영이 필요한 진료과는 안과
- 가장 보완이나 강화가 필요한 진료과는 신경외과
- 최근 5년간 남원의료원의 환자수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5점 만점 2.8점)
- 지역 내 노인환자의 의료서비스 대응 수준은 보통임 (5점 만점 3.1점)
- 남원의료원의 가장 큰 장점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성’
남원의료원의 가장 큰 단점은 ‘직원을 위한 복지’
-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외부적 환경요소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운영과 발전을 어렵게 하는 외부적 환경요소는 ‘인구변화’

2.2 기능 및 역할

-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인지비율은 82.3%
-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진료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음 (76.6%). 관내에서 가장 큰 병원 / 서비스제공 수준이 관내에서 가장 우수함 / 시설과 장비 충분 /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남원의료원의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타당정도는 매우 높음 (97.5%)
그 이유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시설 및 장비 /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 /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
-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수행을 위한 최우선 보완사항은 의료인력
-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함
그 이유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공공사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 수련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의료진 인력 및 인프라 충원으로 인해 지역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

- 남원의료원의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는 것
- 남원의료원의 적절한 병원 운영 방향은 적자운영을 감수하더라도 공공병원으로써 공익성을 지키는 운영
- 적절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방향은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함
그 이유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 보호자가 간병할 수 없는 상황의 증가 / 수요가 더 많아질 것

2.3 운영현황

- 운영상 가장 큰 문제점은 성과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상
성과평가에 및 평가에 대한 보상 2.6점 /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3.0점 /
조직관리 3.0점 / 각 직무별 업무협조 3.2점 / 원장님의 리더십 3.5점
- 인력확보가 가장 어려운 직종은 간호사
간호사 1.4점 / 의사 2.2점 / 의료기사 3.4점 / 일반기능직 3.5점 / 행정직 3.6점 /
간호조무사 3.7점
- 수준이 가장 낮은 채용조건은 급여수준
급여 2.1점 / 복지 2.3점 / 업무시간 외 여가활동 2.5점 / 자기발전기회 2.6점 /
도심과의 거리 2.7점
- 남원의료원은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있음 (85.8%)
그 사례로 병원 시설 및 장비 개선, 전문의료진 확충, 경영진의 수평적 직원관리
- 직무간 업무협조 및 인간관계는 보통 수준임 (5점 만점 3.1점)
- 관내 병원 및 보건소와 업무협조는 원활한 편임 (5점 만점 3.4점)
그 사례로 법정 감염병 관리, 공공의료사업 진행 시 협조가 잘 됨
- 남원의료원 근무 지속 의향률은 높은 편 (79.7%)
- 남원의료원의 전반적 근무 만족도는 보통인 편 (5점 만점 3.1점)
- 근무 중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 낮은 급여, 과도한 업무

3. 조사결과 분석

3.1 지역환경

1) 대표진료과

- 남원의료원의 대표 진료과는 내과(91.9%)와 정형외과(85.8%)로 나타남
- 각 진료과를 선택한 것은 환자수(58.9%)가 가장 큰 이유였으며, 그 외 의료진의 수(32.0%), 높은 의료서비스 수준(7.1%), 장비 및 시설(1.5%) 등의 의견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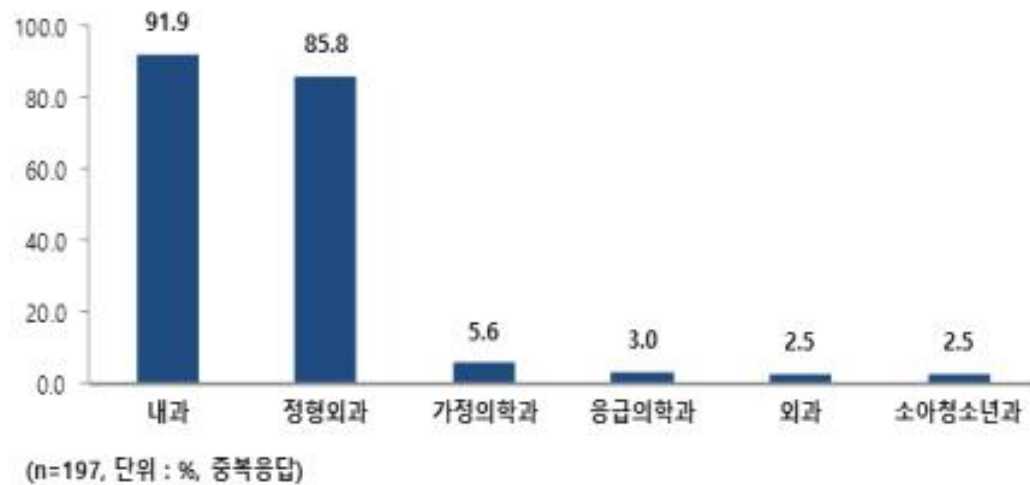


그림 5-1 대표진료과

2) 운영이 필요한 진료과

- 남원의료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진료과 중 운영이 가장 필요한 진료과는 안과(86.3%)로 나타남
그 외 피부과(53.8%), 성형외과(22.8%), 이비인후과(13.2%)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각 진료과별로 관내의 환자분들이 많이 찾고 있어 수요가 많은 것과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것이 각 과별로 운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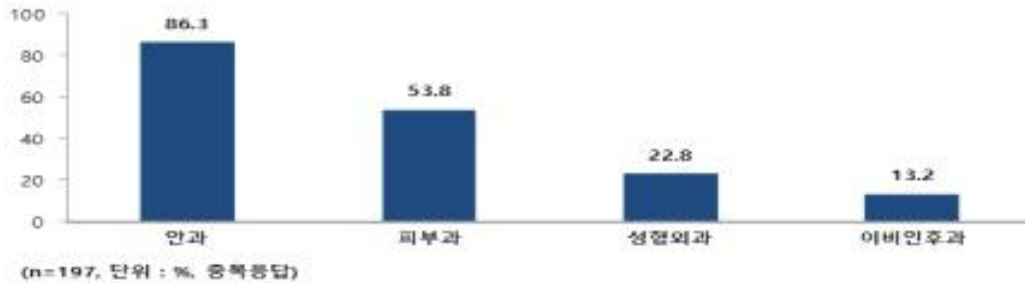


그림 5-2 운영이 필요한 진료과

3) 보완이나 강화가 필요한 진료과

- 남원의료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진료과 중 보완이나 강화가 가장 필요한 진료과는 신경외과(25.4%)로 나타남
그 외 내과와 외과(각 18.8%), 소아청소년과와 이비인후과(각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각 진료과별로 환자수에 비해 의료진 수가 적은 것이 각 과별로 보완이나 강화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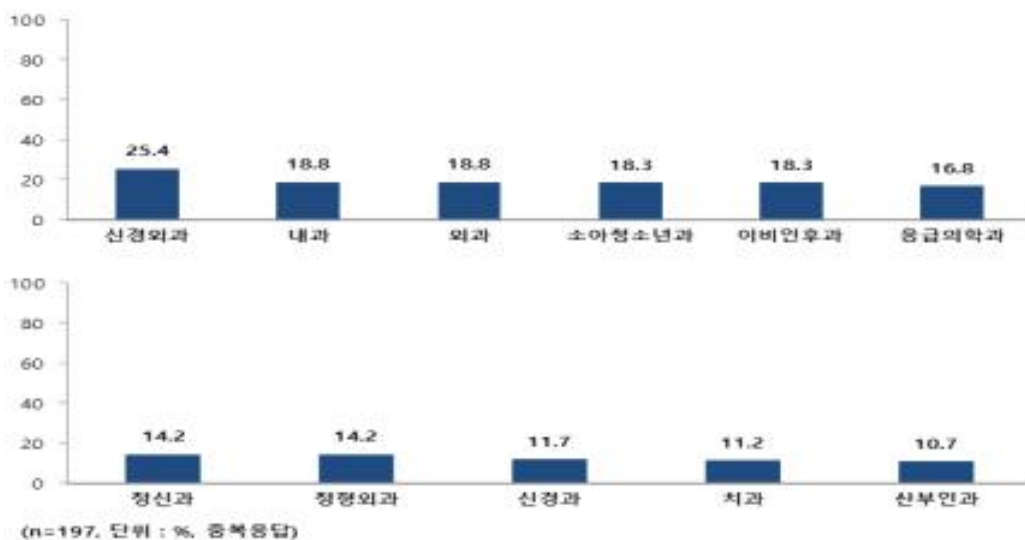


그림 5-3 보완이나 강화가 필요한 진료과

4) 환자수 증감 상황

- 최근 5년간 남원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32.5%(크게 줄어든 편이다 5.1%+약간 줄어든 편이다 27.4%)로 높게 나타남
반면, 환자수가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20.3%(크게 늘어난 편이다 1.5%+약간 늘어난 편이다 18.8%)로 나타남
- 환자수가 증가한 것은 시설 및 장비 보완, 의료진 인력 보강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함
반면 환자수가 감소한 것은 인구감소, 관내 개인의원 증가, 대중교통 발달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환자가 유출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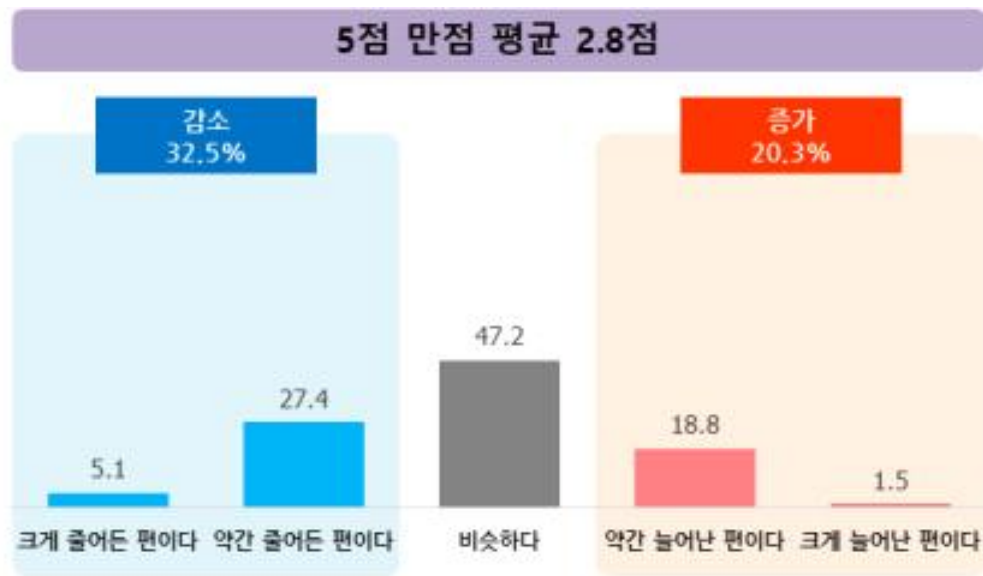


그림 5-4 환자수 증감 상황

5) 지역 노인환자 의료서비스 대응 수준

- 지역 내 노인환자의 의료서비스 대응 수준에 대해서는 서비스 수준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6.9%(매우 충분하다 2.5%+충분하다 24.4%)로 나타남
반면, 충분하지 못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9.8%(매우 불충분하다 2.5%+불충분하다 17.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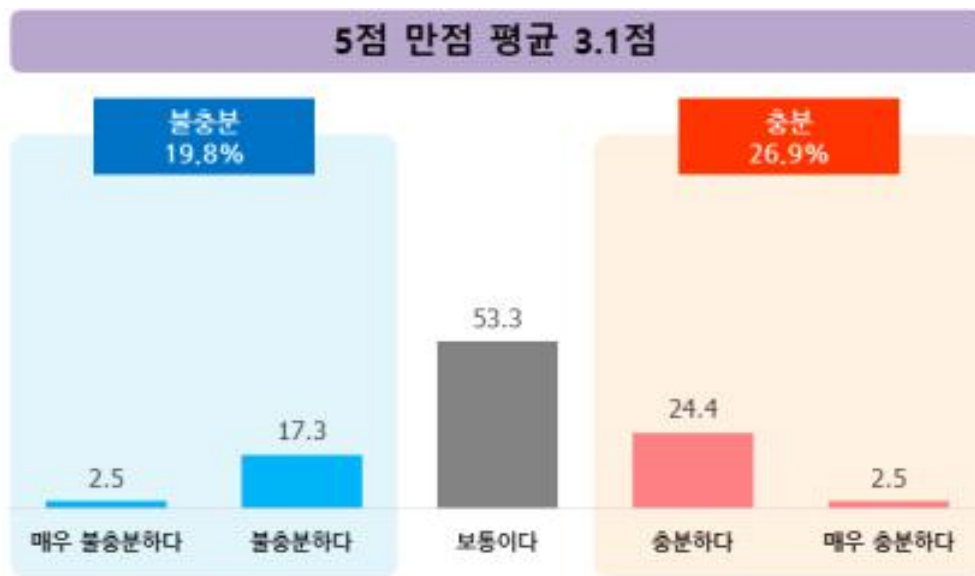


그림 5-5 지역 노인환자 의료서비스 대응 수준

6) 남원의료원의 강점

- 남원의료원의 직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장점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성’(68.0%)으로 나타남

그 외 ‘시설’(53.8%), ‘장비’(45.7%), ‘의료진의 친절도’(19.8%), ‘높은 의료서비스의 질’(1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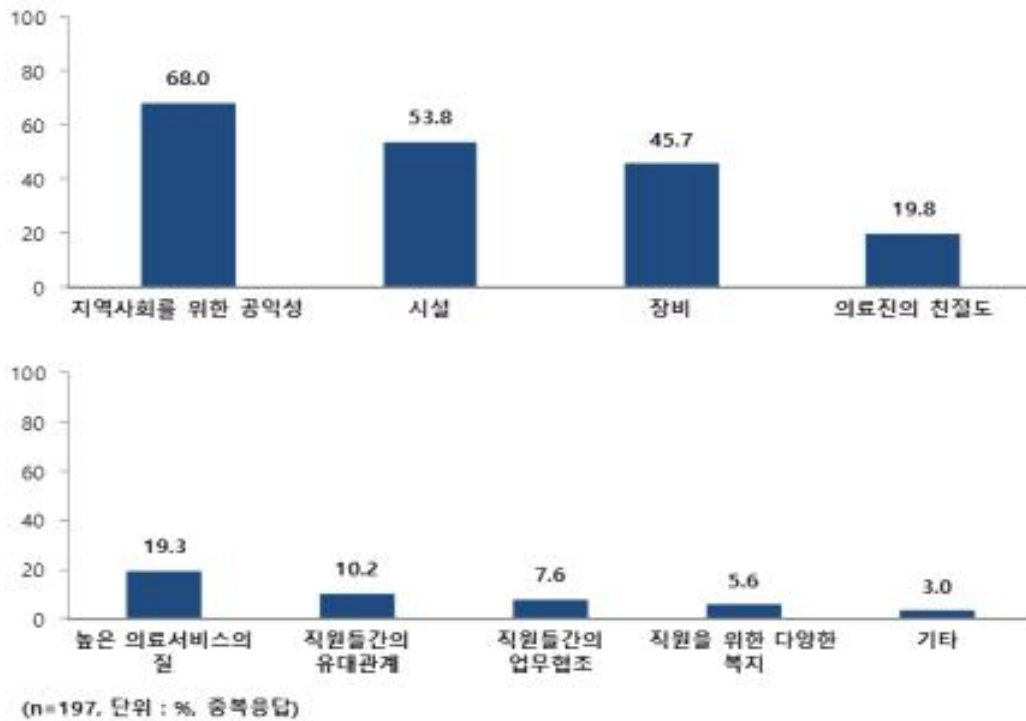


그림 5-6 남원의료원의 강점

7) 남원의료원의 단점

- 남원의료원의 직원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은 ‘직원을 위한 복지’(62.4%)로 나타남

그 외 ‘낮은 의료서비스의 질’(33.5%), ‘직원들간의 업무협조’(30.5%), ‘직원들간의 유대관계’(2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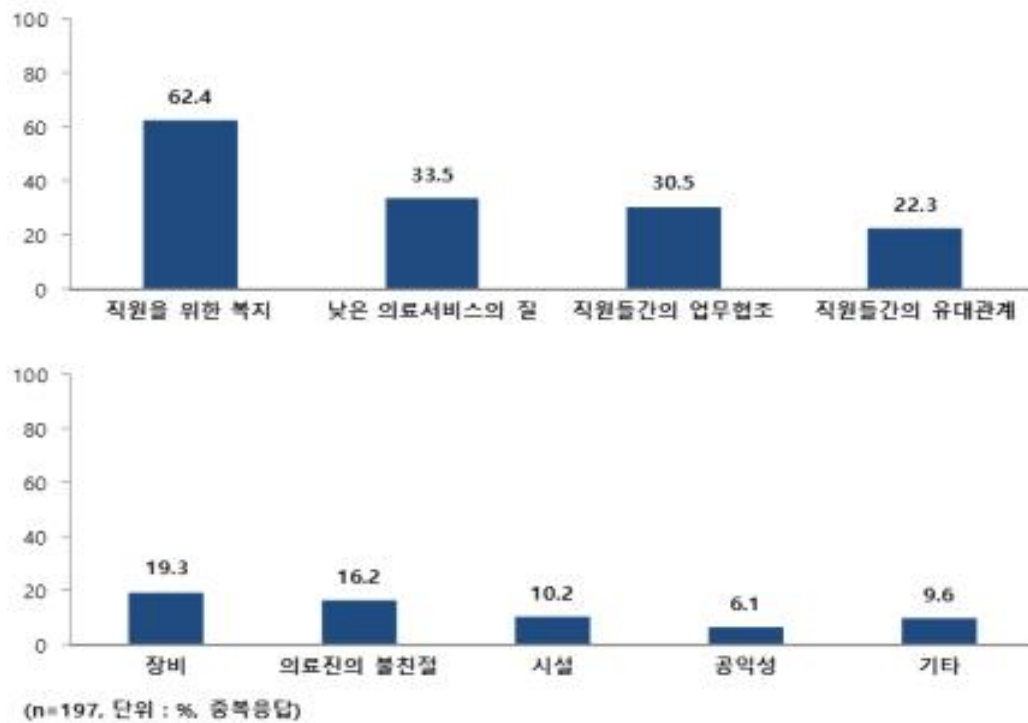


그림 5-7 남원의료원의 단점

8)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외부적 환경요소

- 남원의료원의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가장 큰 외부적 환경요소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44.7%)로 나타남
- 그 외 ‘지역민의 의료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27.4%), ‘인구변화’(20.8%), ‘교통발달’(3.6%)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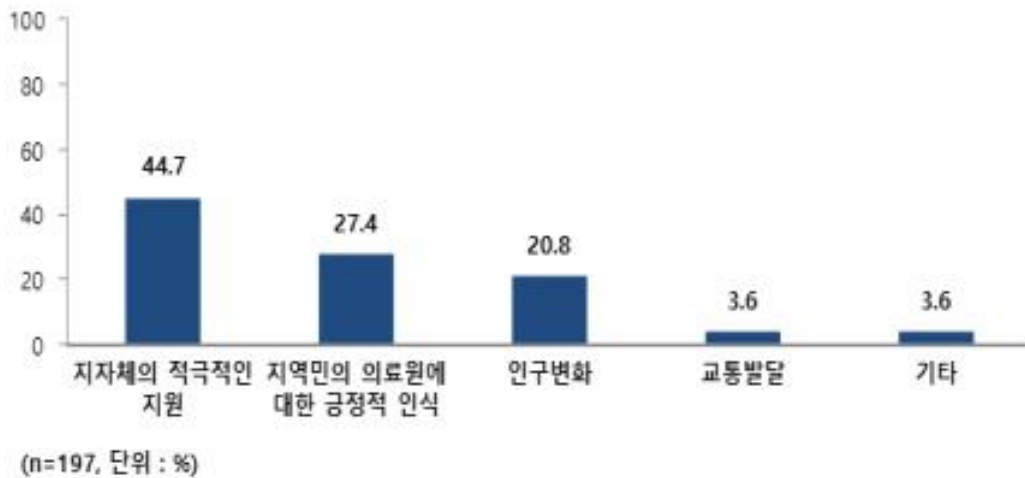


그림 5-8 운영과 발전을 기대하게 하는 외부적 환경요소

- 남성 응답자는 여성 응답자에 비해 ‘인구변화’에 대한 기대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의사는 ‘지역민의 의료원에 대한 긍정적 인식’, 행정직은 ‘인구변화’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9) 운영과 발전을 어렵게 하는 외부적 환경요소

- 남원의료원의 운영과 발전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외부적 환경요소는 ‘인구변화’ (53.3%)로 나타남

그 외 ‘지자체의 소극적인 지원’(18.8%), ‘교통발달’(12.7%), ‘지역민의 의료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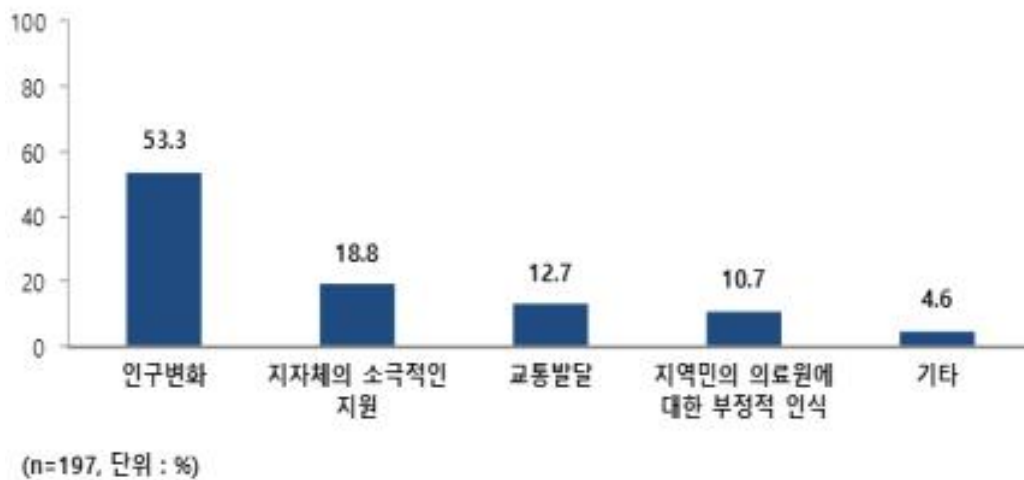


그림 5-9 운영과 발전을 어렵게 하는 외부적 환경요소

- 해당분야에 5년 초과 10년 이하 근속한 응답자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지원’이 가장 큰 요소로 나타남

3.2 기능 및 역할

1) 공공보건의로 발진 종합대책

- 공공보건의로 발진 종합대책에 대해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82.3%(잘 알고 있다 24.4%+들어는 보았다 57.9%)로 나타남
- 반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응답자는 17.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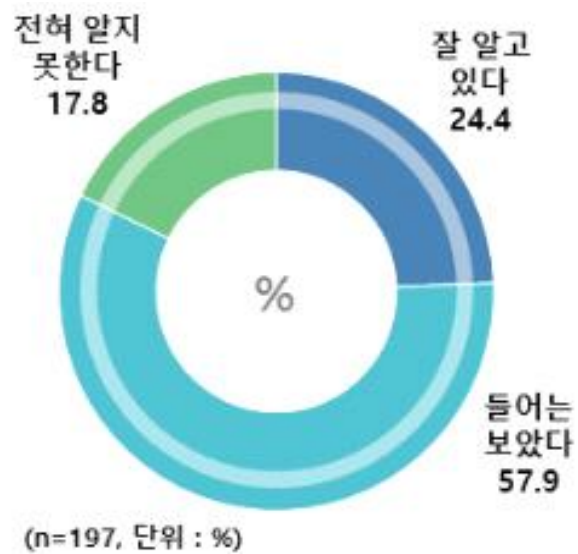


그림 5-10 공공보건의로 발진 종합대책

- 직무별로는 행정직의 인지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의사의 인지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표 5-3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다	들어는 보았다	전혀 알지 못한다
전체		197	48(24.4)	114(57.9)	35(17.8)
성별	남성	65	21(32.3)	31(47.7)	13(20.0)
	여성	132	27(20.5)	83(62.9)	22(16.7)
연령	만19~29세	15	2(13.3)	8(53.3)	5(33.3)
	30대	54	11(20.4)	30(55.6)	13(24.1)
	40대	65	15(23.1)	39(60.0)	11(16.9)
	50대	60	20(33.3)	35(58.3)	5(8.3)
	60세 이상	3	0(0.0)	2(66.7)	1(33.3)
직무구분	의사	17	2(11.8)	8(47.1)	7(41.2)
	간호사	83	16(19.3)	54(65.1)	13(15.7)
	행정직	27	15(55.6)	10(37.0)	2(7.4)
	기타	70	15(21.4)	42(60.0)	13(18.6)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5(17.2)	19(65.5)	5(17.2)
	5년 초과	29	3(10.3)	18(62.1)	8(27.6)
	10년 이하	139	40(28.8)	77(55.4)	22(15.8)
	10년 초과	139	40(28.8)	77(55.4)	22(15.8)
남원 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8(15.1)	33(62.3)	12(22.6)
	5년 초과	30	6(20.0)	16(53.3)	8(26.7)
	10년 이하	114	34(29.8)	65(57.0)	15(13.2)
	10년 초과	114	34(29.8)	65(57.0)	15(13.2)
진료과	내과	17	5(29.4)	8(47.1)	4(23.5)
	신경과	2	0(0.0)	0(0.0)	2(100.0)
	외과	5	0(0.0)	3(60.0)	2(40.0)
	정형외과	16	4(25.0)	10(62.5)	2(12.5)
	신경외과	4	0(0.0)	3(75.0)	1(25.0)
	마취통증의학과	3	1(33.3)	1(33.3)	1(33.3)
	산부인과	5	0(0.0)	5(100.0)	0(0.0)
	소아청소년과	7	1(14.3)	4(57.1)	2(28.6)
	비뇨기과	1	0(0.0)	0(0.0)	1(100.0)
	가정의학과	5	2(40.0)	2(40.0)	1(20.0)
	응급의학과	11	2(18.2)	6(54.5)	3(27.3)
	치과	1	0(0.0)	1(100.0)	0(0.0)
	기타	23	3(13.0)	19(82.6)	1(4.3)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30(30.9)	52(53.6)	15(15.5)

2)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 확보 정도

- 남원의료원 직원들은 우리 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6.6%(매우 잘 갖추고 있다 10.7%+갖추고 있는 편이다 66.0%)로 높게 나타남
반면, 진료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3.3%(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0.5%+갖추고 있지 못한 편이다 22.8%)로 나타남
- 관내에서 가장 큰 병원이며 서비스제공 수준이 관내에서 가장 우수함. 또한 시설과 장비도 충분하며, 공공병원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역할 수행을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을 확보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타남
- 수준 갖추고 있지 못한 이유로는 의료진 부족, 응급 중증환자 발생시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의견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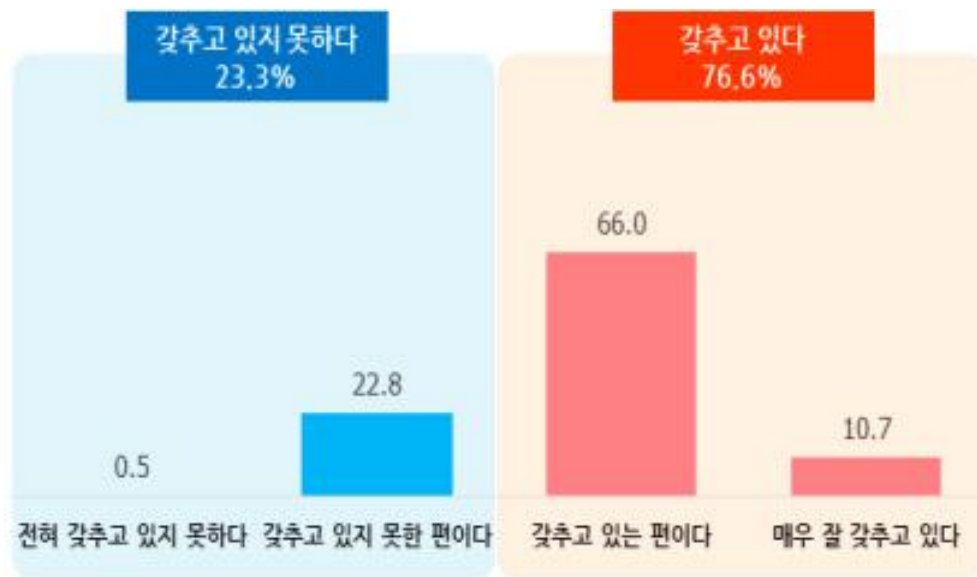


그림 5-11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 확보 정도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40대 연령이 타 연령에 비해 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해당분야에 10년 초과 근속자는 10년 이하 근속자에 비해 진료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 남원의료원에 10년 초과 근속자는 10년 이하 근속자에 비해 진료서비스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남

표 5-4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 확보 정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있지 않다	② 갖추고 있지 않은 편이다	③ 갖추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잘 갖추고 있다
전체		197	1(0.5)	45(22.8)	130(66.0)	21(10.7)
성별	남성	65	1(1.5)	10(15.4)	47(72.3)	7(10.8)
	여성	132	0(0.0)	35(26.5)	83(62.9)	14(10.6)
연령	만19~29세	15	0(0.0)	7(46.7)	7(46.7)	1(6.7)
	30대	54	0(0.0)	14(25.9)	35(64.8)	5(9.3)
	40대	65	1(1.5)	9(13.8)	50(76.9)	5(7.7)
	50대	60	0(0.0)	14(23.3)	36(60.0)	10(16.7)
	60세 이상	3	0(0.0)	1(33.3)	2(66.7)	0(0.0)
직무구분	의사	17	1(5.9)	4(23.5)	11(64.7)	1(5.9)
	간호사	83	0(0.0)	22(26.5)	55(66.3)	6(7.2)
	행정직	27	0(0.0)	5(18.5)	17(63.0)	5(18.5)
	기타	70	0(0.0)	14(20.0)	47(67.1)	9(12.9)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0(0.0)	9(31.0)	16(55.2)	4(13.8)
	5년 초과 10년 이하	29	1(3.4)	12(41.4)	15(51.7)	1(3.4)
	10년 초과	139	0(0.0)	24(17.3)	99(71.2)	16(11.5)
남원 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1(1.9)	18(34.0)	27(50.9)	7(13.2)
	5년 초과 10년 이하	30	0(0.0)	10(33.3)	18(60.0)	2(6.7)
	10년 초과	114	0(0.0)	17(14.9)	85(74.6)	12(10.5)
진료과	내과	17	0(0.0)	5(29.4)	11(64.7)	1(5.9)
	신경과	2	0(0.0)	1(50.0)	1(50.0)	0(0.0)
	외과	5	0(0.0)	3(60.0)	2(40.0)	0(0.0)
	정형외과	16	0(0.0)	3(18.8)	12(75.0)	1(6.3)
	신경외과	4	0(0.0)	1(25.0)	3(75.0)	0(0.0)
	마취통증의학과	3	0(0.0)	1(33.3)	2(66.7)	0(0.0)
	산부인과	5	0(0.0)	1(20.0)	4(80.0)	0(0.0)
	소아청소년과	7	0(0.0)	3(42.9)	2(28.6)	2(28.6)
	비뇨기과	1	0(0.0)	0(0.0)	1(100.0)	0(0.0)
	가정의학과	5	0(0.0)	1(20.0)	3(60.0)	1(20.0)
	응급의학과	11	1(9.1)	3(27.3)	7(63.6)	0(0.0)
	치과	1	0(0.0)	0(0.0)	1(100.0)	0(0.0)
	기타	23	0(0.0)	4(17.4)	17(73.9)	2(8.7)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0(0.0)	19(19.6)	64(66.0)

3)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타당여부

- 남원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97.5%로 높게 나타남
-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와 시설 및 장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 관내 유일한 종합병원이라는 응답이 나타남
-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의료진 수가 부족하고 관내 인구수가 적으며, 인근 큰 도시에 대형병원이 많다는 의견이 나타남



그림 5-12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 타당여부

표 5-5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진료서비스 수준 확보 정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그렇다	아니다
전체		197	192(97.5)	5(2.5)
성별	남성	65	65(100.0)	0(0.0)
	여성	132	127(96.2)	5(3.8)
연령	만19~29세	15	14(93.3)	1(6.7)
	30대	54	51(94.4)	3(5.6)
	40대	65	64(98.5)	1(1.5)
	50대	60	60(100.0)	0(0.0)
	60세 이상	3	3(100.0)	0(0.0)
직무구분	의사	17	16(94.1)	1(5.9)
	간호사	83	79(95.2)	4(4.8)
	행정직	27	27(100.0)	0(0.0)
	기타	70	70(100.0)	0(0.0)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28(96.6)	1(3.4)
	5년 초과 10년 이하	29	27(93.1)	2(6.9)
	10년 초과	139	137(98.6)	2(1.4)
남원 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49(92.5)	4(7.5)
	5년 초과 10년 이하	30	30(100.0)	0(0.0)
	10년 초과	114	113(99.1)	1(0.9)
진료과	내과	17	15(88.2)	2(11.8)
	신경과	2	2(100.0)	0(0.0)
	외과	5	4(80.0)	1(20.0)
	정형외과	16	16(100.0)	0(0.0)
	신경외과	4	4(100.0)	0(0.0)
	마취통증의학과	3	3(100.0)	0(0.0)
	산부인과	5	5(100.0)	0(0.0)
	소아청소년과	7	6(85.7)	1(14.3)
	비뇨기과	1	1(100.0)	0(0.0)
	가정의학과	5	5(100.0)	0(0.0)
	응급의학과	11	11(100.0)	0(0.0)
	치과	1	1(100.0)	0(0.0)
	기타	23	22(95.7)	1(4.3)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97(100.0)	0(0.0)

4)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보완사항

- 남원의료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76.1%)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완되어야 함
그 외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8.6%), 경영혁신 지원(7.6%) 등이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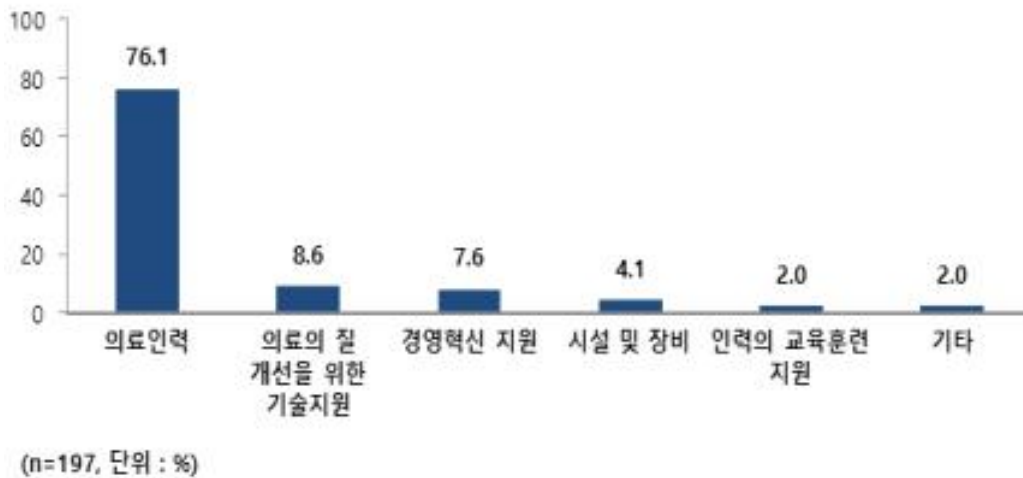


그림 5-13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보완사항

- 기타직무 응답자는 타 직무에 비해 시설 및 장비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남
- 해당분야에 5년 이하 근속자는 5년 초과 근속자에 비해 경영혁신 지원이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남

표 5-6 지역책임의료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보완사항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의료인력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경영혁신 지원	시설 및 장비	인력의 교육훈련 지원	기타
전체		197	150(76.1)	17(8.6)	15(7.6)	8(4.1)	4(2.0)	3(1.5)
성별	남성	65	48(73.8)	6(9.2)	7(10.8)	2(3.1)	1(1.5)	1(1.5)
	여성	132	102(77.3)	11(8.3)	8(6.1)	6(4.5)	3(2.3)	2(1.5)
연령	만19~29세	15	12(80.0)	1(6.7)	1(6.7)	1(6.7)	0(0.0)	0(0.0)
	30대	54	45(83.3)	2(3.7)	3(5.6)	2(3.7)	2(3.7)	0(0.0)
	40대	65	52(80.0)	7(10.8)	3(4.6)	3(4.6)	0(0.0)	0(0.0)
	50대	60	39(65.0)	7(11.7)	8(13.3)	1(1.7)	2(3.3)	3(5.0)
	60세 이상	3	2(66.7)	0(0.0)	0(0.0)	1(33.3)	0(0.0)	0(0.0)
직무구분	의사	17	15(88.2)	1(5.9)	1(5.9)	0(0.0)	0(0.0)	0(0.0)
	간호사	83	70(84.3)	4(4.8)	4(4.8)	4(4.8)	1(1.2)	0(0.0)
	행정직	27	21(77.8)	1(3.7)	1(3.7)	1(3.7)	2(7.4)	1(3.7)
	기타	70	44(62.9)	11(15.7)	9(12.9)	3(4.3)	1(1.4)	2(2.9)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20(69.0)	1(3.4)	4(13.8)	1(3.4)	2(6.9)	1(3.4)
	5년 초과 10년 이하	29	24(82.8)	2(6.9)	2(6.9)	1(3.4)	0(0.0)	0(0.0)
	10년 초과	139	106(76.3)	14(10.1)	9(6.5)	6(4.3)	2(1.4)	2(1.4)
남원 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40(75.5)	3(5.7)	5(9.4)	1(1.9)	3(5.7)	1(1.9)
	5년 초과 10년 이하	30	23(76.7)	2(6.7)	3(10.0)	1(3.3)	1(3.3)	0(0.0)
	10년 초과	114	87(76.3)	12(10.5)	7(6.1)	6(5.3)	0(0.0)	2(1.8)
진료과	내과	17	17(100.0)	0(0.0)	0(0.0)	0(0.0)	0(0.0)	0(0.0)
	신경과	2	2(100.0)	0(0.0)	0(0.0)	0(0.0)	0(0.0)	0(0.0)
	외과	5	5(100.0)	0(0.0)	0(0.0)	0(0.0)	0(0.0)	0(0.0)
	정형외과	16	14(87.5)	0(0.0)	0(0.0)	1(6.3)	1(6.3)	0(0.0)
	신경외과	4	2(50.0)	0(0.0)	1(25.0)	1(25.0)	0(0.0)	0(0.0)
	마취통증의학과	3	2(66.7)	1(33.3)	0(0.0)	0(0.0)	0(0.0)	0(0.0)
	산부인과	5	4(80.0)	0(0.0)	0(0.0)	1(20.0)	0(0.0)	0(0.0)
	소아청소년과	7	7(100.0)	0(0.0)	0(0.0)	0(0.0)	0(0.0)	0(0.0)
	비뇨기과	1	1(100.0)	0(0.0)	0(0.0)	0(0.0)	0(0.0)	0(0.0)
	가정의학과	5	4(80.0)	0(0.0)	0(0.0)	1(20.0)	0(0.0)	0(0.0)
	응급의학과	11	8(72.7)	1(9.1)	2(18.2)	0(0.0)	0(0.0)	0(0.0)
	치과	1	1(1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23	18(78.3)	3(13.0)	2(8.7)	0(0.0)	0(0.0)	0(0.0)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65(67.0)	12(12.4)	10(10.3)	4(4.1)	3(3.1)	3(3.1)

5)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 역할 수행 적합정도

- 남원의료원 직원들은 우리 병원이 공공의과대학(원)의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하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6.5%(매우 적합하다 20.8%+적합한 편이다 49.7%)로 높게 나타남
반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29.4%(전혀 적합하지 않다 2.0%+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27.4%)로 나타남
- 남원의료원이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적절한 이유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 공공사업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수련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의료진 인력 및 인프라 충원으로 인해 지역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남
- 반면 수련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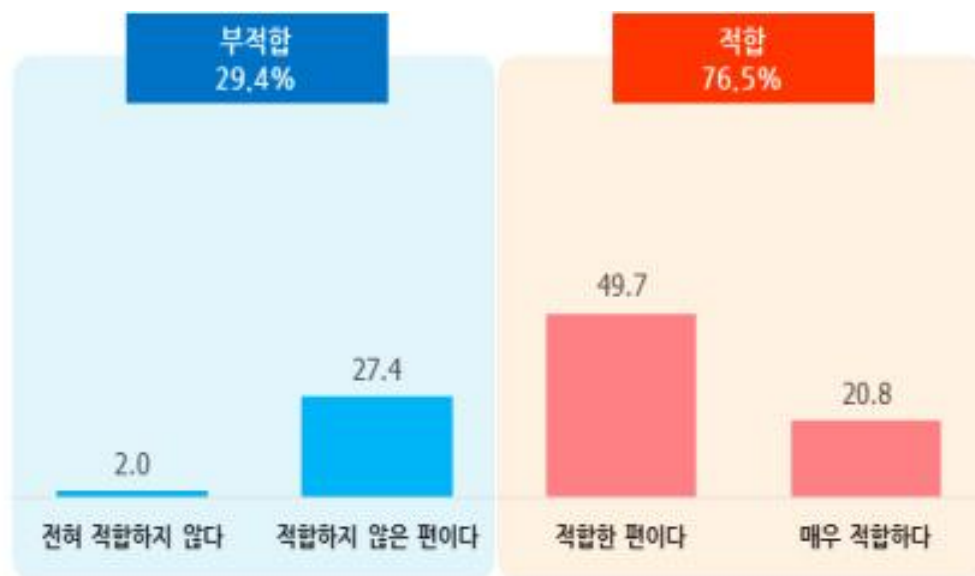


그림 5-14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 역할 수행 적합정도

- 20대 응답자는 30대 이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남
- 의사는 타 직무에 비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타남

표 5-7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 역할 수행 적합정도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적합하지 않다	② 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③ 적합한 편이다	④ 매우 적합하다
전체		197	4(2.0)	54(27.4)	98(49.7)	41(20.8)
성별	남성	65	3(4.6)	13(20.0)	30(46.2)	19(29.2)
	여성	132	1(0.8)	41(31.1)	68(51.5)	22(16.7)
연령	만19~29세	15	0(0.0)	7(46.7)	8(53.3)	0(0.0)
	30대	54	1(1.9)	14(25.9)	27(50.0)	12(22.2)
	40대	65	2(3.1)	15(23.1)	34(52.3)	14(21.5)
	50대	60	1(1.7)	17(28.3)	27(45.0)	15(25.0)
	60세 이상	3	0(0.0)	1(33.3)	2(66.7)	0(0.0)
직무구분	의사	17	3(17.6)	8(47.1)	5(29.4)	1(5.9)
	간호사	83	1(1.2)	28(33.7)	46(55.4)	8(9.6)
	행정직	27	0(0.0)	1(3.7)	16(59.3)	10(37.0)
	기타	70	0(0.0)	17(24.3)	31(44.3)	22(31.4)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0(0.0)	11(37.9)	15(51.7)	3(10.3)
	5년 초과	29	1(3.4)	7(24.1)	16(55.2)	5(17.2)
	10년 이하	29	1(3.4)	7(24.1)	16(55.2)	5(17.2)
	10년 초과	139	3(2.2)	36(25.9)	67(48.2)	33(23.7)
남원 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2(3.8)	18(34.0)	27(50.9)	6(11.3)
	5년 초과	30	0(0.0)	8(26.7)	17(56.7)	5(16.7)
	10년 이하	30	0(0.0)	8(26.7)	17(56.7)	5(16.7)
	10년 초과	114	2(1.8)	28(24.6)	54(47.4)	30(26.3)
진료과	내과	17	0(0.0)	8(47.1)	8(47.1)	1(5.9)
	신경과	2	0(0.0)	0(0.0)	2(100.0)	0(0.0)
	외과	5	0(0.0)	3(60.0)	1(20.0)	1(20.0)
	정형외과	16	1(6.3)	3(18.8)	12(75.0)	0(0.0)
	신경외과	4	0(0.0)	2(50.0)	2(50.0)	0(0.0)
	마취통증의학과	3	0(0.0)	1(33.3)	2(66.7)	0(0.0)
	산부인과	5	0(0.0)	1(20.0)	4(80.0)	0(0.0)
	소아청소년과	7	0(0.0)	5(71.4)	1(14.3)	1(14.3)
	비뇨기과	1	0(0.0)	1(100.0)	0(0.0)	0(0.0)
	가정의학과	5	1(20.0)	0(0.0)	3(60.0)	1(20.0)
	응급의학과	11	1(9.1)	5(45.5)	3(27.3)	2(18.2)
	치과	1	0(0.0)	1(100.0)	0(0.0)	0(0.0)
	기타	23	1(4.3)	6(26.1)	13(56.5)	3(13.0)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0(0.0)	18(18.6)	47(48.5)	32(33.0)

6) 향후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

- 남원의료원 직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응답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외 ‘필수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진료과를 강화시키고 지역 내 민간병원 및 의원과 협력관계를 유지 및 활용하는 것’이라는 응답도 41.6%로 다수 비율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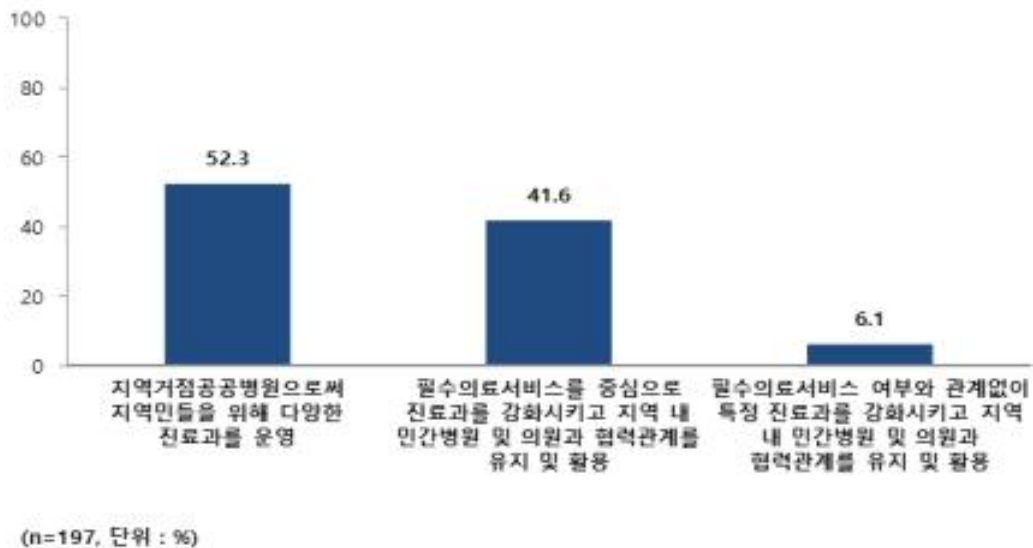


그림 5-15 향후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

- 연령이 30대 이하인 응답자들은 향후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진료과를 강화시키고 지역 내 민간병원 및 의원과 협력관계를 유지 및 활용’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직무가 의사인 응답자들은 향후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으로 ‘필수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진료과를 강화시키고 지역 내 민간병원 및 의원과 협력관계를 유지 및 활용’을 가장 많이 응답함

표 5-8 향후 적절한 진료서비스 방향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 지역민들을 위해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	필수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진료과를 강화시키고 지역 내 민간병원 및 의원과 협력관계를 유지 및 활용	필수의료서비스 여부와 관계없이 특정 진료과를 강화시키고 지역 내 민간병원 및 의원과 협력관계를 유지 및 활용
전체		197	103(52.3)	82(41.6)	12(6.1)
성별	남성	65	32(49.2)	29(44.6)	4(6.2)
	여성	132	71(53.8)	53(40.2)	8(6.1)
연령	만19~29세	15	4(26.7)	10(66.7)	1(6.7)
	30대	54	24(44.4)	28(51.9)	2(3.7)
	40대	65	38(58.5)	23(35.4)	4(6.2)
	50대	60	34(56.7)	21(35.0)	5(8.3)
	60세 이상	3	3(100.0)	0(0.0)	0(0.0)
직무구분	의사	17	7(41.2)	9(52.9)	1(5.9)
	간호사	83	42(50.6)	35(42.2)	6(7.2)
	행정직	27	14(51.9)	12(44.4)	1(3.7)
	기타	70	40(57.1)	26(37.1)	4(5.7)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15(51.7)	12(41.4)	2(6.9)
	5년 초과	29	15(51.7)	12(41.4)	2(6.9)
	10년 이하	139	73(52.5)	58(41.7)	8(5.8)
	10년 초과	139	73(52.5)	58(41.7)	8(5.8)
남원 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25(47.2)	24(45.3)	4(7.5)
	5년 초과	30	15(50.0)	12(40.0)	3(10.0)
	10년 이하	114	63(55.3)	46(40.4)	5(4.4)
	10년 초과	114	63(55.3)	46(40.4)	5(4.4)
진료과	내과	17	11(64.7)	6(35.3)	0(0.0)
	신경과	2	0(0.0)	2(100.0)	0(0.0)
	외과	5	0(0.0)	4(80.0)	1(20.0)
	정형외과	16	11(68.8)	5(31.3)	0(0.0)
	신경외과	4	2(50.0)	1(25.0)	1(25.0)
	마취통증의학과	3	2(66.7)	1(33.3)	0(0.0)
	산부인과	5	1(20.0)	3(60.0)	1(20.0)
	소아청소년과	7	2(28.6)	3(42.9)	2(28.6)
	비뇨기과	1	0(0.0)	1(100.0)	0(0.0)
	가정의학과	5	4(80.0)	1(20.0)	0(0.0)
	응급의학과	11	6(54.5)	4(36.4)	1(9.1)
	치과	1	0(0.0)	1(100.0)	0(0.0)
	기타	23	10(43.5)	12(52.2)	1(4.3)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54(55.7)	38(39.2)	5(5.2)

7) 향후 적절한 병원 운영 방향

- 남원의료원 직원들이 생각하는 적절한 병원 운영 방향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공공병원으로서 공익성을 지키는 운영’이라는 응답이 73.6%로 높게 나타남
반면, ‘적자운영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을 해야한다는 응답자는 22.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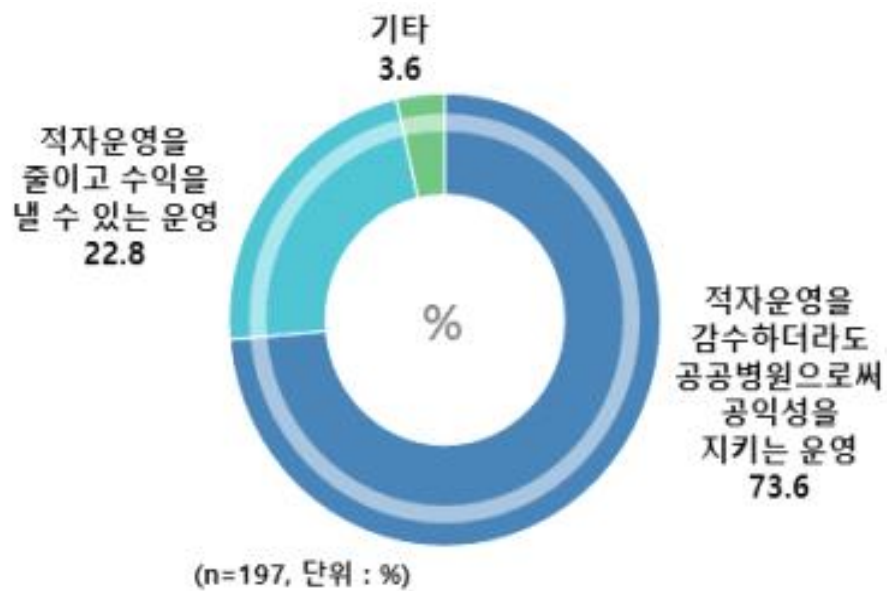


그림 5-16 향후 적절한 병원 운영 방향

- 연령별로 20대 응답자는 ‘적자운영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이 향후 가장 적절한 병원 운영 방향이라고 응답함

표 5-9 향후 적절한 병원 운영 방향

(단위 : 명(%))

구분		사례수 (명)	적자운영을 감수하더라도 공공병원으로써 공익성을 지키는 운영	적자운영을 줄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운영	기타
전체		197	145(73.6)	45(22.8)	7(3.6)
성별	남성	65	52(80.0)	12(18.5)	1(1.5)
	여성	132	93(70.5)	33(25.0)	6(4.5)
연령	만19~29세	15	6(40.0)	8(53.3)	1(6.7)
	30대	54	32(59.3)	19(35.2)	3(5.6)
	40대	65	53(81.5)	11(16.9)	1(1.5)
	50대	60	51(85.0)	7(11.7)	2(3.3)
	60세 이상	3	3(100.0)	0(0.0)	0(0.0)
직무구분	의사	17	12(70.6)	5(29.4)	0(0.0)
	간호사	83	51(61.4)	28(33.7)	4(4.8)
	행정직	27	21(77.8)	5(18.5)	1(3.7)
	기타	70	61(87.1)	7(10.0)	2(2.9)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18(62.1)	10(34.5)	1(3.4)
	5년 초과	29	19(65.5)	9(31.0)	1(3.4)
	10년 이하	139	108(77.7)	26(18.7)	5(3.6)
	10년 초과	114	92(80.7)	17(14.9)	5(4.4)
남원 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33(62.3)	18(34.0)	2(3.8)
	5년 초과	30	20(66.7)	10(33.3)	0(0.0)
	10년 이하	114	92(80.7)	17(14.9)	5(4.4)
	10년 초과	114	92(80.7)	17(14.9)	5(4.4)
진료과	내과	17	9(52.9)	8(47.1)	0(0.0)
	신경과	2	1(50.0)	0(0.0)	1(50.0)
	외과	5	3(60.0)	1(20.0)	1(20.0)
	정형외과	16	9(56.3)	7(43.8)	0(0.0)
	신경외과	4	1(25.0)	3(75.0)	0(0.0)
	마취통증의학과	3	3(100.0)	0(0.0)	0(0.0)
	산부인과	5	4(80.0)	1(20.0)	0(0.0)
	소아청소년과	7	4(57.1)	3(42.9)	0(0.0)
	비뇨기과	1	1(100.0)	0(0.0)	0(0.0)
	가정의학과	5	5(100.0)	0(0.0)	0(0.0)
	응급의학과	11	7(63.6)	3(27.3)	1(9.1)
	치과	1	0(0.0)	1(100.0)	0(0.0)
	기타	23	16(69.6)	6(26.1)	1(4.3)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82(84.5)	12(12.4)	3(3.1)

8)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방향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65.5%로 절반이상을 차지함
그 외 유지해야 한다가 22.3%, 축소해야 한다가 12.2%로 나타남
-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는 노인인구의 증가, 보호자가 간병할 수 없는 상황의 증가 등 수요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는 인력 부족이 가장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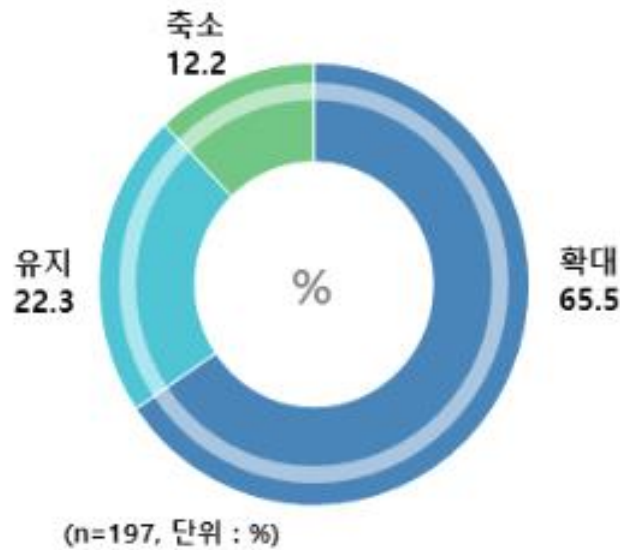


그림 5-17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방향

- 직무별로 의사는 병동운영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남

3.3 운영현황

1) 운영 요소별 수준

- 운영상 문제점 중 ‘성과평가에 및 평가에 대한 보상’(2.6점)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직관리’(각 3.0점), ‘각 직무별 업무협조’(3.2점), ‘원장님의 리더십’(3.5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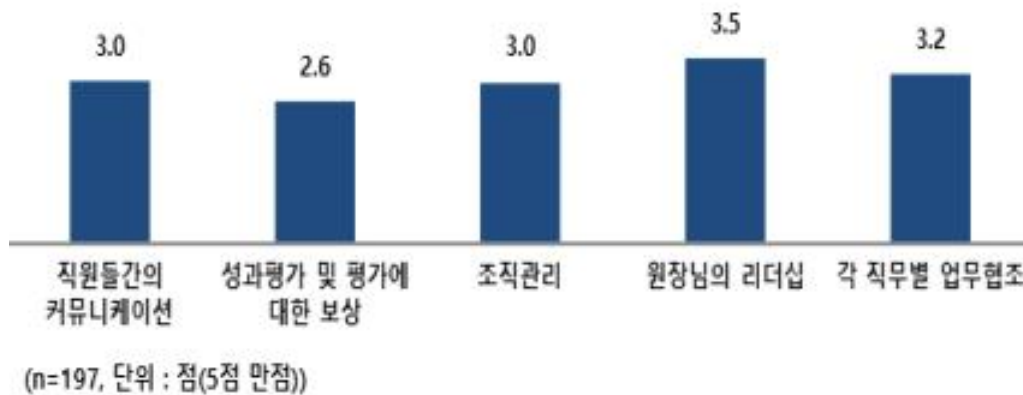


그림 5-18 운영 요소별 수준

가.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 운영 요소 중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은 5점 만점에 3.0점으로 조사됨
-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22.4%(매우 높은 수준 5.6%+높은 수준 16.8%)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8.8%(매우 낮은 수준 5.1%+낮은 수준 13.7%)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58.9%로 나타남



그림 5-19 직원들간의 커뮤니케이션

- 연령별로는 50대가 타 연령에 비해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 직무별로는 행정직이 타 직무에 비해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나. 성과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상

- 운영 요소 중 성과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상 수준은 5점 만점에 2.6점으로 조사됨
-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1.7%(매우 낮은 수준 10.7%+낮은 수준 31.0%)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3.2%(매우 높은 수준 3.0%+높은 수준 10.2%)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45.2%로 나타남



그림 5-20 성과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상

- 직무별로는 행정직이 성과평가 및 평가에 대한 보상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의사직이 가장 낮다고 응답함

다. 조직관리

- 운영 요소 중 조직관리 수준은 5점 만점에 3.0점으로 조사됨
-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22.9%(매우 높은 수준 5.6%+높은 수준 17.3%)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20.8%(매우 낮은 수준 6.1%+낮은 수준 14.7%)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56.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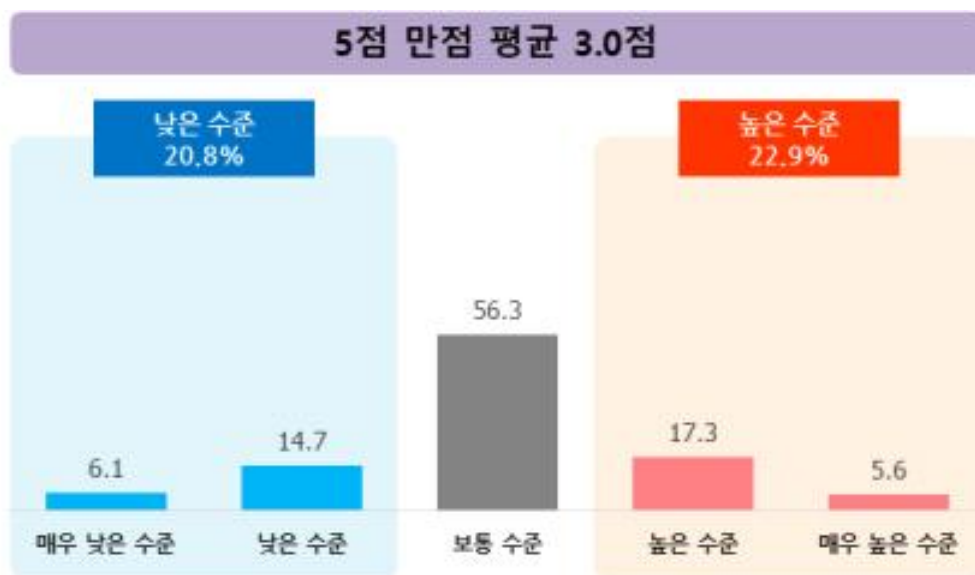


그림 5-21 조직관리

- 연령별로는 50대가 타 연령에 비해 조직관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 직무별로 행정직이 타 직무에 비해 조직관리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라. 원장님의 리더십

- 운영 요소 중 원장님의 리더십 수준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조사됨
-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45.2%(매우 높은 수준 14.2%+높은 수준 31.0%)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0.2%(매우 낮은 수준 4.1%+낮은 수준 6.1%)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44.7%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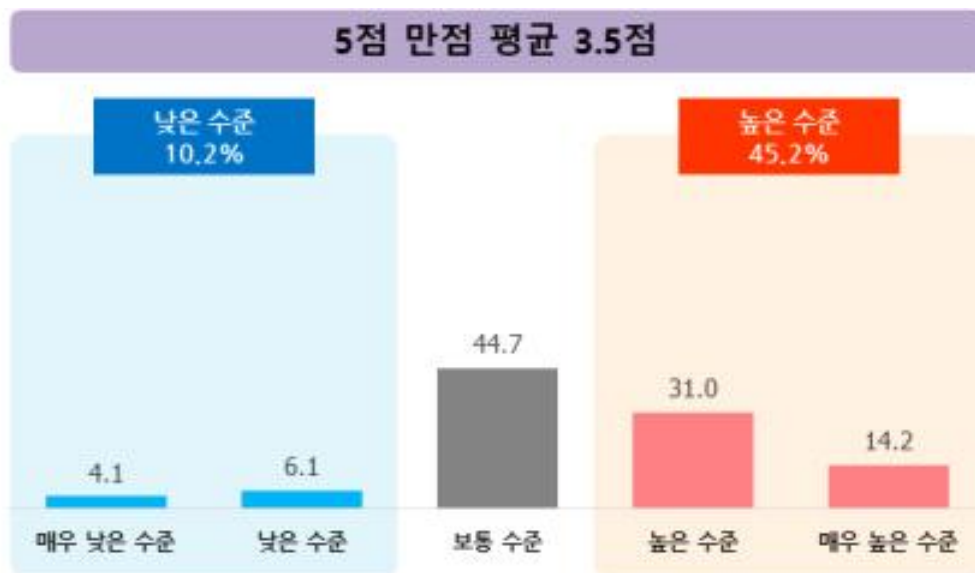


그림 5-22 원장님의 리더십

-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원장님의 리더십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 직무별로는 의사직무가 타 직무에 비해 원장님의 리더십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 해당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응답자는 10년 이하 경력자에 비해 원장님의 리더십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마. 각 직무별 업무협조

- 운영 요소 중 각 직무별 업무협조 수준은 5점 만점에 3.2점으로 조사됨
-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31.0%(매우 높은 수준 7.1%+높은 수준 23.9%)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17.8%(매우 낮은 수준 4.6%+낮은 수준 13.2%)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51.3%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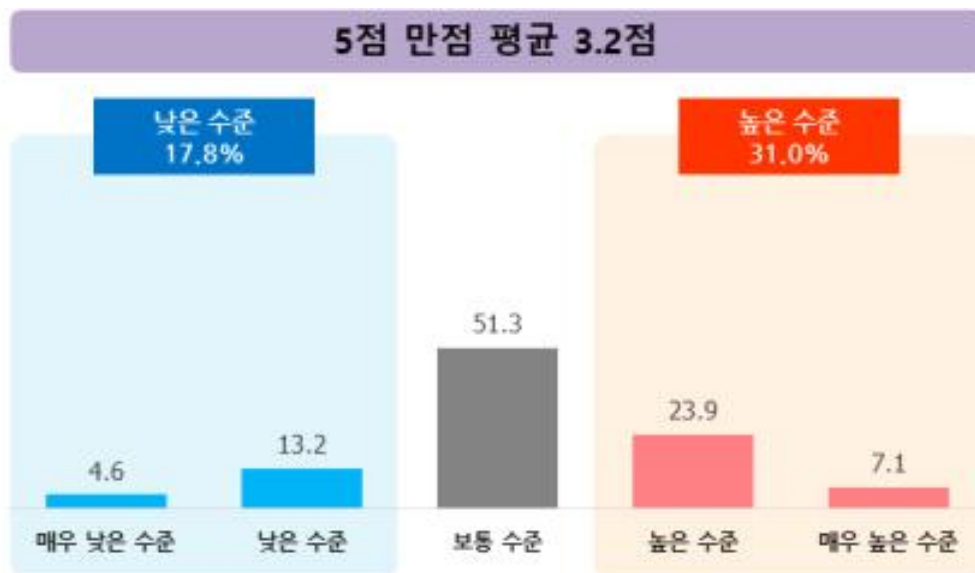


그림 5-23 각 직무별 업무협조

-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각 직무별 업무협조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40대 이하에 비해 각 직무별 업무협조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 직무별로 행정직은 타 직무에 비해 각 직무별 업무협조 수준이 높다고 응답함

2) 직종별 인력확보 용이성

○ 직종별로 인력확보의 용이성을 파악해 본 결과 ‘간호사’(1.4점)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의사’(2.2점), ‘의료기사’(3.4점), ‘일반기능직’(3.5점), ‘행정직’(3.6점), ‘간호조무사’(3.7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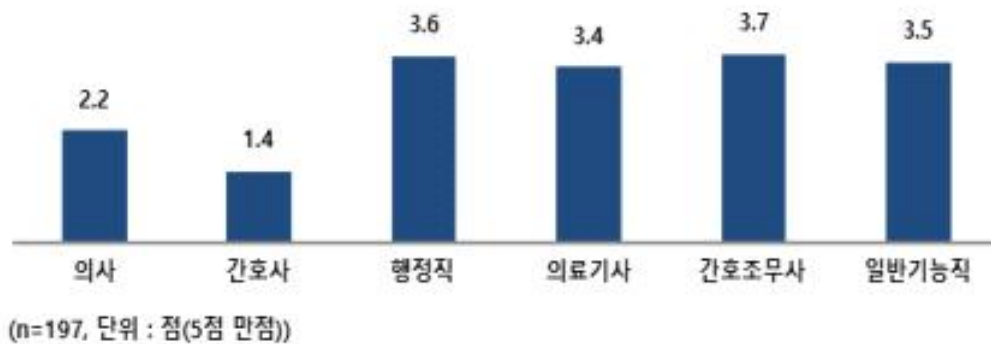


그림 5-24 직종별 인력확보 용이성

가. 의사

- 의사 직종의 인력확보 용이성 수준은 5점 만점에 2.2점으로 조사됨
- ‘어렵다’라는 응답이 65.0%(매우 어렵다 20.8%+어렵다 44.2%)로 높게 나타남
반면, ‘쉽다’는 응답은 4.1%(매우 쉽다 0.0%+쉽다 4.1%)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31.0%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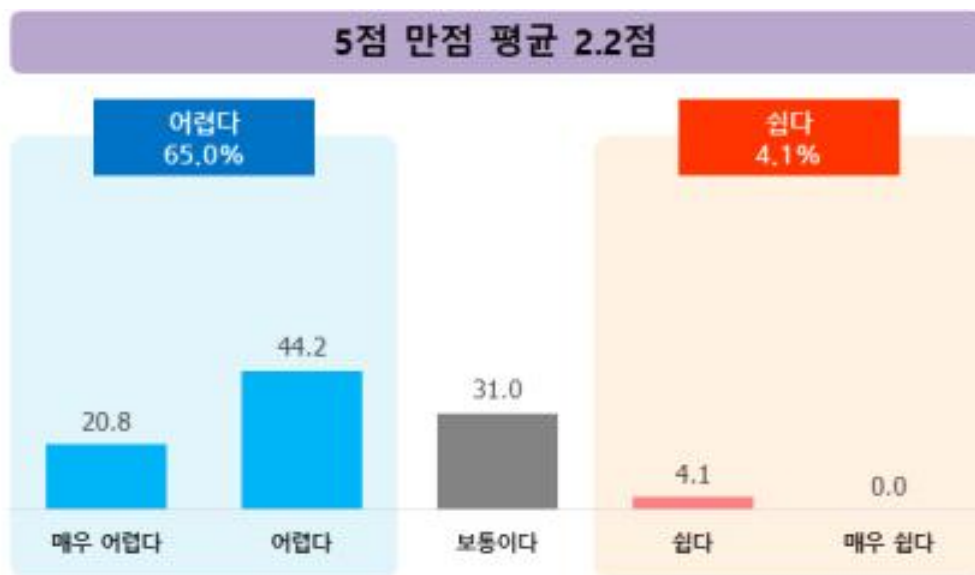


그림 5-25 의사 확보 용이성

-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의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직무별로는 행정직 타 직무에 비해 의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해당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응답자는 10년 이하 근무자에 비해 의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남원의료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응답자는 10년 이하 근무자에 비해 의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나. 간호사

- 간호사 직종의 인력확보 용이성 수준은 5점 만점에 1.4점으로 조사됨
- ‘어렵다’라는 응답이 93.4%(매우 어렵다 69.0%+어렵다 24.4%)로 높게 나타남
반면, ‘쉽다’는 응답은 0.5%(매우 쉽다 0.5%+쉽다 0.0%)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6.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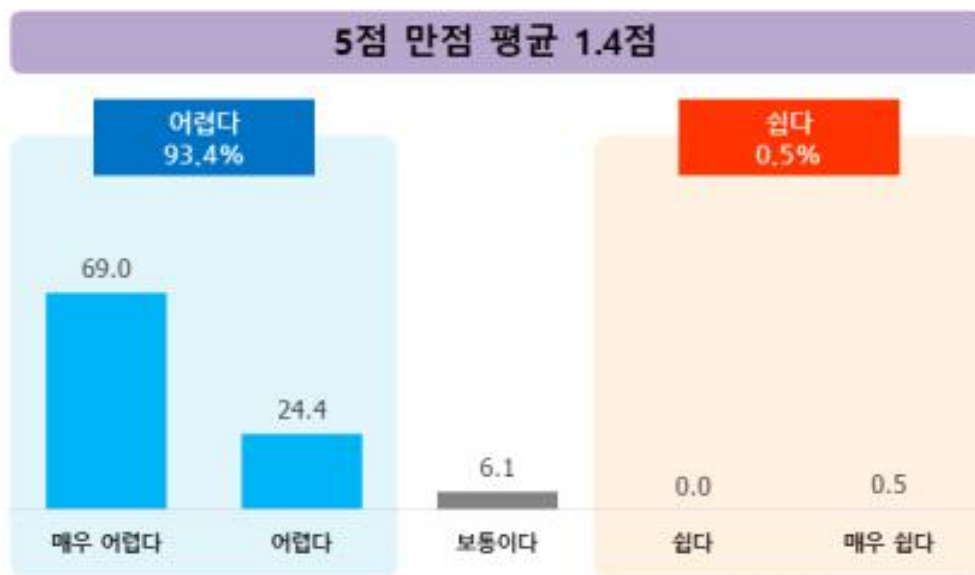


그림 5-26 간호사 확보 용이성

- 여성이 남성이 비해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연령별로는 20대와 4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직무별로는 간호사 직무가 타 직무에 비해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해당분야에서 5~10년 근무한 응답자는 그 외 근무자에 비해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 남원의료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응답자는 10년 이하 근무자에 비해 간호사 확보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다. 행정직

- 행정직 직종의 인력확보 용이성 수준은 5점 만점에 3.6점으로 조사됨
- ‘쉽다’는 응답은 50.8%(매우 쉽다 22.8%+쉽다 27.9%)로 높게 나타남
반면, ‘어렵다’라는 응답이 6.1%(매우 어렵다 2.5%+어렵다 3.6%)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43.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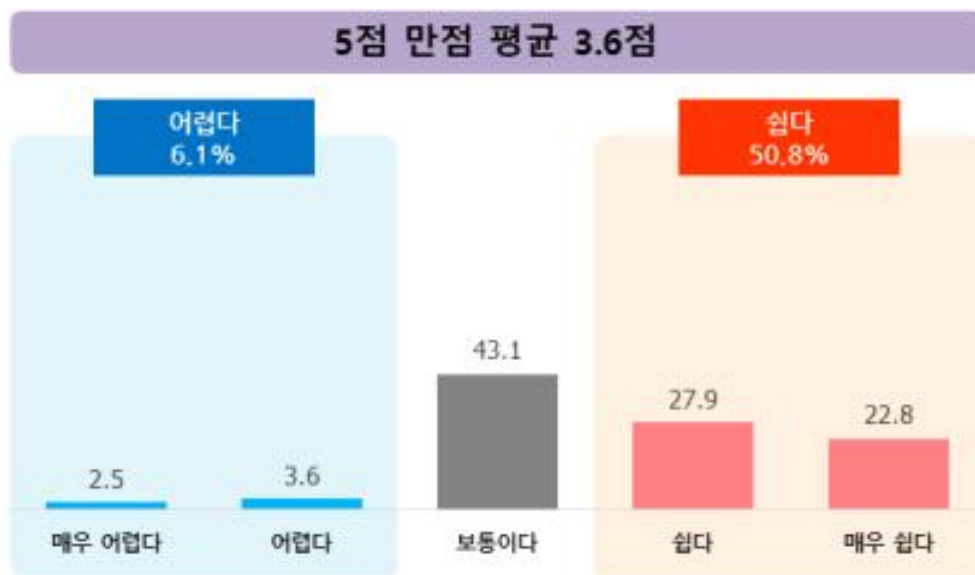


그림 5-27 행정직 확보 용이성

- 직무별로는 간호사 직무가 타 직무에 비해 행정직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해당분야에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행정직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남원의료원에서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행정직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라. 의료기사

- 의료기사 직종의 인력확보 용이성 수준은 5점 만점에 3.4점으로 조사됨
- ‘쉽다’는 응답은 38.0%(매우 쉽다 15.7%+쉽다 22.3%)로 높게 나타남
반면, ‘어렵다’라는 응답이 9.1%(매우 어렵다 2.5%+어렵다 6.6%)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52.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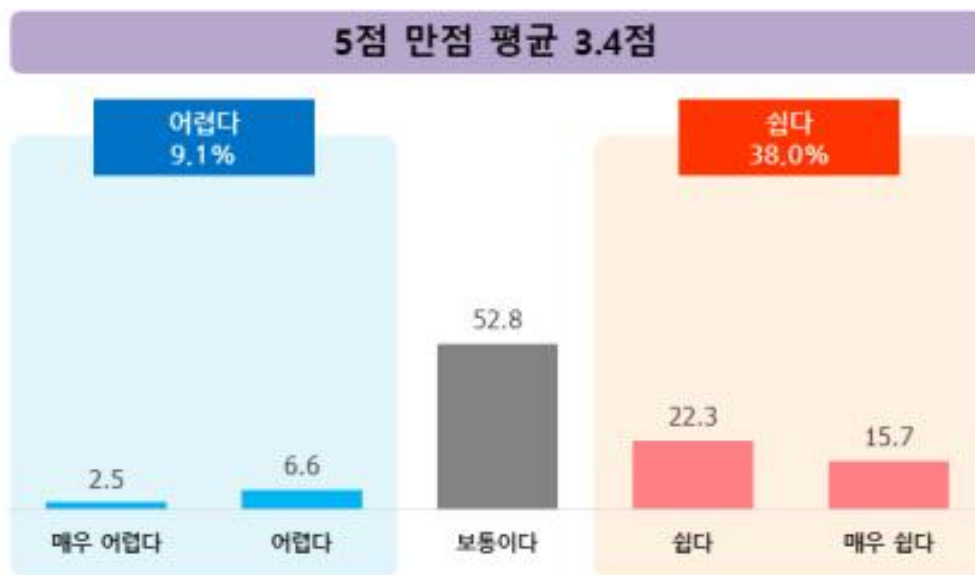


그림 5-28 의료기사 확보 용이성

- 여성응답자는 남성응답자에 비해 의료기사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의료기사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직무별로는 간호사 직무가 타 직무에 비해 의료기사직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해당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응답자는 10년 이하 근속자에 비해 의료기사직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남원의료원에서 5~10년 근무한 응답자는 그 외 응답자에 비해 의료기사직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마.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 직종의 인력확보 용이성 수준은 5점 만점에 3.7점으로 조사됨
- ‘쉽다’는 응답은 52.8%(매우 쉽다 27.4%+쉽다 25.4%)로 높게 나타남
반면, ‘어렵다’라는 응답이 9.2%(매우 어렵다 3.6%+어렵다 5.6%)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38.1%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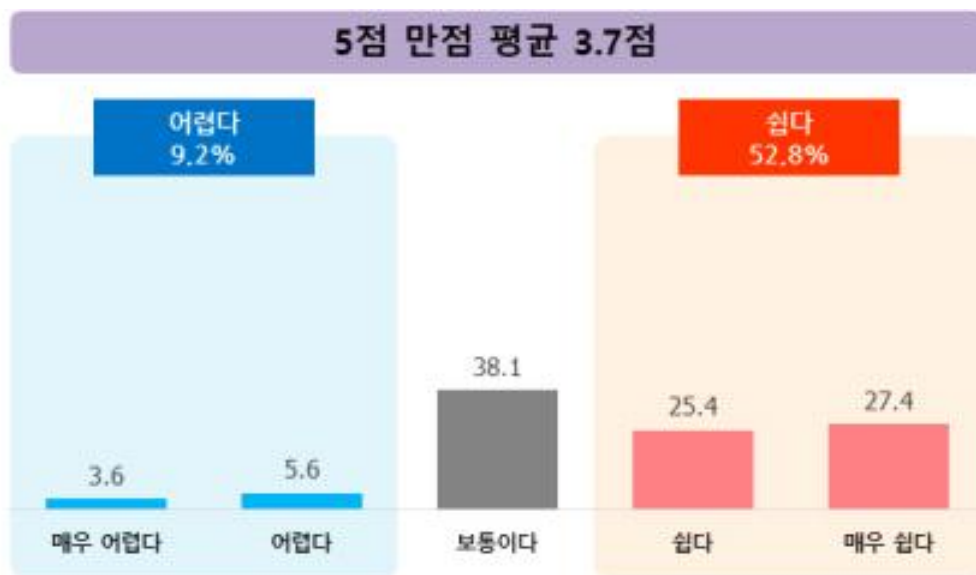


그림 5-29 간호조무사 확보 용이성

- 여성응답자가 남성응답자에 비해 간호조무사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직무별로는 간호사 직위가 타 직무에 비해 간호조무사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해당분야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응답자는 10년 이하 근속자에 비해 간호조무사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남원의료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응답자는 10년 이하 근속자에 비해 간호조무사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바. 일반기능직

- 일반기능직 직종의 인력확보 용이성 수준은 5점 만점에 3.5점으로 조사됨
- ‘쉽다’는 응답은 43.7%(매우 쉽다 18.3%+쉽다 25.4%)로 높게 나타남
반면, ‘어렵다’라는 응답이 7.1%(매우 어렵다 2.0%+어렵다 5.1%)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49.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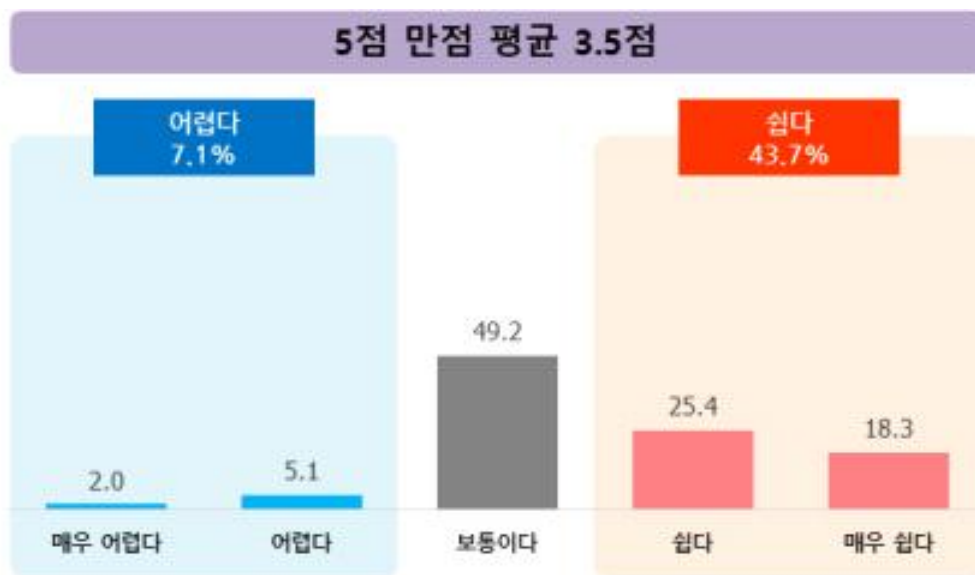


그림 5-30 일반기능직 확보 용이성

-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일반기능직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 직무별로는 간호사 직무가 타 직무에 비해 일반기능직 확보가 용이하다고 느끼고 있음

3) 채용조건별 수준

- 채용조건별로 ‘급여’(2.1점)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복지’(2.3점), ‘업무시간 외 여가활동’(2.5점), ‘자기발전기회’(2.6점), ‘도심과의 거리’(2.7점)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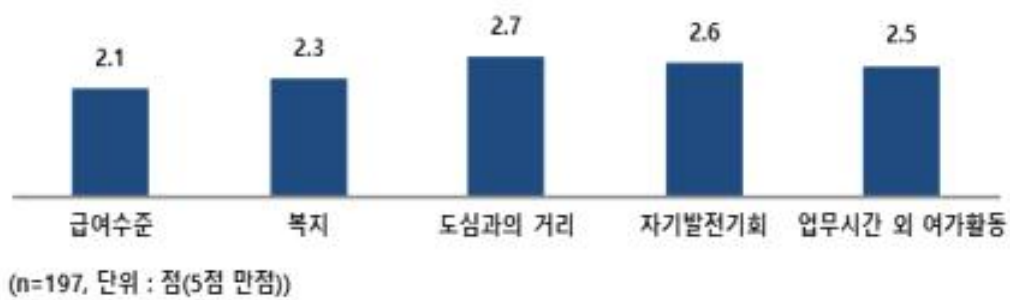


그림 5-31 채용조건별 수준

가. 급여수준

- 채용조건별로 급여수준은 5점 만점에 2.1점으로 조사됨
-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70.6%(매우 낮은 수준 19.8%+낮은 수준 50.8%)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1.5%(매우 높은 수준 0.0%+높은 수준 1.5%)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27.9%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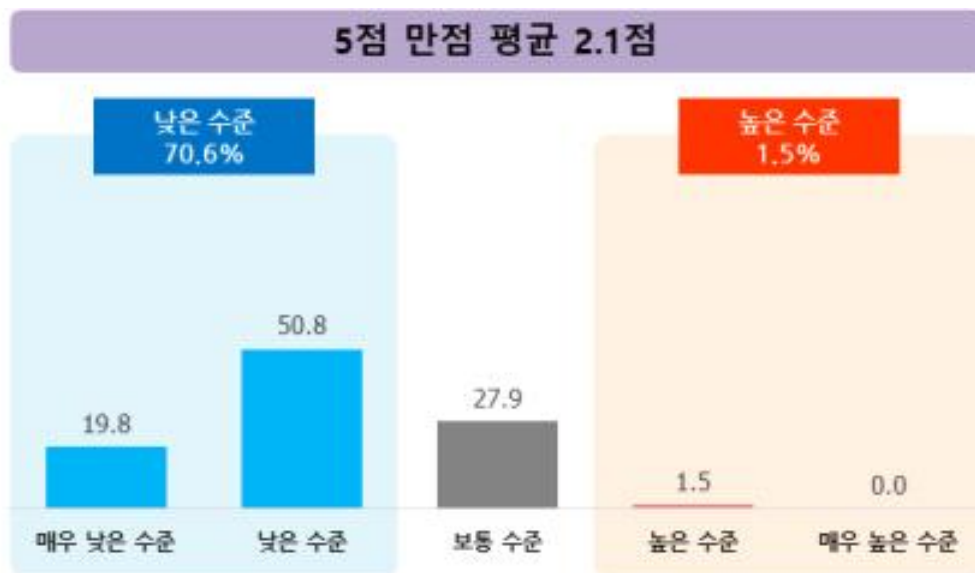


그림 5-32 급여수준

- 연령별로는 20대가 타 연령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직무구분별로 의사와 간호사가 타 직무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5~10년인 응답자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가 5~10년인 응답자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나. 복지

- 채용조건별로 복지수준은 5점 만점에 2.3점으로 조사됨
-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61.0%(매우 낮은 수준 16.8%+낮은 수준 44.2%)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7.1%(매우 높은 수준 0.0%+높은 수준 7.1%)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32.0%로 나타남



그림 5-33 복지

- 연령별로는 20대가 타 연령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직무구분별로 의사가 타 직무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5~10년인 응답자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가 5~10년인 응답자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복지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다. 도심과의 거리

- 채용조건별로 도심과의 거리 수준은 5점 만점에 2.7점으로 조사됨
-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33.5%(매우 낮은 수준 6.6%+낮은 수준 26.9%)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10.6%(매우 높은 수준 2.0%+높은 수준 8.6%)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55.8%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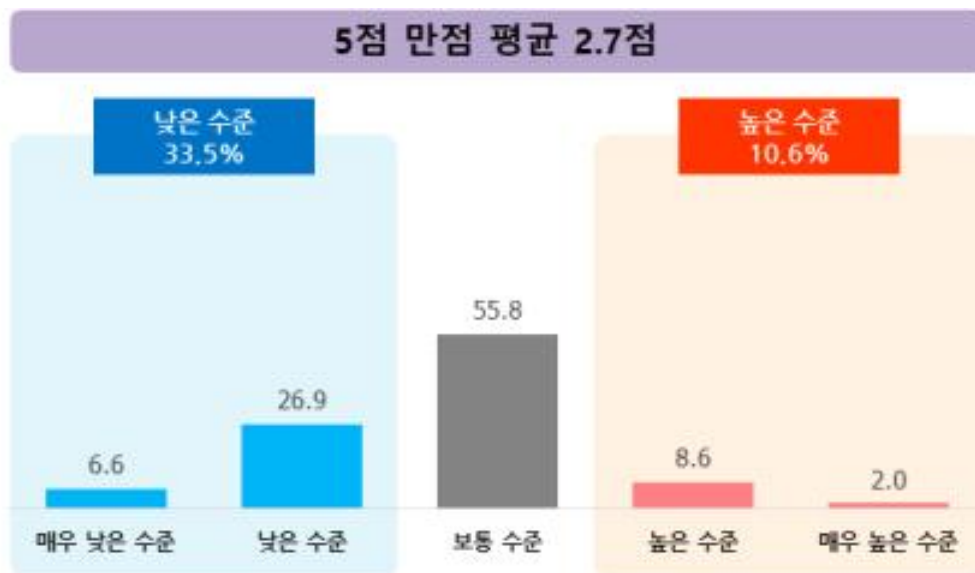


그림 5-34 도심과의 거리

-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도심과의 거리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직무구분별로 의사가 타 직무에 비해 도심과의 거리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5년 이하인 응답자가 5년 초과인 응답자에 비해 도심과의 거리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가 5년 이하인 응답자가 5년 초과인 응답자에 비해 도심과의 거리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라. 자기발전기회

- 채용조건별로 자기발전기회 수준은 5점 만점에 2.6점으로 조사됨
-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40.1%(매우 낮은 수준 8.6%+낮은 수준 31.5%)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9.1%(매우 높은 수준 1.0%+높은 수준 8.1%)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50.8%로 나타남



그림 5-35 자기발전기회

- 연령별로는 20대가 타 연령에 비해 자기발전기회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직무구분별로 의사가 타 직무에 비해 자기발전기회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10년 이하인 응답자가 10년 초과인 응답자에 비해 자기발전기회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마. 업무시간 외 여가활동

- 채용조건별로 업무시간 외 여가활동 수준은 5점 만점에 2.5점으로 조사됨
- 낮은 수준이라는 응답은 44.2%(매우 낮은 수준 10.2%+낮은 수준 34.0%)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높은 수준이라는 응답이 8.6%(매우 높은 수준 2.5%+높은 수준 12.1%)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51.0%로 나타남



그림 5-36 업무시간 외 여가활동

-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업무시간 외 여가활동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는 20대가 타 연령에 비해 자기발전기회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직무구분별로 의사가 타 직무에 비해 자기발전기회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5~10년인 응답자는 그 외 응답자에 비해 자기발전기회 수준이 낮다고 응답함

4)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 남원의료원의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응답이 85.8%로 높게 나타남
반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4.2%로 나타남
-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례로 병원 시설 및 장비 개선, 전문의료진 확충, 경영진의 수평적 직원관리 등이 나타남
- 검진센터설립, 의료기관 인증 획득, 지역사회 의료봉사와 건강교실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에 의료원 이미지 제고 등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경영진에서 직원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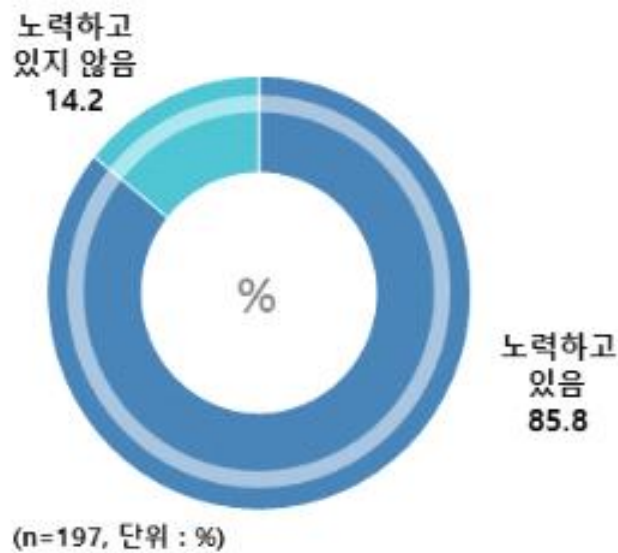


그림 5-37 운영개선을 위한 노력여부

- 연령별로 40대 응답자는 타 연령대에 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가 10년 초과인 응답자는 10년 이하에 비해 노력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5) 직무간 업무협조 및 인간관계

- 의사, 간호사, 행정직 등 각 직무간 업무협조 및 인간관계의 원활한 정도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조사됨
- 원활하다는 응답은 32.9%(매우 원활하다 3.0%+원활한 편이다 29.9%)로 높음 반면, 원활하지 않다는 응답이 15.8%(전혀 원활하지 않다 5.6%+원활하지 않은 편이다 10.2%)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51.3%로 나타남
- 원활하다는 사례로는 부서간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직원 워크숍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함
- 원활하지 않다는 사례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으나 아직은 부서 간 이기주의가 남아있다고 함



그림 5-38 직무간 업무협조 및 인간관계

- 연령별로 50대가 타 연령에 비해 직무간 업무협조 및 인간관계가 원활하다고 느끼고 있음
- 행정직은 타 직무에 비해 직무간 업무협조 및 인간관계가 원활하다고 느끼고 있음

6) 관내 병원 및 보건소와 업무협조

- 관내 병원 및 보건소와 환자 및 사업연계 등 업무협조 정도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조사됨
- 협조가 잘된다는 응답은 40.1%(협조가 매우 잘된다 8.1%+협조가 잘되는 편이다 32.0%)로 높게 나타남
반면, 협조가 안된다는 응답이 7.6%(전혀 협조가 안된다 1.5%+협조가 안되는 편이다 6.1%)로 나타났으며, 보통은 52.3%로 나타남
- 협조가 잘 된다는 사례로는 법정 감염병 관리, 공공의료사업 진행 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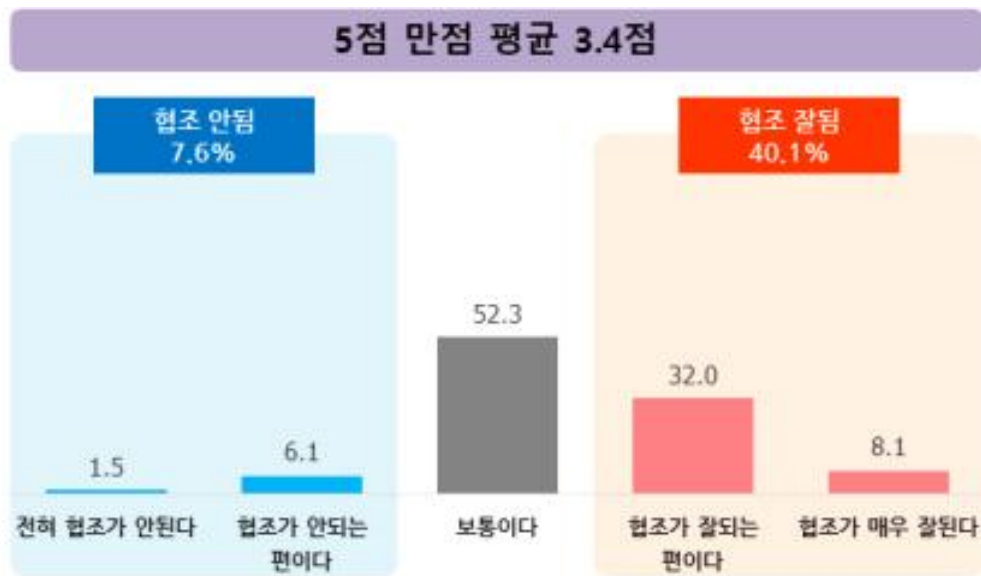


그림 5-39 관내 병원 및 보건소와 업무협조

- 연령별로 50대가 타 연령에 비해 협조가 잘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직무별로는 행정직이 타 직무에 비해 협조가 잘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7) 남원의료원 근무 지속 의향

- 남원의료원에 계속 근무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79.7%(계속 근무하고 싶다 46.2%+당분간은 더 근무하고 싶다 33.5%)로 매우 높게 나타남
- 반면, 이직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0.3%(다른 직장이 정해지는 대로 이직하고 싶다 7.1%+조만간 이직하고 싶다 13.2%)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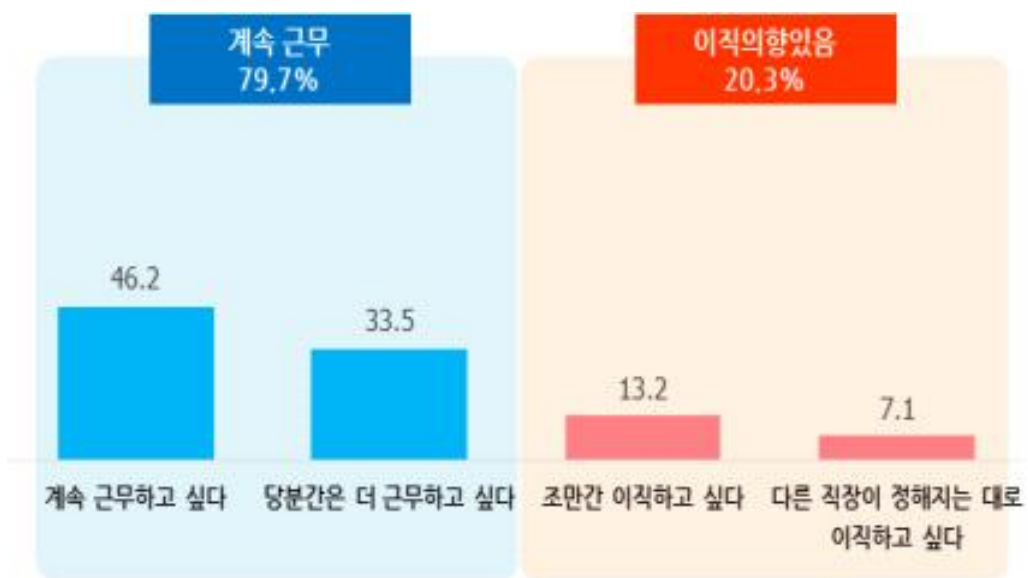


그림 5-40 남원의료원 근무 지속 의향

- 연령별로는 2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이직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5년 이하인 응답자가 5년 초과인 응답자에 비해 이직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8) 전반적 근무 만족도

- 남원의료원의 전반적 근무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점임
- 만족한다는 응답은 36.1%(매우 만족한다 4.6%+만족하는 편이다 31.5%)로 높음 반면,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20.8%(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6.1%+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14.7%)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43.1%로 나타남
- 근무 중 애로사항으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 가장 많은 가운데, 낮은 급여, 과도한 업무 등의 의견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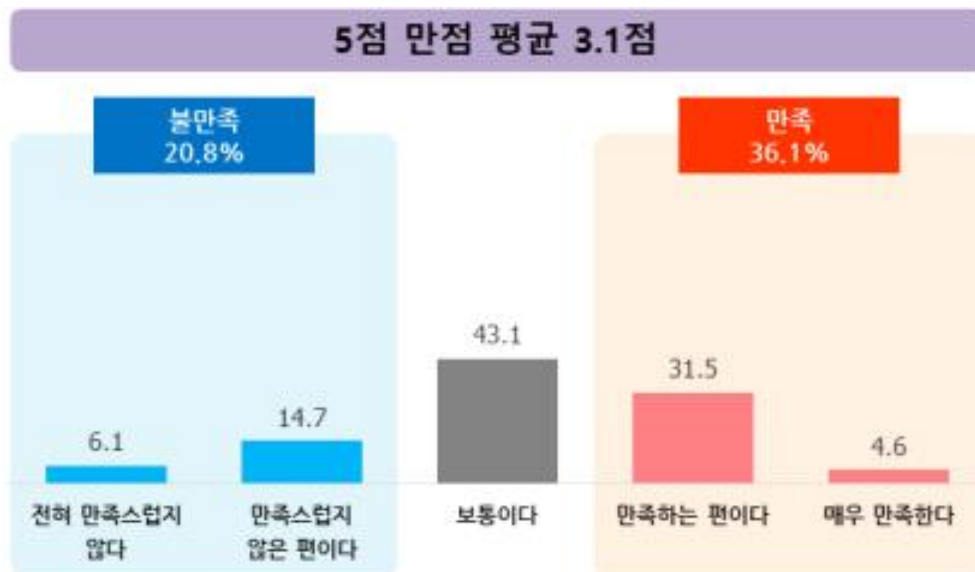


그림 5-41 전반적 근무 만족도

- 연령별로는 5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근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 행정직이 타 직무에 비해 근무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10년 초과인 응답자가 10년 이하인 응답자에 비해 근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가 10년 초과인 응답자가 10년 이하인 응답자에 비해 근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10 전반적 근무 만족도

(단위 : 명(%), 점)

구분		사례수 (명)	①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② 만족스럽지 않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만족하는 편이다	⑤ 매우 만족한다	5점 만점 평균
전체		197	12(6.1)	29(14.7)	85(43.1)	62(31.5)	9(4.6)	3.1
성별	남성	65	5(7.7)	10(15.4)	19(29.2)	25(38.5)	6(9.2)	3.3
	여성	132	7(5.3)	19(14.4)	66(50.0)	37(28.0)	3(2.3)	3.1
연령	만19~29세	15	3(20.0)	4(26.7)	5(33.3)	3(20.0)	0(0.0)	2.5
	30대	54	1(1.9)	15(27.8)	24(44.4)	12(22.2)	2(3.7)	3.0
	40대	65	6(9.2)	6(9.2)	32(49.2)	19(29.2)	2(3.1)	3.1
	50대	60	2(3.3)	3(5.0)	23(38.3)	28(46.7)	4(6.7)	3.5
	60세 이상	3	0(0.0)	1(33.3)	1(33.3)	0(0.0)	1(33.3)	3.3
직무구분	의사	17	2(11.8)	3(17.6)	5(29.4)	6(35.3)	1(5.9)	3.1
	간호사	83	3(3.6)	14(16.9)	40(48.2)	25(30.1)	1(1.2)	3.1
	행정직	27	2(7.4)	2(7.4)	7(25.9)	13(48.1)	3(11.1)	3.5
	기타	70	5(7.1)	10(14.3)	33(47.1)	18(25.7)	4(5.7)	3.1
해당분야 근속년수	5년 이하	29	2(6.9)	9(31.0)	10(34.5)	6(20.7)	2(6.9)	2.9
	5년 초과 10년 이하	29	4(13.8)	8(27.6)	9(31.0)	6(20.7)	2(6.9)	2.8
	10년 초과	139	6(4.3)	12(8.6)	66(47.5)	50(36.0)	5(3.6)	3.3
남원 의료원 근속년수	5년 이하	53	4(7.5)	13(24.5)	18(34.0)	15(28.3)	3(5.7)	3.0
	5년 초과 10년 이하	30	3(10.0)	7(23.3)	11(36.7)	8(26.7)	1(3.3)	2.9
	10년 초과	114	5(4.4)	9(7.9)	56(49.1)	39(34.2)	5(4.4)	3.3
진료과	내과	17	1(5.9)	2(11.8)	6(35.3)	8(47.1)	0(0.0)	3.2
	신경과	2	0(0.0)	0(0.0)	0(0.0)	2(100.0)	0(0.0)	4.0
	외과	5	1(20.0)	1(20.0)	2(40.0)	1(20.0)	0(0.0)	2.6
	정형외과	16	1(6.3)	2(12.5)	11(68.8)	2(12.5)	0(0.0)	2.9
	신경외과	4	1(25.0)	1(25.0)	2(50.0)	0(0.0)	0(0.0)	2.3
	마취통증의학과	3	0(0.0)	0(0.0)	2(66.7)	0(0.0)	1(33.3)	3.7
	산부인과	5	0(0.0)	0(0.0)	1(20.0)	4(80.0)	0(0.0)	3.8
	소아청소년과	7	0(0.0)	1(14.3)	3(42.9)	3(42.9)	0(0.0)	3.3
	비뇨기과	1	0(0.0)	0(0.0)	0(0.0)	1(100.0)	0(0.0)	4.0
	가정의학과	5	0(0.0)	2(40.0)	2(40.0)	1(20.0)	0(0.0)	2.8
	응급의학과	11	1(9.1)	4(36.4)	5(45.5)	1(9.1)	0(0.0)	2.5
	치과	1	0(0.0)	0(0.0)	1(100.0)	0(0.0)	0(0.0)	3.0
	기타	23	0(0.0)	4(17.4)	10(43.5)	8(34.8)	1(4.3)	3.3
	직무 행정직 및 기타	97	7(7.2)	12(12.4)	40(41.2)	31(32.0)	7(7.2)	3.2

9) 중앙정부 관리체계가 지방의료원의 거점병원 역할 수행 적합도

- 중앙정부의 관리체계(운영평가 등)가 지방의료원이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는 5점 만점에 3.5점임
- 적합하다는 응답은 50.3%(매우 적합하다 13.2%+적합한 편이다 37.1%)로 높게 나타남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10.6%(전혀 적합하지 않다 2.5%+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8.1%)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39.1%로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공공의료의 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인력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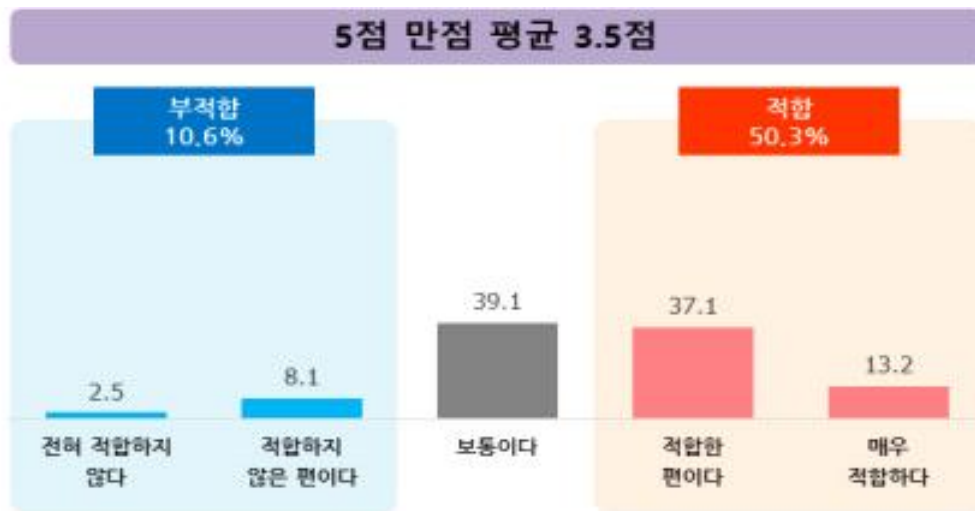


그림 5-42 중앙정부 관리체계 적합도

- 연령별로는 5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는 행정직이 타 직무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10년 초과인 응답자가 10년 이하인 응답자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가 10년 초과인 응답자가 10년 이하인 응답자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10)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7점임
-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7.1%(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7.6%+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9.4%)로 높게 나타남
반면, 만족한다는 응답은 15.3%(매우 만족한다 3.6%+만족하는 편이다 11.7%)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47.7%로 나타남
-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인력지원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나 재정적 지원도 강화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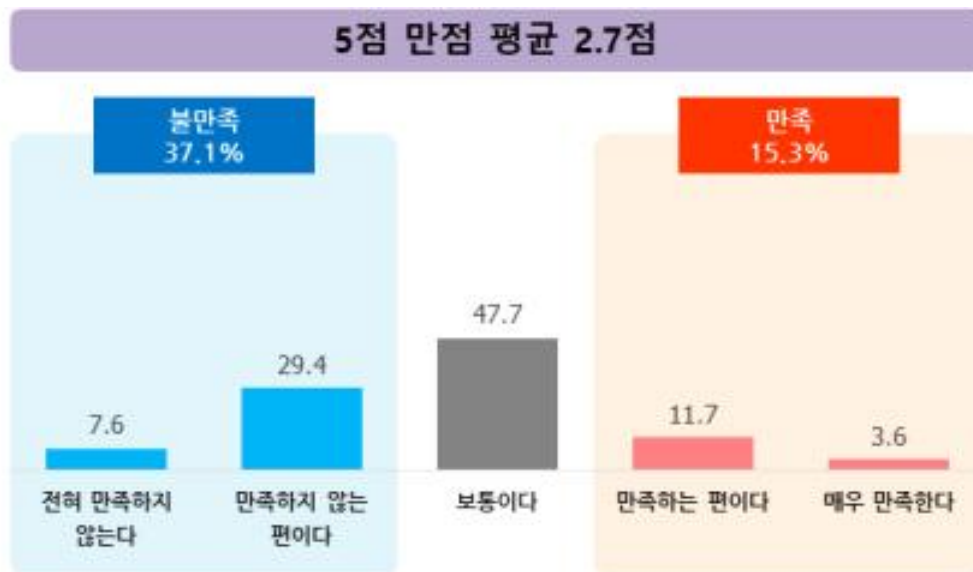


그림 5-43 중앙정부의 지원 만족도

-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 간호사와 의사가 타 직무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11) 지방정부 관리체계가 지방의료원의 거점병원 역할 수행 적합도

- 지방정부의 관리체계(원장채용, 정원, 행정적 권한 등)가 지방의료원이 거점병원으로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정도는 5점 만점에 3.2점임
- 적합하다는 응답은 37.0%(매우 적합하다 7.6%+적합한 편이다 29.4%)로 높음 반면, 부적합하다는 응답이 18.3%(전혀 적합하지 않다 4.6%+적합하지 않은 편이다 13.7%)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44.7%로 나타남
- 개선사항으로는 각 지역별, 병원별 상황에 맞는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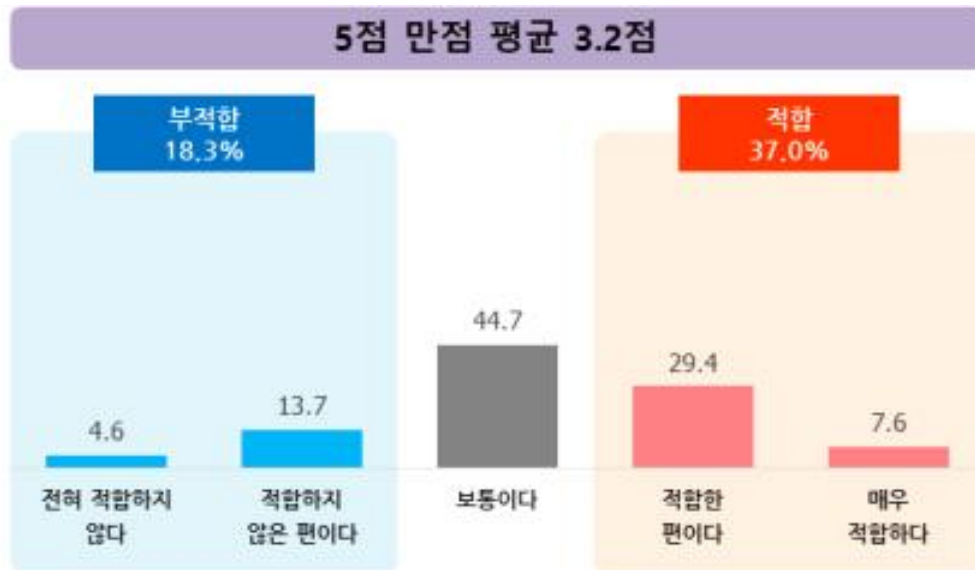


그림 5-44 지방정부 관리체계 적합도

- 연령별로는 5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 행정직이 타 직무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10년 초과인 응답자가 10년 이하인 응답자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가 10년 초과인 응답자가 10년 이하인 응답자에 비해 적합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12) 지방정부의 지원 만족도

- 지방정부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8점임
- 불만족한다는 응답 34.0%(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5.1%+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28.9%)로 높게 나타남
만족한다는 응답은 16.7%(매우 만족한다 3.0%+만족하는 편이다 13.7%)로 나타났으며, 보통 수준은 49.2%로 나타남
- 필요한 지원 사항으로는 인력 지원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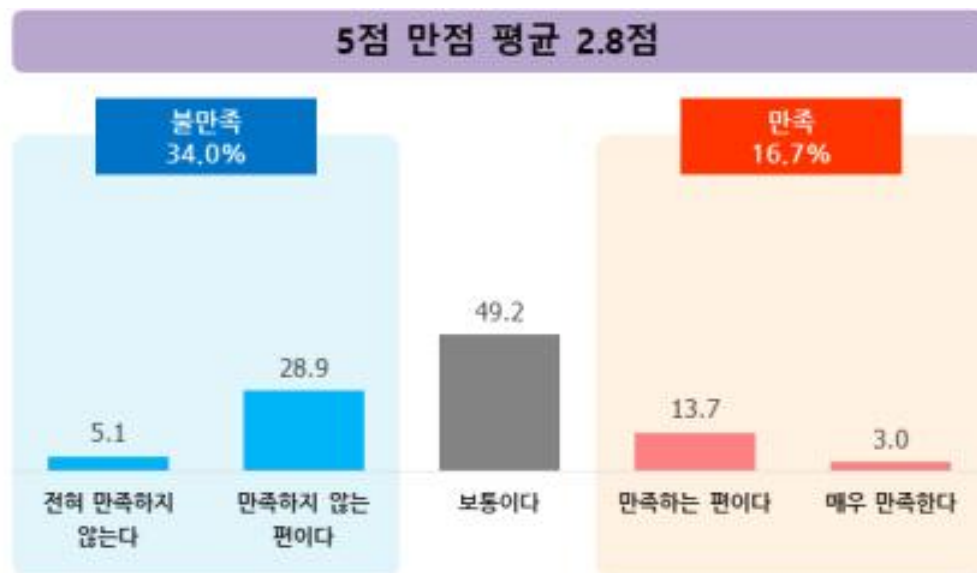


그림 5-45 지방정부의 지원 만족도

-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대가 타 연령대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별로 간호사가 타 직무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해당분야 근속년수가 5~10년인 응답자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남원의료원 근속년수가 5~10년인 응답자가 그 외 응답자에 비해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제6장 남원의료원 기능 및 역할 개편 방안

1. 진료서비스

1.1 현황 및 문제점

1) 진료권 내 위상 및 역할에서의 문제점

- 남원의료원은 남원시와 순창군을 포괄하는 중진료권 내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서 해당 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 이용과 관련된 취약지역과 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 남원의료원은 심뇌혈관질환 및 응급의료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일부 진료과목에서 거점의료기관의 위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서비스의 포괄성과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가. 심뇌혈관질환 대응 역량 미흡

- 남원시는 주요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표준화사망률이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임. 이는 기타 심장질환으로 인한 표준화사망률을 제외한 나머지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전국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임

표 6-1 전국 및 남원시의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연도별 추이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증감율 (‘17-‘13)
남원시	- 고혈압성 질환	2.5	3.4	1.9	4.2	9.1	△264%
	- 심장질환	27.1	37.0	35.4	40.4	34.9	△28.8%
	- 허혈성 심장질환	11.8	15.0	13.5	16.3	12.7	△7.6%
	- 기타 심장질환	15.3	21.9	21.9	24.1	22.2	△45.1%
전국	- 고혈압성 질환	5.9	5.8	5.4	5.4	5.4	▼8.5%
	- 심장질환	34.1	33.8	34.0	33.8	32.9	▼3.5%
	- 허혈성 심장질환	18.2	18.0	17.7	16.8	15.5	▼14.8%
	- 기타 심장질환	15.9	15.8	16.3	17.0	17.5	△10.1%

· 출처 : 2017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이런 상황에서 남원의료원은 현재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없는 상태임. 이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전도장애 및 심장성 부정맥의 경우 전국 동일 종별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치료점유율이 낮은 것으로 현상화되고 있음
- 신경외과의 경우 해당 진료권 내 동일 종별 비교병원들보다는 의료서비스 제공률이 높으나 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제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특히 신경외과는 환자 수에 비하여 의료진 수가 적다는 직원들의 평가가 있고, 기타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도 전국 동일종별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치료점유율이 낮음

나. 응급의료 기능 미흡

- 남원의료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타 센터들과 비교했을 때 응급실 내원환자 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적은 상황임
- 전원 사유의 경우에도 당장 응급수술 또는 응급처치가 불가능하거나 전문 응급의료를 요하는 경우가 타 센터에 비해서 높음. 남원의료원 응급실 내원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은 중증 응급질환자들의 사망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자체의 문제만으로는 볼 수 없고 남원의료원의 진료과목 및 전문의 역량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임. 특히 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인력의 부족, 순환기 내과 전문의의 부재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일부 진료과목의 거점 역할 미비

- 대부분의 진료과목에서 해당 진료권 내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비뇨의학과 의 의료서비스 제공률을 높일 필요가 있음. 정신건강의학과는 경우 남원시에 대형정신병원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률 확장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물론 이들 진료과목들도 해당 진료권 내 동일 종별 비교병원들보다는 의료서비스 제공률이 높으나 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제공률은 낮음. 정신건강의학과와 비뇨의학과는 전문의가 한 명 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전문의 숫자와도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기타 장관 감염성 질환, 신부전증과 같은 질병의 경우 전국 동일종별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치료점유율이 낮음. 이는 감염내과, 신장내과 전문의의 부재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절증, 관절의 기타 장애,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편두통 및 기타 두통 증후군, 기타 뇌혈관 질환, 기타 신경계의 질환, 신경, 신경근 및 신경총 장애도 전국 동일종별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치료점유율이 낮음. 해당 질병들은 각각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과, 신경외과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질환들이며 현재 남원의료원에는 각 과당 전문의가 2인씩 배치되어 있음. 전문의가 2인씩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질병의 치료점유율이 낮은 이유를 인력의 양과 전문성, 시설, 장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고 원인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라. 낮은 의료서비스 포괄성

- 동일 진료권 내의 종합병원, 병원과 비교했을 때 외과,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진료과의 RDRG 포괄성 비율이 낮음
- 이런 상황들은 거점공공병원 내지는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 설정에 심각한 장애요소라고 판단됨
- 또한 남원의료원이 담당할 수 있는 전체 DRG 개수는 215개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했을 때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향후 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수련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적어도 400개 이상의 DRG를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같은 종합병원급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비교했을 때도 단순질환군의 비율이 높고 전문질환군과 일반질환군의 비율이 낮음. 전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비교한다면 전문질환군의 비율은 더욱 낮은 상태가 되며 단순질환군은 더욱 높은 상태임

2) 인력 부족

가. 진료과목 및 전문의 수 부족

- 2017년 현재 남원의료원의 총 전문의 수는 33명으로서 다른 종합병원급 지역거점 공공병원과 비교한다면 절대적 숫자는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없음. 그러나 양질의 이차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의 인력 기준으로 본다면 부족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와 같이 필수의료와 연관성이 크고 복수 전문의로 운영될 필요성이 높은 과의 전문의 숫자가 1인인 것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됨. 외과와 재활의학과와 입원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전문의 숫자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외과와 소아청소년과는 환자 수에 비하여 의료진 수가 적다는 직원들의 평가가 있는 상황임.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외래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진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내과의 경우 6인의 전문의가 있지만 소화기내과가 4인이며 감염내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가 전무함. 남원의료원은 해당 진료권의 감염치료 및 심혈관계질환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맥락에서 이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남원시의 심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순환기 내과 전문의 확충은 시급함
- 또한 현재 33개 병상의 인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신장내과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투석 등의 신장질환 관련 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음. 뿐만 아니라 남원시의 주요 사인 중 3위가 호흡계통 질환이라는 점에서 호흡기 내과 전문의 1인은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안과,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없는 상황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안과와 이비인후과는 수요가 많고 협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료과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았음

나. 간호인력 부족

- 현재 남원의료원의 간호등급은 6등급으로서 간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 경우 특히 입원의료서비스의 질에 악영향을 줄 확률이 높음
- 환자만족도 조사의 경우 최근 3년 간 입원환자 만족도 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간호사 서비스 개선이 중점개선 항목으로 지적되고 있음. 입원환자 만족도 점수는 전체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바 남원의료원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고 있음

3) 장비의 노후화

- 경과연수 8년이 초과된 의료장비가 64.0%로 지방의료원 전체평균인 43.1%에 비해서 높음. 반면 경과연수 5년 이내인 장비는 27.0%로서 지방의료원 전체평균 43.5%보다 낮음

- 장비의 노후화는 의료의 질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노후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
- 남원의료원은 의료서비스 포괄성이 낮으므로 이를 높이기 위한 전략과 장비의 교체를 연관시켜 전략적인 장비 교체 계획 및 실행이 필요함

1.2 기능 및 역할 개편 방안

1) 진료서비스 개선 방향

- 남원의료원은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에 근거하여 향후 중진료권 내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확률이 높음
- 이를 위해서는 중진료권 내에서 필수의료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특히 심뇌혈관질환 및 응급진료 영역에서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또한 필수의료의 한 분야인 재활의료의 거점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야 함

가. 거점 심뇌혈관질환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2018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병원들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남원의료원은 순환기내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으며 허혈성 심장질환, 부정맥, 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치료 점유율이 낮음
- 기본적으로 순환기 내과 전문의를 2인 이상 채용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심혈관센터 신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신경과, 신경외과의 주요 질병 치료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 측면의 대안을 강구해야 함. 남원의료원의 경우 지방의료원 평균에 비해서 수술실과 중환자실 병상 수가 부족하고 장비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원광대학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의 유기적 연계체계 구축을 통하여 심뇌혈관 질환 관련 표준진료지침을 개발 및 실행하고 진료, 교육 등의 영역에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현재 심혈관센터 건립을 계획 중이기 때문에 심혈관센터 건립이 거점 심혈관질환 관리의 거점 기관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를 전략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음

나.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

- 남원의료원 지역 응급의료센터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부족한 응급의학 전문의 수를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의 보강 시 향후 중진료권 내 외상 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외상 전문 응급의학 전문의를 보강하고 전문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해야 함
- 동시에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온 환자들에 대한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수술실을 확대하고 응급의료시설 및 장비를 보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의 응급처치 후 응급수술 및 시술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의를 보강하되 특히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순환기 내과의 전문의 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지역 재활센터로서의 역량 강화

- 현재 남원의료원의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1인에 불과함. 재활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지만 남원의료원 재활의학 입원 실적은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의 포괄성도 낮은 상태임
- 또한 순창군 지역주민들의 재활 영역의 접근성 취약인구비율이 46.0%로 높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도 가져야 함
- 앞으로 남원의료원이 지역의 심뇌혈관질환 치료 뿐만 아니라 응급 및 외상의 진료권 내 거점기관을 지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심뇌재활을 비롯한 재활 영역의 강화는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판단됨
- 이런 맥락에서 남원의료원이 지역 재활센터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하기 위한 인력, 시설, 장비의 보강이 필요함

2) 의료인력 확충

- 우리나라를 73개 중진료권으로 구분한 연구(2018)에 의하면 남원의료원이 소재하고 있는 남원진료권(남원시, 순창군)은 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안과, 중증입원과 관련된 자체충족률이 30%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뿐만 아니라 분만, 신생아, 심뇌혈관질환, 암과 관련된 자체충족률도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음. 이 중 암은 상급종합병원 단위에서 관리해야 할 질환이라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의 많은 부분에서 남원의료원이 기여해야 할 영역들은 많음
- 뿐만 아니라 내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형외과, 일반질환군의 입원, 중증응급 및 외상, 재활, 감염, 정신 영역도 자체 충족률이 낮은 영역으로 보고되고 있음.
- 그러나 남원의료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신경외과, 비뇨기과의 의료서비스 제공률은 낮으며 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는 전문의 1인 밖에 없음. 또한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안과 전문의는 없는 상태임
- 간호등급은 6등급으로서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입원의료서비스의 질이 매우 낮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 일차적으로 자체충족률이 낮은 전문과목 중에서 전문의가 1인 밖에 없거나 전문의가 아예 없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확충이 시급함. 이에 해당하는 진료과는 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안과임. 만약 이들 진료과목에 전문의가 최소한 1인씩 확충된다면 2018년 현재 전문의 숫자가 총 36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전문의 수는 43인이 됨. 43인의 전문의는 남원의료원이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 간호인력의 절대적 부족은 남원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진료권에 대한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간호인력의 채용 및 유지와 관련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공의료대학원의 교육수련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과의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나와 있는 바 정책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만약 국립중앙의료원과 본원-분원 관계 구축이 어렵다면 강력한 제휴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력파견 협약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 국립중앙의료원과의 관계 구축이 본원-분원 관계 또는 강력한 제휴 관계, 어느 쪽으로 선택되는 전문의 및 간호인력의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6-2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설치법안 [의안번호 제15872호]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된 사무소 및 분원과 그 부속기관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분원의 설치)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분원(分院)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제3호 중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을 “주된 사무소 및 분원과 그 부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전북대병원과의 협력관계 강화

- 전북대병원은 전라북도 권역의 국립대병원으로서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있음
- 남원의료원은 전북대병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내분비 내과 전문의 1인, 비뇨기과 전문의 1인, 인턴 1인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력 파견이 시급한 진료과를 중심으로 전략적 파견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RDRG로 본 포괄성 비율이 낮은 문제를 전북대병원과의 기술지원 협정 체결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는 연구예산을 책정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 포괄성 확장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필요함. 또한 이런 결과를 반영한 필수의료 관련 표준진료지침을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원 하에 전북대병원과 공동개발 할 필요가 있음

2.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1.1 현황 및 문제점

1) 사업 내용상의 문제점

- 남원의료원은 지역의 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원내에서 수행하는 진료 뿐 만이 아니라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의 수단으로서 정부의 정책 사업을 수행하고 확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함
-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 회복, 유지를 위하여 다양한 지역사회자원들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필수의료와 연관성이 높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정부가 건강보험보장성강화대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있고 일부 필수의료와 관련된 인프라 및 공공보건의료 사업이 충분하지 않음

가. 원활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진행의 어려움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간호인력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본 진단에서 수행한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노령인구의 증가, 보호자가 간병할 수 없는 상황의 증가, 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조사대상 직원들의 65.5%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지금보다 더욱 더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사업의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큰 걸림돌은 간호사 인력 부족임. 현재도 간호등급 6등급인 상황이며 기본적인 인력 충원이 어려운 상황임. 뿐만 아니라 최근 치매안심센터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수행을 기관들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들도 이들 기관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임
- 간호인력 확보 문제와 연계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강화 계획이 필요한 상황임

나. 안전한 모자의료 거점 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보 어려움

- 전라북도의 모성사망비는 15.8명으로서 전국 모성사망비 7.8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상황임
- 남원시의 경우 순창군, 임실군 등 주변에 분만취약지역이 많고 해당 진료권의 중심기관으로서 안전한 분만을 위한 내부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 체계를 기획하고 실행할 책임성을 가지고 있음
- 현재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2017년의 경우 목표(120건) 대비 실적(99건)이 적은 상황임

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미비

- 남원의료원의 의료급여 환자 입원 연인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를 비롯한 기타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수도 많지 않은 상황임
- 원인 파악을 통하여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함

라. 감염 환자 관리 인프라 부족

- 남원의료원은 현재 음압격리병실이 없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일반병동 내에 음압병실 1인실이 5병상이 있으나 전실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음
- 진료권 내 감염관리의 중심기관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개선 및 확충이 필요함

마.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관리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 미정립

- 남원의료원은 남원시 장애인들의 관내 의료이용의 72.5%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남원시 장애인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거점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전국의 동일종별 의료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장애인들의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영역의 치료점유율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들 진료과목들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1인 밖에 없거나 전문의가 없는 과목들임

- 뿐만 아니라 장애인 검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사업과의 체계적인 연계 등에서 미흡한 상황임

2) 수행체계 및 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 작동 미비

- 2017년 현재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강화 사업의 경우 1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는 목표 대비 60%가 채 되지 않는 실적임
- 취약환자 발굴을 통한 서비스 제공 및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내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나.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체계적 수행과 관련된 문제점

- 남원의료원의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를 보면 건강안전망 영역과 미충족서비스 영역의 점수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건강안전망과 미충족서비스 영역은 대표적인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영역이란 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판단됨
- 또한 2017년 공공보건의료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 평가지표의 객관성 결여가 지적되고 있음. 사업을 수행하고도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 내지 못한다면 사업 개선이 어려우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1.2 기능 및 역할 개편 방안

1) 사업 내용 개선 방안

가.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간호인력 확충은 남원의료원 자체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진료권에 대한 기획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며 간호인력의 채용 및 유지와 관련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준비가 필요함
- 장기적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과의 순환근무제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가동할 수 있는 실행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간호인력 직무분석을 통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추계하고 역할분담을 시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간호사 기숙사의 경우 간호사 최대수용 인원 및 수용 가능비율이 낮고 수용인원 당 면적도 좁음. 간호사 기숙사 경과연수가 11년으로서 남원의료원 건물 중에는 경과연수가 긴 것은 아니나 숙소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원의료원의 간호사 임금수준이 낮은 것은 아니나 낮은 직급의 간호사 인건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인상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강구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에서 수행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채용조건별 수준에서 간호사 인력이 가장 낮게 평가한 항목은 급여수준이었고, 급여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도 간호사로서 79.5%였음
- 뿐만 아니라 직원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직원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 역시 간호사로서 69.9%가 이에 해당하였음
- 그러므로 임금, 기숙사 문제, 복지의 영역에서 간호인력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간호인력 확충에 기반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

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의 내실화

- 남원의료원은 2016년 4월부터 당시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는 산모이동버스 운영, 24시간 분만의료서비스 제공, 산모 및 신생아 가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협진체계 구축, 응급콜 서비스, 다문화가정 통역서비스, 산모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그러나 기타 임신과 분만의 합병증 영역에서 전국 동일 종별 의료기관에 비하여 치료접유율이 낮고 남원시와 순창군 주민들의 산부인과 자체충족률이 낮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의 외래 및 입원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문의가 1인 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래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소아청소년과의 자체 충족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남원의료원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서비스의 포괄성은 낮은 상황임
-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확충 및 관련 간호인력의 확충과 함께 전라북도와의 협의를 통하여 전북대병원과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보건소와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중진료권 내 모자의료기관의 거점시설로 남원의료원의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현실화해야 함

다. 감염 관리 인프라 구축

- 감염 내과 전문의를 확충하고 음압격리병상 설치 및 음압병실의 인프라를 개선해야 함.
-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향후 남원의료원이 중진료권 단위의 지역 감염병 관리병원이 될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함
- 동시에 전북대병원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의료감염환자 치료의 질을 높이고 다제내성균 환자를 포함한 의료감염환자의 의뢰·회송 체계를 구축해야 함

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관리 거점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

-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해당 과목 진료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함
-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에서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장애인 검진을 위한 특화된 시설, 장비를 갖추고 지역사회 내 재활체계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체계에 밀접히 결합할 필요가 있음

2) 수행체계 및 과정 개선 방안

가.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로 인한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역할 강화

- 현재 구축하고 있는 남원의료원의 지역사회 연계체계를 취약계층 환자 발굴 및 퇴원 후 지역사회 관리를 중심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남원시, 순창군 관내 읍면동과 지역사회 복지관 및 복지시설, 직업재활시설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취약계층들이 의료서비스 이용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퇴원 후 지역사회 내에서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평가 내실화

- 남원의료원은 전반적으로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사업 기획이 우수한 편이나 평가 영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수행과정에서의 내부 평가와 모니터링은 사업의 개선점을 명확히 해 주며 목표 달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임. 또한 사업의 진척도를 파악하면서 자원 배분을 조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도 담보할 수 있음
- 내부 워크숍 또는 외부 교육을 통하여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건강안전망 영역과 미충족 서비스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3. 병원 운영

3.1 현황 및 문제점

1) 계획과 조정기능

가. 모자병원과의 협력 관계 미흡

- 모자병원 및 협약 체결 기관은 한양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모자병원, 예수병원 등 14개 병원임
- 전북대학교병원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관리기능

가.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낮음

- 승진하기 위한 최소 경과 년수는 상위급 일수록 길며 최소 1.5년에서 최대 3년이며, 2016년 63명, 2017년 15명, 2018년 10월 기준 9명으로 승진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조사 결과 직원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사의 설문조사 결과, 보상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 의사인력은 대체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나. 복리후생제도 및 급여조건 개선 미흡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복리후생제도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18년 현재 전체 의료원 평균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연구의 직원설문조사 급여와 복리후생수준에 대한 평가는 다른 채용조건에 비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복리후생제도의 개선과 급여조건 개선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다. 신규인력확보 및 유지의 어려움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직종별로 인력확보 용이성은 간호사와 의사 등이 가장 어려운 직종으로 분석됨

- 지역적인 특성으로 인해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는 상황에서도 급여수준이 낮다는 인식이 다수 있고, 또한 인력 확보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실제 확보된 신규 간호인력 마저도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고 유출되는 등 지속적인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으며, 간호사 이직율의 경우 3년 미만이 57%에 달하는 등 신규간호사들의 적응이 쉽지 않은 상태임

3) 경영성과

가.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진료비가 낮고, 병상이용률이 저조함

- 재원연인원은 평균보다 낮고,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과 비교대상병원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임
- 2017년 병상이용률(76.5)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81.7) 보다 낮은 수준임
- 남원의료원의 2017년 의료수지 비율(86.2)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89.6)보다 낮으며, 2017년 경상수지 비율(92.8)도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99.6)보다 낮음

나. 인건비 투자효율은 낮고,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은 높은 수준임

- 2017년 인건비 투자효율(98.5)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104.1)보다 낮음
- 2017년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75.8)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70.0)보다 높음
- 2017년 직종별 평균임금 중 의사직(전공의),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인건비가 높음. 2015년 임금테이블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자로 호봉이 올라가서 높은 것으로 파악됨

다. 재무구조 악화

- 남원의료원의 2017년도 부채는 26,582백만원으로 2016년 25,322백만원 보다 증가하였음. 이는 전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보다는 월등히 높은 수준임.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부채감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역내 대상인구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고려할 때, 환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향후 재무구조에도 좋지 못한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남원의료원에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는 차원이라면 인력 및 시설확대 등에 필요한 재원을 고려할 때, 향후 재무구조에 있어서는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므로 남원의료원에 있어서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지 차원에서 효율적 운영도 중요하지만, 보다 지역거점공공병원 및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으로서의 가치를 담당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인력 및 시설확보와 이를 고려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3.2 병원 운영 개선방안

1) 계획 및 조정기능

가. 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내용

- 현재 남원의료원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의료 서비스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부여하고 있음
- 또한,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 설치와 관련하여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상병원으로 향후 지역내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서비스 기능강화와 더불어 수련병원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체계로의 변화와 접근이 필요함

나. 의사결정구조 개선사항(기능 및 역할 강화)

- 남원의료원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은 적정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원장에 대한 평가체계는 전라북도와 성과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타 지역에 비해 공공의료강화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긍정적 평가를 할 수 있으나, 향후에는 가능한 국립중앙의료원의 공공의료지원센터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공병원운영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다. 협력관계 강화

- 현재 모자병원 및 협약 체결 기관은 한양대학교 의료원, 아주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모자병원, 예수병원 등 14개 병원이며, 전북대학교병원모자병원과는 2017년 185건, 2018년 175건의 전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특히, 향후 전북대학교병원과의 모자병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전북대병원에서의 적극적인 의사인력 및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인력의 지원 및 협력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2) 관리 기능

가. 조직관리 개선

- 현재 조직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직원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를 조사 결과에서도 조사된 바와 같이 비교적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직원 교육 만족도를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지역거점공공병원 전체 평균에 비하여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직원교육 실적 면에서 통신교육으로 상당부분 해결하고 있는데, 통신교육의 효과성과 환류를 위한 효과성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남원의료원의 노사관계 및 운영체계는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나. 인사고과 성과관리 개선

- 현행 운영 중인 연봉제 및 성과급 체제는 비교적 병원규정과 지자체 규정에 의거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지방의료원 평균과 비교할 때, 평가와 보상만족도도 높은 수준임
- 그러나, 지리적인 한계와 지역적 의료관련 인력 수급상황의 한계로 인해 남원의료원의 인력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며, 1999년에 개원 이후 전체적으로 호봉이 높은 상급직원은 이직률이 낮고 직원전체 비율에 비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봉이 낮은 신규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직원전체 비중에서도 낮아 이러한 구조적인 조직구조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등의 경우에는 급여와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상당수 불만족하고 있어, 지역현실에 맞게 급여수준과 복지지원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지속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임
- 직종별 근속기간을 보면 사무직이 22년으로 가장 길고 의사직이 7년 11개월로 가장 짧음. 사무직에서 신규직원은 1-2명 정도이며, 대부분의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인데, 대체적으로 직원들의 근속기간이 길어 장기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승진적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승진 등의 조직인사제도의 다각적으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다. 복리후생 개선

- 보상관리 및 복리후생제도 면에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평가와 보상 만족도는 의료원 평균에 비해 약간 높은 수준임
-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복지후생의 개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 직원 복리후생도 지속적으로 관리·개선해야 하는 주요사안임

3) 경영성과

가. 생산성 제고

- 진료실적 면에서 외래환자수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보다 높으며, 재원연인원은 평균보다 낮고 입원환자 1인 1일당 평균 진료비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과 비교대상병원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데, 이는 남원의료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이 타 지역거점공공병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임
- 또한, 남원의료원의 2017년 병상이용률(76.5)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81.7) 보다 낮은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 역시 지역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이 타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인력 및 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비용지출과 관련된 경영수지 악화부분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판단됨
- 2017년 현재 남원의료원의 경상수익(29.9억)은 경상비용(32.2억)에 비해 낮으며,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경우 경상수익평균 32.7억, 경상비용 32.5억 수준인 것을 고려할 때, 필수의료서비스 강화로 인해 추가적인 경상수지의 악화가 예상되는 바, 이를 지원 보완할 수 있는 정부예산 확보가 필요한 실정임

나. 효율성 제고

- 지리적인 특징과 지역 의료서비스 인구의 특성상 2017년 현재 인건비 투자효율(98.5)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104.1)보다 낮게 파악되고 있으며,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율(75.8)이 지역거점공공병원 평균(70.0)보다 높게 분석되고 있음. 이러한 부분도 시군구에 속하며 지리적인 특성과 정부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남원의료원과 같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은 중앙정부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판단됨
- 2017년 직종별 평균임금 중 의사직(전공의),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행정직 인건비가 높음. 2015년 임금테이블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직원이 20년 이상 근무자로 호봉이 올라가서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 임금피크제 등을 통하여 임금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려됨

다. 재무구조 개선

- 남원의료원의 지역적 간호 및 의료인력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지속적인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확대 및 지역적 환자수요 감소 등으로 의료수지 면에서 흑자구조로의 개선을 실질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향후 국가차원에서 공공의과대학(원) 수련병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지역거점병원으로 필수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수련병원의 중심으로써의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재원투자과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4. 정부 및 지자체 지원

4.1 지방의료원의 미션의 일원화

-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은 지역내 거점병원으로서 역할에서 지역내 필수의료로 책임지는 역할로 변경되고 있음
 - 최근 발표한 공공보건의료확충종합대책(‘18.10.01)에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이 기존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에서 실패하는 응급, 감염 등을 보완하는 기능에서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담보로 하는 필수의료로 책임지는 선제적 기능으로 변화하고 있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지방의료원을 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함. 중앙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지역내 필수의료로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발전시키고자 하고 지방정부는 아직도 지방의료원을 지역내 취약계층, 취약분야 등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을 메우는 역할로 한정짓고 있음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방의료원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지방의료원 등 현장에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표 6-3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변화

구 분	현 재	개 선
정 의	시장실패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분야	국민의 생명·안전 및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필수의료
	보완적	선제적·기본적
제공기관	지역 내 분절적 의료수행 권역-지역-기초 협력체계 부재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권역-지역-기초 전달체계 수립
대 상	취약계층 중심	모든 국민
분야	취약지 취약계층 취약분야 : 응급, 분만, 신종감염병 등	필수중증의료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산모(모성·분만), 어린이 의료, 장애인,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 안전

* 출처 : 공공보건의료 확충종합대책(2018.10.01.)

- 중앙정부의 육성방향과 지방정부의 육성방향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통일된 시각이 필요함
- 지방의료원은 국가 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육성방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함
 - 지방의료원의 의료기관으로서 진료의 기능을 향상시키면 지역내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 주민에게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의료수익의 증대시키는 선순환구조로 개편될 것임
 - 그렇지 않고 현재의 경영논리로 지방의료원을 관리한다면 지방의료원의 진료의 기능은 점점 쇠퇴되어, 오히려 더 많은 적자 폭을 예상되고 그로인하여 진주의료원과 같은 존폐위기에 당면하는 기관이 확대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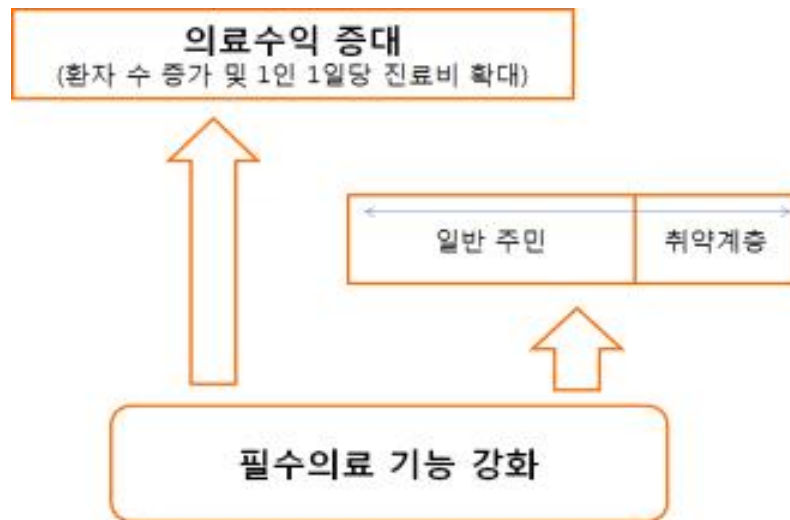


그림 6-1 기능변화에 따른 주요 고객 변화 및 의료수익 증대

4.2 중앙정부 지원방식의 변화 및 연속성 확보

- 중앙정부의 지원이 시설 및 장비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규 정책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미흡함
 - 중앙정부에서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시설 및 장비비에 국한되어 있으며, 일부 공공의료프로그램,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이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음
 - 운영비성 지원금은 확대되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축소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지방의료원이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가 나중에는 전적으로 의료원의 부담으로 안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규 정책사업 참여에 반감을 가지고 있음
- 지역 의료환경 및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의료 공백 등에 대해서는 시설 및 장비비 지원 외에도 일정부분 운영비성 예산지원이 필요함. 이러한 지원이 동반되지 않고는 사업의 질적 확대 및 연속성 확보는 어려움
- 공공보건의료 발전대책 이후 정부의 지원방향은 필수의료 중심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고, 지원 분야도 시설 및 장비비에서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이 동반 추진되어야함
 - 의료인력에 대한 지원도 기존까지는 의사 중심이었지만, 현재 지방소재 의료원들은 의사확보 보다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를 포함한 타 직종도 인건비 지원 사업 범위에 포함되어야함

4.3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관리체계의 일원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관리체계의 주요 수단인 평가체계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평가 기관인 지방의료원의 평가관련 업무의 부담이 큼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분법적인 지방의료원 관리로 인하여 지방의료원 육성 방향에 대한 정부의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근거하여 운영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지방의료원 운영평가는 진료서비스,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병원관리, 책임운영 등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조
 -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에 대해서 경영실적 평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경영실적의 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음. 경영실적 평가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서 경영관리, 정책 준수 등을 강조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실적 평가는 유사한 평가를 시행할 경우 그 결과를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발적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경영실적 평가의 제외 대상기관과 시기조정)제 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 기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에서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적인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도 됨

표 6-4 지방의료원 경영실적 평가와 운영평가

경영실적 평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평가영역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리더십/전략	기관(장)의 리더십, 고객서비스, 윤리경영 및 성과지향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노력도	양질의 의료	양질의 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인프라, 프로세스, 결과 평가 및 환자만족도
경영시스템	지방출자·출연법령, 인사·조직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 지침 등의 준수 여부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사업체계, 의료취약계층 지원, 지역별 특화된 공공보건의료사업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 생산성, 고객만족도 등 경영활동 성과	합리적 운영	지자체 지원, 공정한 구매 및 재무관리 시스템 등
정책준수	인건비 인상률 준수 등 법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정책 준수 여부	책임 운영	거버넌스, 리더십, 윤리경영, 부정부패, 청렴도 등 의료기관 운영행태

- 지방정부의 원장성과계약의 주요내용도 경영실적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장은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진료서비스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동기가 부족함
- 운영평가 결과 점수를 원장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있지만 그 비중이 낮고, 경영관련 실적 지표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기가 미흡

표 6-5 남원의료원 원장성과계약 내용

성과지표	세부지표	배점
공공의료강화 (40)	운영평가	10점
	외부고객 만족도	10점
	공익적 기능강화	10점
	표준진료지침(CP)	10점
내부효율화 (20)	내부고객 만족도	10점
	친절한 병원 만들기	10점
경영개선 (40)	신포괄수가제	10점
	전문의료진 확충	10점
	제도개선	10점
	공동구매	10점

- 평가의 목적은 피 평가기관의 현재의 운영 현황의 점검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향후 기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임. 그렇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평가 목적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일원화가 필요함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평가는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 가중치 등을 일치시키거나 혹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영평가로 관련 평가를 대체함으로써 피평가 기관의 평가수행에 따른 불필요한 업무수행을 줄이고 하나의 평가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4.4 공공의료기관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 강화

- 공공의료기관은 자체적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외에는 지원이 미흡
- 지방자치단체는 산하 공공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적절한 의사 및 간호사 인력에 대한 추계가 필요하며, 지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인력교류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 지역환경,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사 수 및 간호사 수를 산정해야함
 - 권역 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인력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 필요
- 중앙정부는 공공의료기관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및 간호사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의사 및 간호사의 선택에 따라 근무지를 선택하며, 취약지역에서 근무하면 인사고과 혹은 우수한 의료기관에 연수할 수 있는 기회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개발하여 의료 인력이 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
 - 국립중앙의료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지방소재 공공의료기관으로 근무하도록 다양한 근무조건을 개발하여 공공의료기관으로 의료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개발

제7장 모니터링체계 구축

1. 개요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의 목적은 병원 전반에 대해서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분석된 개선사항은 실제 의료원의 각종 계획에 반영되고, 개선사항에 대한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은 10월에 발표된 공공보건의료 확충종합대책에서 새롭게 정립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및 역할을 기반으로 지방의료원이 해당 지역에서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목표로 두고 수행하였음
- 그렇기 때문에 진료서비스의 기능 강화를 중요한 핵심 분야로 책정을 하고 진단을 진행했기 때문에 지방의료원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음. 그렇지만 다양한 데이터분석 및 정부정책을 검토해봤을 때 해당 의료원의 방향성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본 보고서 결과를 향후 의료원 방향 설정 시 중요한 자료로 참고하기 바람

2. 영역별 모니터링 지표

- 운영진단을 진료서비스, 공공보건의료사업, 병원운영,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관리로 구분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핵심 과제에 대해서 목표지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함
-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는 모니터링 지표는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해당 의료원에서 보다 적합한 지표가 있을 시에는 대체하여 사용해도 무방함

표 7-1 남원의료원 운영진단 모니터링 지표

영역		모니터링 지표
진료서비스		
진료서비스	거점 심뇌혈관 질환 관리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 순환기내과 전문의 2인 이상 채용 • 심혈관센터 신축사업 원활히 추진(인력, 시설, 장비 전략적 확충) • 신경과, 신경외과 치료점유율 향상(시설, 인력, 장비 대안 강구) • 수술실, 중환자실 병상수 부족과 노후화 검토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와 연계체계 구축(심뇌혈관 질환 관련 표준진료지침 개발 및 실행, 기술지원)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역량 강화	• 응급의학 전문의 수 보강(외상 전문 응급의학 전문의) • 응급수술이 가능토록 수술실 확대 및 시설 장비 보강 • 응급수술 및 시술 가능한 전문의 보강(외상, 흉부외과, 신경외과, 순환기 내과 전문의 보강)
	지역 재활센터로서의 역량 강화	• 심뇌혈관질환, 응급 및 외상 진료 후 재활서비스 강화(인력, 시설, 장비 보강)
의료인력		• 자체충족률이 낮은 전문과목 중 전문의 1인 또는 없는 진료과목 전문의 보강(외과, 소아청소년과, 재활의학과, 순환기내과, 신장내과, 감염내과, 안과) • 간호인력 국중원과의 관계 구축
전북대병원과 협력관계 강화		• 진료서비스 영역 보강이 필요한 과 또는 인력을 중심으로 의료인력 파견 요청 • RDRG 포괄성 비율을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 • 국립중앙의료원과 인력 제휴 관계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업 내용 개선 방안	간호인력 확충을 통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 확대	- 간호인력 채용 및 유지(전라북도와 협의를 통한 실행방안 추진) - 간호인력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추계 및 역할 분담 - 간호 기숙사 쾌적성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낮은 직급 간호사 인건비 적정성 검토 - 임금, 기숙사, 복지 등 간호인력 채용 영향요인 확인 및 해결 노력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 센터 내실화	- 산부인과, 소아과 전문의 및 전문의 확충 - 중진료권 내 모자의료기관 거점시설로써 시설, 장비 시스템 투자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 감염 내과 전문의 확충, 음압격리병상 설치 및 음압병실 인프라 개선 - 의료감염환자의 의뢰·회송 체계 구축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 관리 거점기관으로 서의 위상 정립	- 정신건강의학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확충 -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통한 여성 장애인 지원 - 장애인 검진위한 시설, 장비 구축과 지역 연계
수행체계 및 과정 개선 방안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체계 활성화
		사업진행과정에서의 평가 내실화
병원운영		
계획 및 조정	계획서 보완	필수의료서비스 수행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 계획 수립
	의사결정구조 개선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준에 근거한 평가체계 구성
	협력관계 강화	모자병원 체계를 통한 연계 협력 강화
관리	조직관리	교육 효과 환류 체계 마련
	인사고과 성과관리	- 상급직원의 비율이 높고, 신규직원의 이직률이 높은 문제점에 대한 방안 - 장기 근속한 직원들에 대한 승진적체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대체승진 등 방안
	복리후생 개선	맞춤형 복리후생
경영성과	생산성	재원연인원, 병상이용률 향상(필수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제공과 인력 및 시설 확보)
	효율성	임금구조 개선 필요(임금피크제 등 도입)
	재무구조	필수의료서비스와 응급의료서비스 기능을 강화를 위한 준비 필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관리	• 지방의료원 미션 일원화(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 중앙정부 지원방식 변화 및 연속성 확보 • 중앙 및 지방정부의 관리체계 일원화(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로 기관 평가 일원화) •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중앙 및 지자체 지원 강화(지역내 의료인력 교류와 제도적 지원)

2018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진단 연구
- 남원의료원

발행처 / 국립중앙의료원
발행인 / 정 기 현
발행일 / 2018년 11월 30일
인쇄처 / 이문기업

NATIONAL MEDICAL CENTER
CENTER FOR PUBLIC HEALTH
www.nmc.or.kr